

文學碩士 學位論文

불국사 경내 출토
고려청자 해무리굽완에 대하여

慶州大學校 大學院

文 化 財 學 科

李 旼 馨

2007年 6月

불국사 경내 출토
고려청자 해무리굽완에 대하여

指導教授 金 昌 鎬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7年 6月

慶州大學校 大學院

文 化 財 學 科

李 旻 馨

李旻馨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查委員長 _____ 印

審 查 委 員 _____ 印

審 查 委 員 _____ 印

慶州大學校 大學院

2007年 6月

목 차

I. 머리말.....	1
II. 해무리굽완의 범주.....	6
III. 불국사 경내 출토 고려청자 해무리굽완의 분류기준.....	13
1. 각부명칭.....	13
2. 분류기준.....	14
IV. 불국사 경내 출토 고려청자 해무리굽완의 형식 분류.....	19
V. 불국사 경내 출토 고려청자 해무리굽완의 변천.....	34
VI. 맺음말.....	44
참고문헌.....	47
도면.....	51
도판.....	57
속성표.....	72
Abstract.....	76

<표 목차>

표 1. 한반도 청자 발생시기와 청자 해무리굽완의 형식 분류.....	7
표 2. 고식과 신식으로 둔 해무리굽완의 명칭과 특징.....	9
표 3. 불국사 경내 출토 고려청자 해무리굽완의 형식 분류.....	32
표 4. 초기청자요지 출토 청자 해무리굽완 형식 분류 현황표.....	67

<속성표 목차>

속성표 1. 불국사 경내 출토 고려청자 해무리굽완 I 형식.....	72
속성표 2. 불국사 경내 출토 고려청자 해무리굽완 II 형식.....	72
속성표 3. 불국사 경내 출토 고려청자 해무리굽완 III 형식.....	73
속성표 4. 불국사 경내 출토 고려청자 해무리굽완 IV 형식.....	74
속성표 5. 불국사 경내 출토 고려청자 해무리굽완 V 형식.....	75

<삽도 목차>

삽도 1. 해무리굽완의 범주로 한 대상유적 위치도 및 유적명.....	8
삽도 2. 해무리굽완의 고식과 신식의 실 예.....	11
삽도 3. 해무리굽완의 각부명칭.....	13
삽도 4. 경주 배리 출토 청자골호.....	34
삽도 5. 불국사 경내 출토 중국청자완.....	35
삽도 6. 강진 용운리 요지 출토 해무리굽 초별구이편.....	38
삽도 7. 고창 용계리 출토품.....	39
삽도 8. 불국사 경내 출토 매납기와.....	40

<도면 목차>

도면 1. 불국사 경내 출토 고려청자 해무리굽완 I 형식(1~7).....	51
도면 2. 불국사 경내 출토 고려청자 해무리굽완 II-1 형식(1~7).....	52
도면 3. 불국사 경내 출토 고려청자 해무리굽완 II-2 형식(1~12).....	53
도면 4. 불국사 경내 출토 고려청자 해무리굽완 III-1 형식(1~11).....	54
도면 5. 불국사 경내 출토 고려청자 해무리굽완 III-2 형식(1~11).....	55
도면 6. 불국사 경내 출토 고려청자 해무리굽완 IV 형식(1~5).....	56
도면 7. 불국사 경내 출토 고려청자 해무리굽완 V 형식(1~7).....	56

<도판 목차>

도판 1. 불국사 경내 출토 고려청자 해무리굽완 I 형식(1~7).....	57
도판 2. 불국사 경내 출토 고려청자 해무리굽완 II-1 형식(1~7).....	58
도판 3. 불국사 경내 출토 고려청자 해무리굽완 II-2 형식(1~6).....	59

도판 4. 불국사 경내 출토 고려청자 해무리굽완 II-2형식(1~6).....	60
도판 5. 불국사 경내 출토 고려청자 해무리굽완 III-1형식(1~5).....	61
도판 6. 불국사 경내 출토 고려청자 해무리굽완 III-1형식(1~6).....	62
도판 7. 불국사 경내 출토 고려청자 해무리굽완 III-2형식(1~6).....	63
도판 8. 불국사 경내 출토 고려청자 해무리굽완 III-2형식(1~5).....	64
도판 9. 불국사 경내 출토 고려청자 해무리굽완 IV형식(1~5).....	65
도판 10. 불국사 경내 출토 고려청자 해무리굽완 V형식(1~7).....	66

1. 머리말

소위 청자 해무리굽완은 사원, 관아 등의 건물지 유적 및 토광묘, 석곽묘 등의 고려시대 묘와 초기청자요지에서 출토되었다. 이 중에는 중국 당대 玉璧底盞과 유사하게 만든 것이 있고, 청자 역시 종래의 토기와 다른 기술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진 점에서, 한반도의 청자발생에 있어 중국의 기물을 모방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없는 듯하다. 이런 이유로 해무리굽완은 한반도 청자발생의 표지적인 유물로 되었고, 조형으로 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와 나아가 한반도 청자발생의 경위와 시기에 밀접하게 결부하여 연구되어지고 있다.

청자 해무리굽완은 한국 도자사의 청자 발생설의 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해무리굽완의 발생시기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절대연대를 가진 결정적인 단서가 없는 것에서 9세기 전반¹⁾, 9세기 후반²⁾, 9세기 후반-10세기 전반³⁾, 10세기 전반⁴⁾, 10세기 중엽⁵⁾, 10세기 후반⁶⁾ 등의 다양한 가설이 제시되고 있다⁷⁾. 각 설을 결정짓는 주요한 근

1) 吉岡完祐, 「越州窯系青磁の形態分類から見た高麗青磁との比較」 『ナ郎川一』 福岡市早良平野 石丸 古川遺跡, 住宅 都市整備公団, 1982, p. 113.
金載悅, 「高麗白磁의 發生과 編年」 『考古美術』 177, 韓國美術史學會, 1998, p. 11, 14.
崔 健, 「韓國初期青磁の分類と變遷-窯址出土を中心に」 『東洋陶磁』 22, 1992-1994, 東洋陶磁學會, pp. 41-64.

——, 「高麗青磁의 發生問題- 高麗青磁 언제 어떻게 만들어 졌나」 『美術史論壇』 1, 韓國美術研究所, 1995, pp. 269-294.

忠南大學校博物館, 『聖住寺』, 1998, p. 561.

朴淳發, 「唐代 玉璧底의 變遷과 韓半島 해무리굽 磁器의 出現」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의 재조명』, 용인시 용인문화원, 용인시사편찬위원회, 2001, p. 157.

湖巖美術館, 『龍仁西里高麗白磁窯 發掘調査報告書Ⅱ』, 2003, pp. 196-197.

2) 鄭良謨, 『韓國의 陶磁器』, 1991, p. 181.

海剛陶磁美術館, 『芳山大窯』, 2001, pp. 171-173.

3) 國立中央博物館, 『康津龍雲里青磁窯址發掘調査報告書』 本文編, 1997, p. 223.

李鍾玟, 「韓國의 初期青磁 研究」, 弘益大學校 大學院 美術史學科 博士學位 請求論文, 2002, pp. 128-129.

4) 이회관, 「韓國 初期青磁에 있어서 해무리굽碗 問題의 再檢討」 『제45회 전국역사학대회』, 2002, p. 346.

5) 吉良文男, 「磁器 發生問題와 日本에서의 研究의 過去와 現狀」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의 재조명』, 용인시 용인문화원, 용인시사편찬위원회, 2001, p. 95.

6) 尹龍二, 「高麗青瓷의 起源과 發展」 『韓國美術史의 現況』, 藝耕, 1992, pp. 232-236.

7) 한국 도자사에서 청자 발생과 그 시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문에 정리되어 있다.

강경숙, 「고려전기 도자의 대중 교섭」 『高麗 美術의 對外交渉』, 제 8회 전국미술사학대회, 2004, pp. 193-248.

吉良文男, 앞의 논문, 2001, pp. 85-95.

거 중 하나는 해무리굽완의 형식 분류 중 가장 이른 형식으로 둔 것을 중국 옥벽저완의 시기⁸⁾와 연관 짓는 것이다. 이와 달리 초기청자요지의 층위학적 발굴성과⁹⁾에 의해 전축요 구조와 선해무리굽층에서 출토한 선해무리굽이 해무리굽에 앞선 굽의 형태라 인식되면서 선해무리굽의 상한이 청자발생의 시기를 말하고 있는 듯하다.

기존에 해무리굽완의 형식 분류는 내저원각의 유무와 해무리굽의 크기를 중심으로 분류되어왔으며, 굽 깎는 방법의 제작기법적인 측면은 거의 의식치 않고 있는 듯 하다. 그리고 해무리굽완의 변천은 초기청자요지의 층위학적 발굴 성과를 중심으로 되었다. 즉 층위에 따른 선후관계와 공반유물에 의해 전축요에서는 선해무리굽완에서 한국식 해무리굽완으로, 토축요에서는 중국식 해무리굽완에서 한국식 해무리굽완으로 변천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그렇지만 이에 관한 개념이 명확하게 되지 않았다.

현재 해무리굽완의 상한은 한반도 청자 발생의 편년과 직결되어 있다. 이에 따른 시대구분은 신라청자 발생설, 후삼국청자 발생설, 고려청자 발생설로 크게 대별된다. 이렇게 세 시대가 맞물려 있는 것에서, 해무리굽완은 기존의 해무리굽완의 분류기준을 참고하여 새로운 각도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해무리굽완은 초기청자요지의 출토품을 위주로 편년되어서, 신라천년 수도이고, 고려초기에는 동경이었던 경주에서 출토된 해무리굽완은 청자발생 연구에 있어 좋은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해무리굽완은 아직까지 경주에서의 증거가 거의 없고¹⁰⁾ 앞으로 발굴성과에서 그 출토 예를 기대

———, 「朝鮮半島の初期的青磁」 『高麗青磁の誕生』,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2004.

李喜寬, 「韓國 青磁製作의 開始時期問題에 대한 諸說의 檢討」 『白山學報』 第70號, 白山學會, 2004, pp. 389-460.

장남원, 「고려시대 陶磁의 연구현황과 과제」 『고려시대의 고고학』, 서울경기고고학회, 2006, pp. 44-45.

崔 健, 앞의 논문, 1995, pp. 269-294.

방병선, 「羅末麗初 韓中陶磁交流」 『韓國史學報』 제23호, 2006, pp. 356-374.

8) 龜井明德, 「唐代玉璧高垆の出現と消滅時期の考察」, 『貿易陶磁研究』, 13, 日本貿易陶磁研究會, 1993, pp. 86-111에서 唐代 玉璧底는 7-8세기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9세기 전반에 성행하고 9세기 후반에 소멸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9) 三星美術文化財團 湖巖美術館, 『龍仁西里高麗白磁窯 發掘調査報告書Ⅰ』, 1987.

———, 앞의 책, 2003.

海剛陶磁美術館, 앞의 책, 2001.

10) 한반도 청자 발생시기에 대한 연구에서 경주지역이 언급되어 있는 논문은 다음과 같다.

崔 健, 「高麗青磁發生에 關한 背景的 考察」 『古文化』 31, 韓國大學博物館協會, 1987, p. 29.

姜敬淑, 「우리나라 출토 해무리굽 중국도자」 『韓國 磁器 發生에 關한 諸問題』 제 1회 東垣기념학술대회, 韓國古美術研究所, 1990, pp. 17-35.

할 수 있는 점에서, 이에 대한 형식학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있겠다.

지금까지 경주지역의 발굴조사에서는 중국에서 수입된 자기가 다수 출토되어 보고되고 있다¹¹⁾. 그에 반해 고려청자 해무리굽완은 아주 일부만이 보고되어 있는데¹²⁾ 이것은 신라 수도인 경주라는 특성에서 신라시대의 유적과 유물에 가려졌기 때문인 듯하며, 미처 자기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보고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이미 보고가 된 해무리굽완 중에서도 중국청자와의 구분이 어려워 중국청자로 보고된 예도 있다.

지난 2004년도에 경주대학교박물관이 실시한 경주 불국사 경내 성보박물관 건립예정부지(이하 불국사 경내) 발굴조사에 참여하면서 고려 전(全)시대에 걸쳐서 자기가 출토되는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¹³⁾. 불국사 경내의 자기는 고려시대에서부터 조선시대까지의 폭넓은 시기에 해당되는 것이 뒤섞여 출토되었고 또한 대부분이 도상복원이 되지 않는 편(片)의 상태로 출토되었다. 이러한 자기는 발굴조사 현장에서 선별하지 못하여 출토위치와 출토날짜별로 유물상자에 전량을 수습하였고 모두 경주대학교박물관으로 가지고 들어와 정리 보고하였다¹⁴⁾.

불국사 경내에서 출토한 자기의 총 출토량은 280.4kg이며, 완형 및 도상복원 가능한 것은 약 18kg(175점)이고 대부분이 도상복원이 되지 않는 편(片)

_____, 「한국도자사 연구의 문제와 방향」 『考古美術史論』 1, 忠北大學校考古美術史學科, 1990, pp. 155-171.

鄭良謨, 앞의 책, 1991, pp. 180-181.

尹龍二, 앞의 논문, 1991, pp. 19-24.

金英媛, 「統一新羅時代 鉛釉의 發達과 磁器의 出現」 『美術資料』 第六十二號, 國立中央博物館, 1999, pp. 1-25.

방병선, 앞의 논문, 2006, pp. 341-374.

11) 국립대구박물관, 『우리 문화속의 中國 陶磁器』, 2004, pp. 42-49, 58-60.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芬皇寺發掘調査報告書 I』 (遺物圖版), 2005, p. 139.

12) 경주지역의 발굴조사에서 보고된 예는 다음과 같다.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皇龍寺 遺蹟發掘調査報告書 I』, 1984.

국립경주박물관, 『안압지관』, 2002.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新羅王京』, 2001.

_____, 『慶州 西部洞 19番地 遺蹟』, 2003.

_____, 『慶州 天官寺址 發掘調査報告書』, 2004.

_____, 『慶州 隍城洞 石室墳 906-5番地』, 2005.

韓國文化財保護財團, 『慶州 北門路 王京遺蹟』, 2003.

13) 慶州大學校博物館, 『慶州 佛國寺 境內 聖寶博物館 建立豫定敷地 發掘調査報告書』, 2006.

14) 慶州大學校博物館, 앞의 책, 2006, pp. 205-208에서 자기의 출토상태 및 보고대상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

의 상태인 점에서 개체수를 짐작해 보기 위해 출토량이 많은 고려청자, 상감청자, 분청사기, 조선백자는 저부의 개수를 헤아려 보았다. 총 2,562점이 파악되었고 이 중에서 고려청자가 182.1kg 가량 확인되었다. 고려청자는 불국사 경내에서 출토한 전체 자기량 중에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이 유적의 중심시기가 고려시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려청자로 구분된 것 중에서 저부의 개수는 2,085점이고, 저부에서 백색 내화토 받침이 확인되는 것은 359점이다.

이 중 해무리굽완은 다른 자기편들에 비해 굽이 특징적이고 대부분이 백색 내화토 받침을 가지고 있다. 연구성과와 실물 관찰을 토대로¹⁵⁾ 전체의 유물상자에서 모두 적출(摘出)한 결과 총 60점이 확인되었다. 이 중에서 의도적으로 매납하여 안정된 상태로 출토된 것은 1점이고 나머지는 오랜 세월동안 인간 또는 환경에 의해 파괴를 당하면서 많이 변형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이와 같은 유물의 출토상태임으로 보고서에 보고된 자기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완형과 도상복원되는 것을 우선으로 한 점에서, 해무리굽완은 4점만이 보고되어 있다¹⁶⁾. 그래서 본고에서는 보고서에 소개되지 않은 해무리굽완을 모두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 해무리굽완을 직접 관찰하면서 그 변천과 제작시기에 관해 접근해 보겠다.

한국 도자사의 청자 발생설에 한 기준이 될 수 있는 해무리굽완의 연구에 있어서는 필자가 참여한 불국사 경내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해무리굽완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II장에서는 지금까지 다루어진 해무리굽완의 형식 분류에 관한 연구성과만을 살펴 해무리굽완의 형식 분류와 분류기준을 정리하여 두겠다. 이와 더불어 불국사 경내에서 출토한 해무리굽완의 기형, 굽을 깎는 방법, 유약, 번조 받침, 시문기법 등을 관찰한 것을 토대로 해무리굽완의 범주를 설정해 보겠다. 이 과정에서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는 불국사 경내 출토 해무리굽완이 비록 60점이지만 지금까지 다루어진 해무리굽완의 형식 분류를 대부분 포함할 수 있음을 밝혀둔다. 또한 기존의 해무리굽완 형식 분류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불국사 경내에서 출토된 해무리굽완을 직접 관찰한 경험을 토대로 III장에서는 해무리굽완의 분류기준 중에서 제작기법적 측면인 굽을 깎는 방법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해 둔다. 이와 더불어 굽의 크기, 유색, 태토 등도 분류기준으로 제시하여 둔다.

그런 다음에 IV장에서는 앞 장에서 살펴본 분류기준을 종합하여 형식 분류를

15) 이에 관해서는 본고의 II와 III장에서 상세히 살펴보겠다.

16) 慶州大學校博物館, 앞의 책, 2006, pp. 19-20, 213.

시도하겠다. 이 과정에서 불국사 경내 해무리굽완은 5가지의 형식으로 나누었는데 굽을 짚는 방법, 유약 등이 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V장에서는 해무리굽완의 변천을 5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그 변천에 따른 시기는 지금까지 경주의 신라시대의 도시유적 발굴성과와 불국사 경내 유적 및 출토유물을 토대로 설정한다. 즉 가장 이른 단계에 해당하는 해무리굽완이 신라토기와 공반된 예가 없는 점, 불국사 경내에서 출토된 가장 이른 시기의 중국청자가 당대 옥벽저완이 아닌 점, 불국사 경내 유적에서 매납된 해무리굽완이 장판 타날문양의 암키와를 공반한 점 등을 살펴 불국사 경내에서 출토된 해무리굽완 모두가 고려시대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겠다.

II. 해무리굽완의 범주

해무리굽완은 굽의 접지면의 폭이 넓어 굽 모양이 마치 해무리와 유사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굽이 해무리 모양인 것은 고려초기 청자 완의 기형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 중에는 중국 당대의 후반에서 오대에 걸쳐 성행한 청 백자의 옥벽저완과 유사한 것이 있다. 특히 당대의 옥벽저는 龜井明德의 연구에서¹⁷⁾ ‘고대(굽) 폭의 합계는 좁아도 저경의 40% 이상’이라 정의하고 있다. 즉 실제의 첩부폭(굽 접지면의 너비)은 저경의 20% 이상인 것을 옥벽저로 본다. 그리고 중국의 옥벽저완이 당대에 세계 전역으로 수출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여 두고 있다.

이렇게 중국의 당대 옥벽저완이 일정시기에 세계 전역으로 수출된 것이 일본, 한국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무리굽은 중국에서는 玉壁底, 일본에서는 蛇の目高台, 한국에서는 해무리굽으로 명명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내용의 전개상 중국 당~오대의 것은 옥벽저로, 한반도에서 제작된 것은 해무리굽으로 부르고자 한다.

해무리굽완은 위에서 언급한 옥벽저의 정의에 포함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이것을 해무리굽완의 변천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¹⁸⁾. 그래서 해무리굽완의 형식 분류와 그에 따른 명칭이 연구자마다 제각각으로 사용되고 있는 듯 하다. 이에 관해서는 표 1에 청자 발생시기와 함께 정리하여 두었다. 이외에 다른 명칭을 사용한 보고서도 포함시켜 두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연구자는 해무리굽완의 형식 분류 중 가장 이른 형식(이하 고식)과 청자 발생시기를 연관시켜 두었다. 이것은 해무리굽완의 형식 분류 중 가장 이른 형식이 청자 발생과 직결되고 있다는 것이다¹⁹⁾. 또한 가장 이른 형식 이후의 형식 분류에 해당되는 것도 차이가 있고 가장 늦은 형식(이하 신식)으로 둔 것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 이것은 가장 이른 형식에 의한 청자발생 시기가 9세기 전반설부터 10세기 후반설까지로 있기 때문에 이후의 형식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듯하다.

17) 龜井明德, 앞의 논문, 1993, p. 86.

18) 이희관, 앞의 논문, 2002, pp. 343-344에서는 해무리굽의 원류로 이해되었던 중국의 옥벽저를 부정하고, 중국 五代의 玉環底로 인식하여 한반도의 청자발생의 원류라 판단하고 있다. 옥환저는 ‘굽 폭을 기준으로 보면 옥벽저와 輪形底(圈足)의 중간에 속하는 것들이 많은데, 중국의 학자들은 이것을 양자와 구분하여 옥환저라 부르며, 옥벽저에 뒤이어 만당 말기~오대 전기에 월주요에서 유행한 특징적인 굽 형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라 한다.

19) ‘I. 머리말’에 청자 발생설이 언급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표 1을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표 1에서는 출처를 생략하고자 한다. 단 I 장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적기해 둔다.

표 1. 한반도 청자 발생시기와 청자 해무리굽완의 형식 분류

청자 발생시기	해무리굽완의 상한/ 하한	연구자/ 주 연구대상	해무리굽완 형식 분류	분류기준
9세기 전반, 또는 중엽	9세기 전반/	金載悅/ 용인 서리요	고식청자류	-
	9세기 전반/	湖巖美術館/ 용인 서리요	선헤무리, 해무리	출토 층위, 기벽의 기울기, 굽 접지면의 너비
	9세기 전기 또는 중엽/ 11세기 전반	崔 健/ 초기청자요지	중국식 전기(ⅠA), 후기(ⅠB), 한국식 초기(ⅡA), 전기(ⅡB), 후기(ⅡC), 말기(ⅢA), 선헤무리굽	내저원각의 유무, 굽의 크기
	-	海剛陶磁美術館 ²⁰⁾ / 강진청자요지	제Ⅰ유형: 중국식(해무리굽 l과 m형식) 제Ⅱ유형: 한국식(해무리굽 n, o, p형식)	내저원각의 유무, 굽의 크기
	9세기 전반/ 10세기 전반	朴淳發/ 성주사	중국계 해무리굽, 국산 해무리굽	내저원각의 유무
9세기 후반	9세기 후반/ 11세기	鄭良謨/ 초기청자요지	초기청자 Ⅰ, Ⅱ	내저원각의 유무, 출토층위
9세기 후반 ~ 10세기 전반	9세기 후반/ 10세기 전반	國立中央博物館/ 강진 용운리 9,10호	해무리굽 Ⅰ형식(중국형), 준해무리굽, 해무리굽 Ⅱ형식(한국형), 후기 해무리굽	내저원각의 유무, 굽의 크기
	10세기 2/4분기/ 11세기 2/4분기	李鍾玟/ 방산대요	선헤무리굽, 해무리굽, 퇴화 해무리굽	내저원각의 유무, 굽의 크기
	9세기 후반/ 10세기 말기	海剛陶磁美術館/ 방산대요	1식: 선헤무리굽계 2식: 해무리굽계	출토층위, 굽의 크기, 굽깎기
10세기 전반	10세기 전반/ (900년~909년)	李喜寬	내저곡면, 내저원각 해무리굽	내저원각의 유무
10세기 중엽 이전	10세기 중엽 이전/	吉良文男 ²¹⁾ / 원산리 2호요지	중국식 해무리굽, 준해무리굽	내저곡면, 내저면의 변조 받침의 유무
10세기 후반	10세기 후반/	尹龍二/ 용계리 요지	선헤무리굽	-
서 남해안의 초기청자시기와 유사		金邱軍 ²²⁾ / 칠곡 창평리, 대구 진인리 요지	제Ⅰ유형, 제Ⅱ유형	내저원각의 유무
-	/ 11세기 후반~ 12세기 초	國立海洋遺物展示館 ²³⁾ / /군산십이동파도해저유적	변형 해무리굽	-
-	-	國立夫餘文化財研究所/ 미륵사 ²⁴⁾	Ⅰ형, Ⅱ형, Ⅲ형	내저원각의 유무, 굽의 크기

* 굵은 글씨는 형식 분류 중 고식이다²⁵⁾.

20) 海剛陶磁美術館, 『康津의 靑磁窯址』, 1992, pp. 30-31.

21) 吉良文男, 「朝鮮半島の初期的靑磁」 『高麗靑瓷の誕生』,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2004.의 주) 3에서는 1cm 전후의 접지면 폭을 가진 굽만을 해무리굽으로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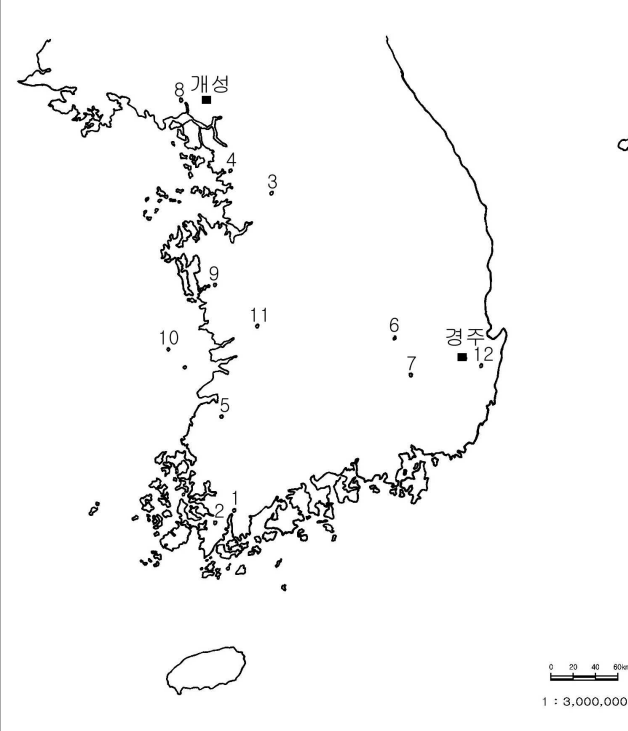
22) 김구균, 「大邱近郊의 初期靑磁窯址에 대하여」 『벽돌가마와 초기청자』, 海剛陶磁美術館, 2000, p. 38-39.

23) 國立海洋遺物展示館, 『群山十二東波島海底遺蹟』, 2005, p. 240.

24) 國立夫餘文化財研究所, 『彌勒寺』遺蹟發掘調査報告書 Ⅱ, 1996, pp. 361-363.

이와 같이 표 1에 제시된 형식 분류만 보더라도 기존의 해무리굽완의 정의가 뚜렷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표 1에 제시된 형식 분류 중 고식과 신식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핀 것과 불국사 경내에서 출토한 해무리굽완의 기형, 굽을 깎는 방법, 유약, 번조 받침, 시문기법 등을 관찰한 것을 기초로 하여 해무리굽완의 범주를 설정해 둔다. 이것은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한 불국사 경내 출토 해무리굽완이 기존의 해무리굽완을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두고, 지금까지 해무리굽완 형식 분류 기준의 한계점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본고의 해무리굽완의 범주에서 대상으로 한 유적은 표 1에 제시된 것을 토대로 하며 이들의 위치 및 유적명은 삽도 1에 명기하여 둔다. 그리고 표 2에 정리하여 둔 해무리굽완의 고식과 신식에 해당되는 명칭 및 특징은 선해무리굽을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않아 각각의 명칭을 모두 사용하는데 논지 전개의 편의상 연구자의 명칭과 일치시켜 두며 연구자는 생략한다.

대상 유적 위치도	유적명
	1. 강진 용운리 9, 10호 요지 / 강진 청자요지
	2. 해남 신태리 요지
	3. 용인서리요지
	4. 방산대요
	5. 고창 용계리 요지
	6. 칠곡 창평리 요지
	7. 대구 진인리 요지
	8. 배천 원산리 요지
	9. 성주사
	10. 군산 십이동파도 유적
	11. 미륵사
	12. 불국사 경내 성보박물관 건립예정부지(이하 불국사 경내) 유적

삽도 1. 해무리굽완의 범주로 한 대상 유적 위치도 및 유적명

25) 예외적으로 吉良文男은 내저곡면인 것 중에서도 내저면에 번조 받침이 있는 것을 없는 것에 비해 늦은 시기의 것으로 두고 있다.

표 2. 고식과 신식으로 둔 해무리굽완의 명칭과 특징

연구대상	고식/ 특징	신식/ 특징
강진 용운리 9, 10호 요지 ²⁶⁾	해무리굽 I, 준해무리굽 / 내저곡면, 굽 안바닥 편평, 황갈색의 유약, 전면에 얇게 시유, 내저면과 굽 접지면에 번조 받침, 굽지름은 6cm 내외이며 접지면 너비 1cm.	후기 해무리굽 / 내면에 음각선문, 음각당초문 시문된 초벌구이편, 녹회색의 유약, 두텁게 시유, 굽 접지면에 번조 받침, 굽지름 4cm내외, 접지면 너비 1cm 내의 것.
강진 용운리 9, 10호 요지 ²⁷⁾	해무리굽 제 1형식(중국식 해무리굽) / 내저면에 번조 받침이 없는 것, 원산리 2호 요지 출토 多輪花形皿.	-
강진청자요지 ²⁸⁾	중국식 해무리굽완 I과 m형식 / 내저곡면, 굽지름 6cm 내외, 접지면 너비 1cm 이상.	한국식 해무리굽완 n, o, p형식 / 내저원각, 굽지름은 6cm 이하, 접지면의 너비 1cm~0.5cm.
초기청자요지 ²⁹⁾	초기청자 I / 전축요의 출토층위, 내저곡면.	초기청자 II / 토축요 출토 품, 내저원각, 발색이 좋음, 음각당초문의 초벌구이편.
초기청자요지 ³⁰⁾	중국식 전기(IA) 해무리굽 / 내저곡면이고 굽 안바닥이 편평, 황갈색의 유약, 굽지름 6cm 내외, 접지면 너비 1cm 이상.	한국식 말기(III A) 해무리굽 / 내저원각, 굽지름 4cm, 접지면의 너비 0.5cm.
초기청자요지 ³¹⁾	선헤무리굽(중국식일흔저, 초기청자 I) / 전축요와 토축요의 이른 형식을 묶어둠, 내저곡면, 굽의 크기.	퇴화해무리굽 / 내저원각, 굽의 크기, 용계리 출토품과 비교.
용인서리요 ³²⁾	선헤무리 ³³⁾ / 최초의 층에서부터 출토, 내저곡면, 구연과 기벽이 곡면인 것, 황갈색의 유약.	해무리 / 선헤무리굽완 층 윗 층에서부터 출토, 회미한 내저원각, 기벽이 사선을 이루는 것.
방산대요 ³⁴⁾	선헤무리굽계 / 최초의 층에서부터 출토, 내저곡면, 굽 안바닥 편평, 굽 깎음새(1식), 황갈색의 유색, 내저면과 굽 접지면에 번조 받침.	해무리굽계 / 내저원각, 굽 안바닥 중앙부 도톰, 굽 깎음새(2식), 황녹색의 유색, 굽 접지면에 번조 받침.
고창 용계리 요지 ³⁵⁾	굽지름(평균) 5.8cm, 굽 접지면 너비 1.2cm.	굽지름 4.9cm, 접지면 너비 0.9cm.
칠곡 창평리 요지 ³⁶⁾	I 유형 / 가마구조(전축요), 내저곡면.	II 유형 / 내저원각.
대구 전인리 요지	I 유형 / 가마구조(전축요), 내저곡면.	-
배천 원산리 2호 요지 ³⁷⁾	최초의 층에서 대접 중에 내저면에 번조 받침이 있고 굽지름 6.4cm, 굽 접지면의 너비가 1.2cm 인 것 (대접 1)과 꽃접시(화형접시)가 보고되어 있음.	4차 가마터에서 해무리굽완과 유사한 ‘바리기’는 내저면에 번조 받침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음. 굽지름이 5.9cm-7.3cm 이하, 굽 접지면 너비 0.8cm-1.5cm 이하.
성주사 ³⁸⁾	중국계 해무리굽완 / 내저곡면, 굽지름이 5cm-6.3cm, 굽 접지면의 너비 0.6cm-1.4cm, 내저면에 번조 받침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음.	국산 해무리굽완 / 내저원각, 굽지름이 4.4cm 이상-6.3cm, 굽 접지면의 너비 0.6cm-1.5cm, 굽 접지면에서만 번조 받침 확인.
群山 十二東波島 海底遺蹟 ³⁹⁾	-	변형 해무리굽완 / 내저원각, 굽지름 평균 5.1cm 정도, 굽 접지면의 너비 0.8cm, 굽 접지면의 유약이 닳여 있음.
彌勒寺 ⁴⁰⁾	I 형 / 내저곡면, 내저면에 번조 받침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음.	III형(변형 해무리굽) / 접지면 폭이 0.5-0.6cm 정도로 좁은 것, 내저원각. 굽 접지면에서만 번조 받침 확인, 음각의 국당초문이 시문된 것이 확인.
불국사 경내 유적 ⁴¹⁾	내저곡면, 굽 안바닥 편평, 황갈색의 유약이 얇게 시유, 굽 접지면에만 번조 받침, 굽지름 (평균) 5.9cm, 굽 접지면의 너비(평균) 0.9cm.	내저원각, 굽 안바닥이 불록, 녹회색의 두터운 유약 시유, 굽 접지면에만 번조 받침, 굽지름 (평균) 4cm, 굽 접지면의 너비(평균) 0.6cm. 음각 국당초문완의 굽 모양이 V형식과 유사.

표 2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고식으로 둔 해무리굽완 중에서 공통 점은 내저곡면, 굽 접지면과 굽 안바닥이 수평, 유약이 얇고 황갈색에 가까운 점, 무문인 점 등이다. 차이점은 번조 받침인 백색 내화토 받침이 굽 접지면에서 확인되는 점과 굽 접지면과 내저면의 두 곳에서 확인되는 점, 유약의 전면 시유 또는 전면 시유 후 굽 접지면에 확인되지 않은 점, 동체의 측사선이 직선 또는 곡선 등이다. 이에 따른 명칭은 초기청자 I, 해무리굽 I, 준해무리굽, 선해무리굽, 중국식 전기(I A) 해무리굽, 중국계 해무리굽, 내저곡면 해무리굽이다.

신식으로 둔 해무리굽완의 공통적 특징은 내저원각, 굽 접지면이 수평, 유약이 두텁고 녹회색을 띠는 점, 번조 받침인 백색 내화토 받침이 굽 접지면에서만 확인되는 점 등이다. 차이점은 굽지름이 6cm 이하 또는 4cm 이하의 것, 굽 접지면 너비가 1cm 내외, 또는 0.5cm 내외의 것까지인 것, 무문과 내면에 음각당초문이 확인되는 점, 측사선이 직선과 곡선을 그리는 점, 전면 시유 또는 굽 접지면에 유약이 부분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이다. 이에 해당되는

26) 國立中央博物館, 앞의 책, 1997.

27) 吉良文男, 앞의 논문, 2001, p. 95.

28) 海剛陶磁美術館, 앞의 책, 1992.

29) 鄭良謨, 앞의 책, 1991, pp. 181-187.

30) 崔 健, 앞의 논문, 1992-1994, pp. 45-47.

31) 李鍾玟, 앞의 논문, 2002, pp. 116-118.

32) 湖巖美術館, 앞의 보고서, 2003, p. 58.

33) 선해무리굽완은 해무리굽층 아래의 층에서 나온 것이라는 개념에서 선해무리굽층이라고 불려지고 있으며 이 퇴적층에서 출토된 완을 선해무리완이라 불러 시간적인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34) 海剛陶磁美術館, 앞의 책, 2001.

35) 圓光大學校 馬韓 百濟文化研究所, 『高敞 雅山댐 水沒地區發掘調査報告書』, 1985, 圓光大學校博物館, 『博物館圖錄』, 1996, p. 219에서는 용계리 요지 출토 청자 해무리굽완은 유물기술과 도면, 도판에서 내저원각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다. 여기에서는 굽의 크기만을 가지고 나누어 둔다.

36) 김구균, 앞의 논문, 2000, p. 38-39에서 아래에 정리하여 둔 대구 진인리 요지도 참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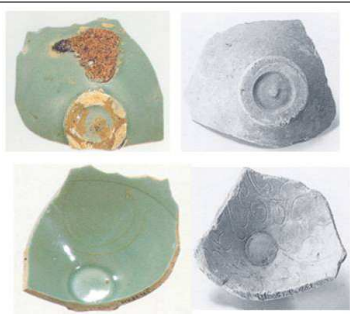
37) 김영진, 『도자기가마터 발굴보고』, 백산자료원, 2003, p. 102에서 2호 요지의 최초의 층에서 출토한 대접 1은 표 2의 그릇번호 대접1에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p. 100에서 4차가마는 2호 요지에서 가장 최후에 해당되는 층이라 보고되어 있다.

38) 忠南大學校博物館, 앞의 책, 1998, pp. 551-553의 표 40과 41. 참조.

39) 國立海洋遺物展示館, 앞의 책, 2005, p. 68에서 발췌하였다.

40) 國立夫餘文化財研究所, 앞의 책, 1996. p. 363.

41) 이에 관해서는 본고의 IV장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본다.

구분	고식	신식
강진 용운리 9호		
불국사 경내 출토		

삽도 2. 해무리굽완의 고식과 신식의 실 예

명칭은 초기청자Ⅱ, 후기 해무리굽, 한국식 말기(ⅢA) 해무리굽, 한국식 해무리굽 n, o, p형식, 퇴화 해무리굽, 내저원각 해무리굽, 국산 해무리굽이다(표 2~4. 참조).

따라서 해무리굽완의 범주는 내저곡면이면서 굽 안바닥이 편평하고 유약이 얇게 시유되어 있으며 굽지름이 6cm 내외인 것에서부터 내저원각이 있으면서 유약이 두텁게 시유되고 비색에 가까운 색을 띠며 굽지름이 4cm 내외, 굽 접지면의 너비가 0.5cm 내외인 것까지 이다. 또한 해무리굽완은 무문이 대부분이고 내면에 음각 당초문이 시문되어 있는 예가 있는 것에서, 음각 당초문은 신식의 요소로 주목하여 둔다.

이 같은 범주에 해당하는 해무리굽완은 해무리굽완을 생산한 초기청자요지만을 살펴본 결과, 수 천점이 넘게 보고되어 있다⁴²⁾(표 4. 참조).

불국사 경내에서 출토된 해무리굽완에서도 기존의 해무리굽완의 고식인 내저곡면인 것에서부터 신식인 내저원각을 가진 것까지 모두 확인되었다. 불국사 경내 출토 해무리굽완에서 이 범주에 해당하는 것은 총 60점이 확인되었다.

42) 이종민, 「靑磁窯址 發掘調査의 成果와 檢討」 『도자(陶瓷) 고고학을 향하여』, 제 29회 한국상고사학회, 2003, p. 62를 참고하고 소비지 유적인 불국사 경내에서 출토된 자기의 출토현상을 고려해 보았을 때 생산지가 소비지에 비해 공간과 시간이 한정되어 해무리굽완의 변화를 읽어내는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중 고식으로 둔 것 중에 내저면에 번조 받침이 확인되는 준해무리굽, 선해무리굽 형식은 불국사 경내의 해무리굽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것은 이 유적이 생산지가 아닌 소비지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형식이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 유적에서는 해무리굽완 중에 내저면에 번조 받침이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미륵사』의 청자 해무리굽완을 살펴보면 Ⅰ형식으로 둔 것에서부터 포개어 소성한 것이 확인되고 있어 소비지⁴³⁾에서도 내저면에 번조 받침이 있는 것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불국사 경내에서 이것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 이유에 관해서는 향후의 과제로 남겨두겠다.

이와 같이 불국사 경내에서 출토한 고려청자 해무리굽완은 비록 60점이지만 초기청자요지에서 분류된 수 천점의 해무리굽완의 특징들이 대부분 잘 나타나고 있다(표 3 4. 참조).

다음으로 위에서 살펴본 형식 분류의 기준에 관한 한계점을 간략히 언급해 두겠다. 기존의 해무리굽완의 형식 분류는 각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주된 분류기준은 내저원각의 유무와 굽의 크기임을 알 수 있다(표 1, 3. 참조). 즉 내저곡면인 것이 고식에, 내저원각인 것이 신식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만 내저원각의 유무에 의해 나누어진 해무리굽완은 일정한 굽의 크기를 읽어내기 어렵다⁴⁴⁾.

이렇듯 기존의 해무리굽완에서 분류하는 기준만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형식 분류나 편년은 제각각이다. 그래서 기존의 분류기준에 제작기법적 측면인 굽을 깎는 방법을 더하여 살펴본다면 보다 정확한 해무리굽완의 파악과 나아가 해무리굽완의 변천도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해무리굽완의 형식 분류는 외부 모양을 벗어나 제작기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43) 본고의 표 2에서 살펴본 성주사 출토 중국계 해무리굽완에는 내저면에 번조 받침이 확인되는 것이 있는데 해무리굽완의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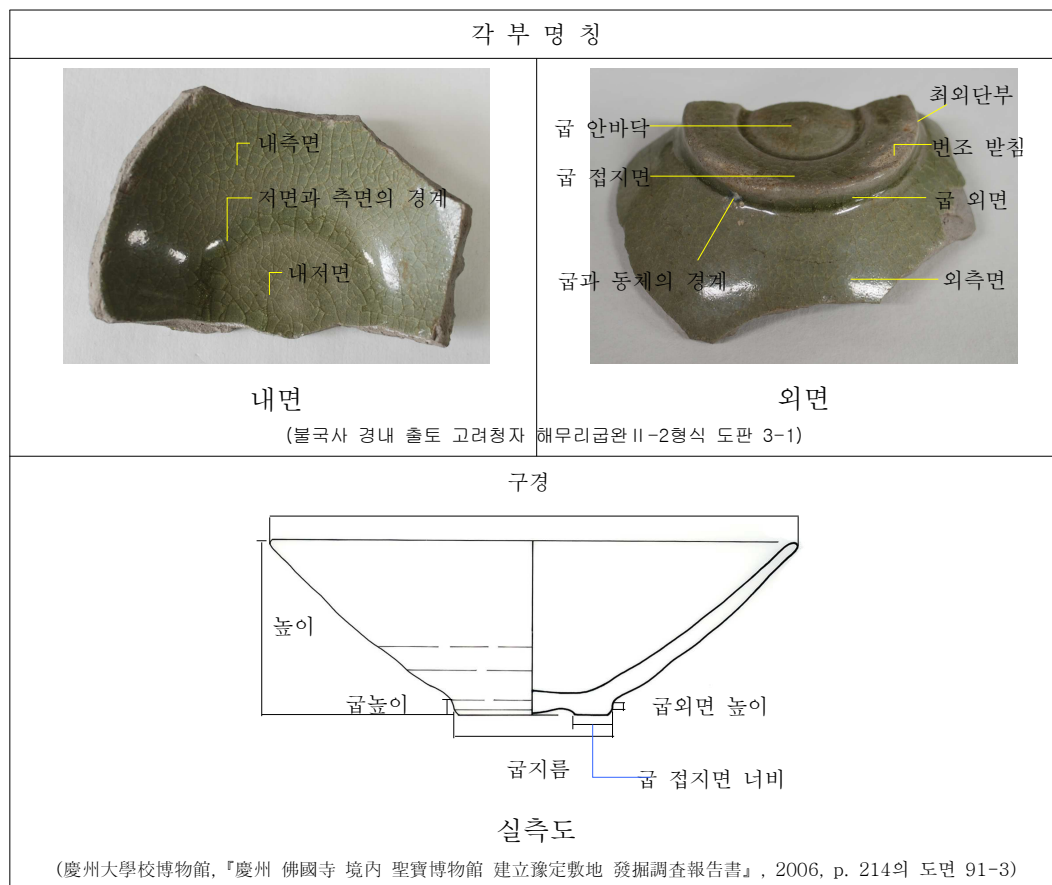
44) 卞南柱, 「韓國 瓷器의 發生과 그 系統에 관한 研究」, 木浦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碩士學位論文, 2002, p. 2, 曹銀精, 「韓半島 南西部 地域 土築窯 研究」, 弘益大學校 大學院 美術史學科 碩士學位 請求論文, 2003, p. 68에도 이와 유사한 견해가 있다.

III. 불국사 경내 출토 고려청자 해무리굽완의 분류기준

여기에서는 앞 장에서 언급한 해무리굽완의 범주에 대부분이 포함되는 불국사 경내에서 출토한 고려청자 해무리굽완 60점을 대상으로, 형식 분류를 행하기 위한 분류기준을 서술하고자 한다. 특히 분류기준에서는 불국사 경내에서 출토한 해무리굽완을 실견하여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기존의 해무리굽완의 분류기준인 내저원각의 유무와 굽의 크기와 더불어 굽을 깎는 방법에 주목하여 두었다. 이에 앞서 해무리굽완의 형식 분류에서 필요한 해무리굽완의 각부명칭을 우선 언급해 둔다.

1. 해무리굽완의 각부명칭

후술하는 해무리굽완의 속성 및 크기측정을 하기 위해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주축으로 해무리굽완의 부분 명칭에 관해서 정리하여 두겠다(삽도 3).



삽도 3. 해무리굽완의 각부명칭

보통 완은 저부, 동체, 구연부로 나누는데 보다 뚜렷한 표현으로 저부는 굽과 내저면, 동체는 외측면과 내측면, 구연은 기물의 최대 높이에 위치하고 최대 구경을 가진 가장자리이다.

굽은 굽과 동체의 경계, 굽 외면, 굽 접지면, 굽 내면, 굽 안바닥으로 구분한다. 이 중 굽 접지면은 바닥에 닿이는 면인데 굽 접지면의 최외단부가 깎여 바닥에 닿지 않는 것이 있다. 즉 바닥에 닿지 않은 부분도 굽 접지면에 포함시켜 둔다. 그리고 실측도의 단면형태에서는 굽 접지면의 최외단부를 깎은 형태와 최외단부를 깎지 않았지만 둥근 형태가 있는데 후자는 전자와 같은 단면 형태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변조 받침은 굽 접지면, 내저면의 각각에서 또는 동시에 확인되는 것이다. 이것은 갑발에 넣어 변조한 후 갑발에서 잘 떼어내기 위한 것이다. 입자가 고운 것과 모래 알갱이가 섞인 것이 있고 그 두께가 얇은 것과 두꺼운 것이 있으며 그 개수도 3개, 4개, 5개 이상으로 차이가 있다. 대부분 백색에 가까운 색조를 띠고 있어 모두 백색 내화토 받침이라 부른다.

내저면은 내면의 가장 깊은 곳으로 내측면과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는 것은 굽 외면의 경계까지이고, 내저원각에 의해 내측면과의 경계가 뚜렷한 것은 내저원각까지이다.

내저원각은 내저면과 측면의 경계부분에 유약이 질게 확인되고 있는 부분으로, 대부분이 얇은 요철로써 표현되어 있고 간혹 음각선도 있다. 본고에서는 굽을 깎는 방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아두었다.

그리고 해무리굽완의 크기측정은 측점(測點)에 따라 치수가 다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한다.

구경과 굽지름은 외면까지이고 굽 접지면의 너비는 최외단부까지로 바닥에 닿지 않은 부분도 포함된다. 내저원각의 지름은 유약이 가장 질게 나타나는 지점을 측정한다. 굽 높이는 바닥에 닿이는 면에서 굽과 동체와의 경계까지의 직경높이이다. 유약이 두텁게 남아 있어 굽과 동체와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것은 유색이 가장 짙은 부분을 측정한다. 깨어진 유물의 단면에서 관찰되는 동체로 꺾이는 지점도 참고한다.

2. 분류기준

해무리굽완은 말 그대로 굽이 해무리 모양인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래서 해무리굽의 모양이 무엇에 의해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실물을 관찰한 것에 의해 굽 모양은 굽을 깎는 방법에 따라 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굽 깎는 방법의 표현이 어디에 가장 잘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작과정에서의 굽깎기를 통해 살펴보겠다.

청자의 제작과정에서 굽깎기는 성형 후 반건조의 상태에서 행해진다. 이러한 굽깎기에 대해서는 중국 明末의 자기생산기술이 宋應星에 의해 집필된 1637년(崇禎10)년 간의 『天工開物』에서 「건조 후 물을 발라 다시 물레 위에서 몸체를 매끈하게 깎아 정리한 다음 둥근 테두리를 만든다(칼을 쓸 때는 반드시 고정시켜야 하며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구워 냈을 때 작은 흠집이 생긴다)」⁴⁵⁾라 간단히 언급되어 있고, 『窯業』에서는⁴⁶⁾ 「성형 후에 응달에서 거의 건조시킨 다음에 다시 물레 위에 도치시켜 놓고, 저부 안이 얇은 小 板의 칼에 의해서 깎여 高台가 만들어지고, 기면 전체가 정형된다. 이때의 물레 회전방향은 오른쪽으로 나타나며, 중국과는 반대로 있고, 조선과는 같다. 완은 전체적으로 두꺼운 편이고, 또한 도기의 제작과 유사한 것이 많다」라 되어 있다.

여기에서 물레 위에 도치시켜 놓고 굽을 깎는 것이 공통이고 현재 물레를 이용하여 자기를 만드는 도예가들도 같은 방법으로 굽을 깎고 있어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동체의 정면을 굽깎기 전에 하느냐 굽을 깎은 후에 하느냐의 순서가 다른 것이 인지된다. 여기에서는 굽을 깎을 때 몸체의 정면과 떼어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에 주목하여 둔다. 이 과정에서 굽 외면의 돌대의 유무와 굽과 동체의 경계부분이 뚜렷하게 나타나는지 아닌지를 생각할 수 있다.

이를 참고하여 불국사 경내 출토 해무리굽완의 굽깎기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굽 안바닥에는 시계방향으로 깎인 흔적은 대부분 확인되고 굽 안바닥의 모양이 다르다. 그리고 굽과 동체의 경계 및 굽 외면의 높이와 돌대의 유무에서도 굽깎기의 차이가 있다. 굽 외면에 돌대가 뚜렷하게 남아 있는 것에는 동체에서도 물레 회전에 의한 요철이 남아 있어 얇은 굴곡을 이루는 것이 주로 확인된다. 이와 더불어 굽지름이 좁은 것(4-5cm 내외)에는 내저면에서 원각이 예외 없이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굽을 깎는 방법은 굽 안바닥, 굽과 동체의 경계, 굽 외면과 굽 접지면, 내저면에 가장 잘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중심으로 하여 불국사 출토 해무리굽완을 분류하는데 기준이 될 속성을 서술하고자 한다.

45) 宋應星, 崔娃 註譯, 『天工開物』, 傳統文化社, 1997, pp. 167-168.

46) 永原慶二 山口啓二, 『窯業』講座 日本技術の社會史 第四卷, 日本評論社, 1984, p. 164에서 발췌하였다.

1) 굽 안바닥

굽 안바닥에서는 굽을 깎는 방법에 의해 3가지의 모양이 나타난다.

- 전면 편평(㉠): 굽 안바닥이 수평을 이루는 것으로 굽 접지면과 수직의 단이 지고 얇게 깎여 있다. 굽 안바닥에는 횡침선이 확인되고 매끄러운 편이다. 굽 내면의 경계에서는 유약이 얇게 시유되어 있어 그 경계가 뚜렷이 확인된다.
- 중앙부가 뽕족(㉡): 굽 안바닥은 굽 내면쪽이 깊게 깎이고 굽 내면 경계에서 중앙부까지 직사선을 이루어 중앙부가 뽕족하게 튀어나와 보이는 것으로 횡침선이 거의 확인되지 않으며 매끄럽다. 굽 내면이 깊게 깎였고 유약이 두텁게 남아 있어 둔각을 이루는 것이 많으며 굽 접지면과 굽 안바닥이 단(段)이 거의 없는 것도 있다.
- 중앙부가 볼록(㉢): 굽 안바닥은 굽 내면이 깊게 깎이고 굽 내면 경계에서 중앙부까지 호선을 이루다 중앙에서 편평해진다.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는 나선형의 깎은 흔적이 확인되며 얇은 요철이 있다. 굽 내면의 경계는 둔각을 이루며 유약이 두텁게 남아 있는 것과 유약이 확인되지 않고 태토가 노출된 것이 있다.

2) 굽과 동체의 경계

굽과 동체의 경계는 굽을 깎는 방법에 의해 3가지로 나뉜다.

- 뚜렷한 경계(i): 굽의 외면에 굽칼⁴⁷⁾을 평행하게 세워 깎으면서 동시에 굽과 동체의 경계가 뚜렷이 되는 것이다. 굽의 외면은 수직선에 가깝다.
- 뚜렷하지 않은 경계(ii): 굽 외면이 수직선이 아닌 사선으로 동체와 둔각을 이루고 굽이 있으나 동체와의 경계가 i 과 같이 뚜렷하지 않은 것이다. 굽 외면 높이가 i 에 비해 낮다.
- 경계가 거의 없는 것(iii): 굽 접지면에서 곧바로 동체로 연결되는 것에 가까운 것으로 굽 외면과 굽과 동체의 경계가 거의 없이 밋밋한 것이다.

3) 굽 접지면

굽 접지면의 기울기에 의해 수평인 것(1)과 내경하는 것(2)이 있다. 또한 접지면에 깎인 흔적이 남아 있는 얇은 것(A)과 최외단부를 깎은 흔적이 각이 지게 확인되는 것(B)이 있다. B는 A의 최외단부가 둥근 것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서의 B는 실측도에서 굽 접지면에 3개의 선이 확

47) 발굴조사에 의해 도구가 확인된 예는 없다. 단지 설명의 편의상 굽을 깎는 도구를 칭하는 개념으로 쓰겠다.

인되는 것이다⁴⁸⁾.

4) 굽 외면

굽 외면에서 횡방향의 돌대가 없는 것(-)과 있는 것(g)이 있다. 돌대는 굽 외면을 매끈하게 처리한 것이 아니라 한 번 이상 깎은 흔적이 뚜렷하게 돌대로 나타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 특징은 분청사기⁴⁹⁾에서 주로 확인된다.

5) 내저면

원각이 확인되지 않는 곡면인 것(o)과 원각이 음각선, 요철로 확인되는 것(o'')이 있다. 내저면이 오목한 것에는 내저면과 내측면으로 연결되는 지점이 희미한 각을 이뤄 그 곳에 유약이 두텁게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곡면인 것과 뚜렷한 원각과는 차이가 있어 본고에서는 ‘희미한 원각(o')’이라 표현하며 실측도에서는 점선으로 표현한다. 원각이 확인되는 o''의 내저면은 오목한 것과 편평한 것, 편평하면서 도드라진 것이 있다. 이것은 굽을 깎는 방법 중 하나에 포함시켜 두었다.

6) 태토⁵⁰⁾

세사립의 크기와 함유량, 기공이 확인되는 정도에 따라 정선된 태토와 거친 태토가 확인된다. 여기에서의 태토는 단면에서 확인되는 색조인 적갈색(적), 밝은 회색(회백), 회색(회)으로 구분한다.

48) 忠南大學校博物館, 앞의 책, 2006, p. 547에서 굽깎음 상태를 a, b, c式으로 구분하고 있다. a式은 접지면이 편평하게 한꺼번에 깎인 것이고, b式은 접지면의 외부 2/3지점을 한 번 더 깎아내어 이 부분에 깎인 선이 관찰되는 것이며, c式은 접지면의 최외단부만을 한 번 더 깎아낸 것이다. 본고에서는 a式과 c式이 주로 확인되고 있는데 b式은 접지면을 한 번 이상 깎은 흔적이 관찰되는 점에서 c式에 포함시켰다.

49) 慶州大學校博物館, 『浦項 芝谷洞 遺蹟』, 2003, p. 203에 「굽 외면은 대나무의 마디와 같은 모양을 나타내며, 굽 안바닥은 나선형의 모양으로 물레를 돌리면서 깎은 흔적이 확인되는 것」을 분청사기에 나타나는 죽절굽의 특징으로 보았다.

50) 태토의 질과 색, 유약, 시유상태 등으로 초벌구이의 유무, 비색의 시작, 질적 분화 등의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요소이다. 이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정양모, 앞의 책, 1991, pp. 183-187.

崔 健, 「靑磁窯址의 系譜와 展開」 『미술사연구』 제12호, 미술사연구회, 1998, pp. 5-9.

이종민, 「高麗靑磁 釉色의 時代的 變遷」 『고려의 색, 청자의 빛』 海剛陶磁美術館, 1999, pp. 45-51.

——, 「11-12세기 粗質靑磁의 계통과 편년」 『미술사학』 18,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04, pp. 149-174.

李熹寬, 「高麗 翡色靑磁의 出現과 초벌구이(素燒)」 『對外交渉으로 본 高麗靑磁』, 강진청자료박물관, 2003, pp. 16-42.

曹銀精, 앞의 논문, 2003, pp. 59-61, 63.

- 적갈색: 태토에는 육안으로 확인되는 세사립이 없거나 미량 포함되어 있고 기공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정선되고 치밀한 것에서 확인된다.
- 밝은 회색: 정선된 태토에서 주로 확인되는데 작은 기공이 다량 있어 치밀하지 않는 것도 있다.
- 회색: 태토에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모래 알갱이가 다량 포함되어 있는 것에서 주로 확인된다. 또한 도기의 단면에서 주로 관찰되는 속심이 확인되는 예도 포함된다.

7) 유색

청자의 표면에 나타나는 색으로 유약과 태토, 소성온도, 요의 구조, 제작지, 도공의 의도 등에 의해 좌우된다. 여기에서는 크게 갈색계(갈) 황갈색계(황) 녹회색계(녹)으로 구분한다.

8) 접지면 시유 상태

전면에 시유되어 있는 것(c)과 굽의 접지면에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것(c'), 굽 안바닥과 접지면에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것(c'')이 있다.

9) 굽의 크기

해무리굽의 모양이 중국 당대 옥벽저와 유사한 점에서 굽의 크기가 형식 분류의 주속성으로 되어졌다. 일반적으로 한국식 해무리굽은 굽지름과 접지면의 너비가 넓은 것에서 좁은 것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고에서도 굽을 깎는 방법에 의해 형식 분류한 결과, 굽의 크기도 크게 구분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표 3. 참조). 그러나 굽의 크기는 기계가 아닌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차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굽의 크기는 굽을 깎는 방법과 내저원각의 유무보다 부수적인 기준으로 둔다.

IV. 불국사 경내 출토 고려청자 해무리굽완의 형식 분류

불국사 경내에서 출토한 해무리굽완 총 60점은 위에서 살펴본 속성인 굽 안바닥, 굽과 동체의 경계, 접지면 최외단부, 내저면에서 관찰되는 특징을 중심으로 5형식(I~V)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굽 외면에서 확인되는 돌대의 유무, 태토색, 유색, 접지면의 시유상태 등을 첨가하여 구분하였다. 이 중 II, III형식은 굽 접지면의 기울기에 의해 수평인 것과 내경하는 것으로 다시 구분된다(표 3. 참조).

여기에서는 불국사 경내에서 출토한 고려청자 해무리굽완 중에서 각 형식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실 예를 통해 형식별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 장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것들은 속성표를 통해 제시하여 둔다.

1. I 형식(도면 1, 도판 1, 속성표 1)

I 형식은 굽 안바닥이 얇고 편평하고 굽과 동체의 경계가 뚜렷한 것이다. 굽 안바닥에서는 횡방향의 침선이 확인되지만 매끈하다. 모두 내저곡면이다.

정선된 태토로 적갈색 또는 회백색을 띤다. 유색은 갈색 또는 황갈색계로 전면에 시유되어 있는데 유약이 태토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얇게 시유되어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60점 중에서 7점으로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① 동체 하단부의 일부와 굽의 1/3 정도가 남아 있는 것이다. 굽 안바닥과 굽 접지면이 편평하다. 굽과 동체의 경계는 경계가 있는 ii와 같은 특징을 가진다. 굽 외면은 둥근 모양에 가까우며 돌대는 없다. 굽 접지면의 최외단부는 깎지 않았다. 내저곡면이며 전면은 물레에 의한 요철(凹凸) 없이 매끄럽다. 정선된 태토로 기포 없이 치밀하며 적회색을 띤다. 유약은 황갈색을 나타내며 전면에 얇게 시유되어 있는데 동체와 굽 접지면의 유약이 부분적으로 떨어져나가 확인되지 않는다. 빙열이 있다. 굽 접지면에는 3개의 백색 내화토 받침이 확인되는데 4개 이상으로 추정된다(도면 1-1, 도판 1-1).

굽지름 6.2cm 굽 접지면 너비 1.1cm 굽높이 0.4cm

② 동체 하단부의 일부와 굽의 1/2 정도가 남아 있는 것이다. 굽 안바닥은 편평하다. 굽과 동체의 경계는 ii에 가깝다. 굽 외면에는 돌대가 없다. 굽 접지면에서 최외단부로 약 2/3 지점에는 한 번 더 깎인 것이 각으로 확인된다. 내저곡면이며 전면은 물레에 의한 요철(凹凸) 없이 매끄럽다. 정선된 태토로 기포 없이 치밀하며 옅은 갈색을 띤다. 유약은 갈색을 나타내며 전면에 얇게 시유되어 있는데 굽 접지면에는 유약이 부분적으로 떨어져나가 확인되지 않는다. 빙열이 없다. 굽 접지면에는 2개의 백색 내화토 받침 흔적이 확인되는데 3개로 추정된다(도면 1-2, 도판 1-2).

굽지름 6cm 굽 접지면 너비 1.3cm 굽높이 0.7cm

③ 동체 하단부의 일부와 굽의 1/2 정도가 남아 있는 것이다. 굽 안바닥과 굽 접지면은 편평하며 굽 안바닥에 시계방향으로 깎은 흔적이 확인된다. 굽과 동체의 경계는 i 에 가깝다. 굽 외면에는 돌대가 없다. 굽 접지면의 최외단부는 깎지 않았다. 내저곡면이며 전면은 물레에 의한 요철(凹凸) 없이 매끄럽다. 정선된 태토로 작은 기포가 미량 확인되며 밝은 갈색을 띤다. 유약은 갈색을 나타내며 전면에 얇게 시유되어 있는데 굽 접지면의 번조 받침 주위에 유약이 일부 확인되지 않는다. 빙열이 없다. 굽 접지면에는 3개의 백색 내화토 받침 흔적이 확인되는데 4개 이상으로 추정된다(도면 1-3, 도판 1-3).

굽지름 6.4cm 굽 접지면 너비 0.7cm 굽높이 0.4cm

④ 동체 하단부의 일부와 굽의 1/2 정도가 남아 있는 것이다. 굽 안바닥과 굽 접지면은 편평하며 굽 안바닥에 시계방향으로 깎은 흔적이 확인된다. 굽과 굽 안바닥으로 꺾이는 부분은 위에서 소개된 것과 달리 부드럽게 연결된다. 굽과 동체의 경계는 i 에 가깝다. 굽 외면에는 돌대가 없다. 굽 접지면의 최외단부에는 깎은 흔적이 각으로 확인된다. 내저곡면이며 전면은 물레에 의한 요철(凹凸) 없이 매끄럽다. 정선된 태토로 작은 기포가 미량 확인되며 밝은 회색을 띤다. 유약은 담황회색을 나타내며 전면에 얇게 시유되어 있는데 굽 접지면의 번조 받침 주위에 유약이 일부 확인되지 않는다. 빙열이 있다. 굽 접지면에는 3개의 백색 내화토 받침 흔적이 확인되는데 4개로 추정된다(도면 1-5, 도판 1-5). 굽지름 6cm 굽 접지면 너비 0.8cm 굽높이 0.4cm

이와 더불어 속성표 1에 제시된 예를 통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알 수 있다.

<공통점>

- 굽 안바닥이 얇고 편평하다.
- 굽과 동체의 경계가 뚜렷하다.
- 굽 외면에 돌대가 없다.
- 내저곡면이다.
- 정선된 태토이다.
- 유약이 얇은 것으로 단면에서 보면 태토와 유약이 거의 구분되지 않고 또한 깊게 깎인 부분에도 두텁게 남아 있지 않다.
- 백색 내화토 받침이 굽 접지면에서 확인된다.

<차이점>

- 굽 안바닥이 얇은 것은 굽의 접지면보다 1mm 정도의 높이 차가 있는 것이

대부분으로 굽과 굽 안바닥으로의 꺾임이 직각에 가깝다. 그런데 그 꺾임이 없이 부드럽게 연결되고 있는 것이 1점 확인된다.

- 굽 안바닥이 편평한 것에서는 대체로 매끈한데 얇은 요철이 확인되는 것도 있다.
- 굽의 접지면 최외단부는 깎이지 않은 것이 3점이고 나머지에서는 깎인 흔적이 각으로 확인된다.
- 굽과 동체의 경계에서 i 이 대부분 확인되는데 ii가 확인되는 것이 2점 있다.
- 정선된 태토로 색조는 적갈색계가 4점이고 나머지 3점은 밝은 회색을 띤다.
- 유약은 대체로 전면에 시유되어 있는데 굽 접지면에는 일부 확인되지 않는 것도 있다.
- 빙열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
- 굽지름 6cm 이상, 굽 접지면의 너비 0.7-1.3cm에 해당되는 것이 4점이고, 3점은 굽지름 5.5-6cm 이하, 굽 접지면의 너비 0.8cm 정도의 것으로 일정하지 않다.

2. II형식(도면 2~3, 도판 2~4, 속성표 2)

II형식은 굽 안바닥의 중심부가 뽕족하게 솟아올랐고 매끈한 것이다. 내저곡면과 내저면의 회미한 원각, 내저원각이 확인된다. 굽 안바닥의 중심부에서는 횡방향의 침선이나 요철이 거의 확인되지 않고 굽 접지면 주위에서 간혹 확인된다. 굽과 동체의 경계가 뚜렷하고 굽 접지면의 최외단부에서는 깎은 흔적이 관찰되지 않는다. 정선된 태토로 대부분 밝은 회색을 띤다. 유색은 황갈색계와 녹회색계로 전면에 시유되어 있는데 I형식만큼 유약이 얇게 시유된 것도 있으며 부분적으로 두텁게 시유된 것도 있다. 빙열은 대부분 확인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총 60점 중에 19점이다.

이것은 다시 접지면의 기울기에 의해 수평인 것(II-1)과 내경하는 것(II-2)으로 구분된다. II-1에는 내저면과 내측면의 경계에 회미한 원각이 확인되고 II-2에서는 뚜렷한 내저원각이 확인된 예, 빙열이 없는 예가 있다. II-1은 총 19점 중에 7점이고 12점은 II-2에 해당된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1) II-1형식

① 동체의 일부와 굽의 2/3 정도가 남아 있는 것이다. 굽 안바닥이 중심부가 뽕족하고 굽 접지면이 편평하다. 굽과 동체의 경계는 i의 특징을 가진다. 굽 외면에 돌대는 없다. 굽 접지면의 최외단부는 깎지 않았다. 내저곡면이며

전면은 물레에 의한 요철(凹凸) 없이 매끄럽다. 극히 일부 사립이 확인되나 전체적으로 정선된 태토이며 기포 없이 치밀하며 밝은 회색을 띤다. 유약은 황녹색을 나타내며 전면에 I 형식보다는 두텁게 시유되어 있는데 굽 접지면의 일부는 확인되지 않고 굽의 경계에는 더 두텁게 유약이 남아 있다. 빙열이 있다. 굽 접지면에는 2개의 백색 내화토 받침이 확인되는데 3개로 추정된다(도면 2-1, 도판 2-1). 굽지름 6.2cm 굽 접지면 너비 1.1cm 굽높이 0.4cm

② 동체의 일부와 굽의 1/4 정도가 남아 있는 것이다. 굽 접지면이 편평하다. 굽과 동체의 경계는 굽 외면을 직선으로 깎으면서 동시에 만들어진 i와 같은 특징을 가진다. 굽 외면에 돌대가 없다. 굽 접지면의 최외단부는 깎지 않았다. 굽 안바닥이 극히 일부 남아 있지만 내저원각이 있고 굽이 단정하게 깎인 점에서 II 형식으로 구분되었다. 굽 접지면과 굽 안바닥은 단(段)이 없이 연결되나 그 경계는 뚜렷하다. 내저면에 희미한 원각이 확인되며 전면은 물레에 의한 요철(凹凸) 없이 매끄럽다. 정선된 태토이며 작은 기포가 촘촘히 확인되고 밝은 회색을 띤다. 유약은 녹회색을 나타내며 전면에 고르게 시유되어 있는데 I 형식보다는 두텁고 굽의 경계와 내저원각에는 더 두텁게 유약이 남아 있다. 빙열이 있다. 굽 접지면에는 2개의 백색 내화토 받침이 확인되는데 3개 이상으로 추정된다(도면 2-6, 도판 2-6).

굽지름 6.6cm 굽 접지면 너비 1.1cm 굽높이 0.5cm

2) II-2형식

① 동체의 일부와 굽의 1/2 정도가 남아 있는 것이다. 굽 안바닥이 중심부가 뽕족하고 굽 접지면이 내경한다. 굽과 동체의 경계는 굽 외면을 직선으로 깎으면서 동시에 만들어진 i와 같은 특징을 가진다. 굽 외면에 돌대는 없다. 굽 접지면의 최외단부는 깎은 흔적이 각으로 확인되지 않고 둥글게 표현되어 있다. 내저면에는 희미한 원각이 있으며 전면은 물레에 의한 요철(凹凸) 없이 매끄럽다. 정선된 태토로 작은 기공이 다량 확인되며 밝은 회색을 띤다. 유약은 녹회색을 나타내며 전면에 고르고 I 형식보다는 두텁게 시유되어 있고 굽의 경계와 내저면에서 내측면으로 연결되는 부분에는 더 두텁게 유약이 남아 있다. 빙열이 있다. 굽 접지면에는 2개의 백색 내화토 받침이 확인되는데 3개로 추정된다(도면 3-1, 도판 3-1).

굽지름 6.1cm 굽 접지면 너비 1.3cm 굽높이 0.6cm

② 동체의 일부와 굽의 1/2 정도가 남아 있는 것이다. 굽 안바닥의 중심부가 매우 얇게 올라 뽕족하게 나타나지만 도면상으로는 편평한 것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굽 접지면이 내경한다. 굽과 동체의 경계는 ii에 가까운 특징

을 가진다. 굽 외면에 돌대가 있다. 굽 접지면의 최외단부는 깎은 흔적이 각으로 확인되지 않고 약간 둥글게 표현되어 있다. 내저곡면이며 전면은 물레에 의한 요철(凹凸) 없이 매끄럽다. 정선된 태토이며 밝은 회색을 띤다. 유약은 밝은 황회색을 나타내며 전면에 고르고 I 형식보다 두텁게 시유되어 있고 굽의 경계에는 더 두텁게 유약이 남아 있다. 굽 접지면에는 일부 유약이 확인되지 않는다. 빙열이 없다. 굽 접지면에는 2개의 백색 내화토 받침이 확인되는데 3개로 추정된다(도면 3-9, 도판 4-3).

굽지름 6.4cm 굽 접지면 너비 1.3cm 굽높이 0.4cm

③ 동체의 일부와 굽이 모두 남아 있는 것이다. 굽 안바닥은 중심부가 뽕족하고 굽 접지면이 내경한다. 굽과 동체의 경계는 i의 특징을 가진다. 굽 외면에 돌대가 있다. 굽 접지면의 최외단부는 깎은 흔적이 각으로 확인되지 않고 약간 둥글게 표현되어 있다. 내저원각이 있고 저면은 편평한 편이며 전면은 물레에 의한 요철(凹凸) 없이 매끄럽다. 정선된 태토이며 밝은 회색을 띤다. 유약은 황갈색을 나타내며 전면에 얇게 시유되어 있고 굽의 경계에는 두텁게 유약이 남아 있다. 굽 접지면에는 일부 유약이 확인되지 않는다. 빙열이 없다. 굽 접지면에는 3개의 백색 내화토 받침이 확인된다(도면 3-12, 도판 4-6).

굽지름 6cm 굽 접지면 너비 1cm 굽높이 0.7cm

이와 더불어 속성표 2에 제시된 예를 통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알 수 있다.

<공통점>

- 굽 안바닥의 중심부가 뽕족하게 솟아올랐고 매끈하다.
- 굽과 동체의 경계가 뚜렷하게 있다.
- 굽 접지면의 최외단부에 깎은 흔적이 없다.
- 굽 외면에 돌대가 없다.
- 정선된 태토로 대부분 밝은 회색을 띤다.
- 유약은 전면에 시유되어 있다.
- 백색 내화토 받침이 굽 접지면에서 확인된다.
- 굽지름 6cm 이상, 굽 접지면의 너비 1.1cm-1.5cm 내외로 일정한 굽의 크기를 가진다.

<차이점>

- 굽 안바닥이 일부 남아 있는 것에서 중심부가 뽕족한지 편평한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것이 있다.
- 굽 안바닥과 굽의 접지면의 높이차가 거의 없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 있다.

- 대부분이 내저곡면이고 일부 희미한 원각과 뚜렷한 원각이 나타난다.
- 태토 중에서 적갈색을 띠는 것이 1점 있다.
- 유색은 I 형식에서 확인된 갈색계가 없고 황갈색과 녹회색을 띠며 깊게 깎인 부분에는 유약이 두텁게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 빙열은 대부분 있는데 II-2형식에서 빙열이 없는 것은 비색에 가까운 유색을 나타낸다.
- 굽지름이 6cm 이하의 것도 있다.

3. III형식(도면 4~5, 도판 5~8, 속성표 3)

III형식은 굽 안바닥에서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는 나선형이 요철(凹凸)로 확인되고 중심부로 갈수록 볼록해지다 중심부에서 편평해지는 것이다. 굽과 동체의 경계에서 i의 특징이 주로 확인된다. 태토는 정선된 것과 거친 것이 있는데 거친 것에서 어두운 회색이 확인된다. 유약은 황갈색계와 녹회색계를 나타내며 전면에 두텁게 시유되어 있다. 굽 접지면에 백색 내화토 받침이 모두 확인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총 60점 중에 22점이다. II형식과의 차이는 굽 안바닥에서 나선형으로 깎은 것과 굽 접지면의 최외단부에서 깎은 흔적이 확인되는 것이다. 또한 내저면에는 뚜렷한 내저원각이 대부분 있고 동체가 곡선을 그리는 것이 확인된다. 이것은 III형식은 굽 접지면의 기울기가 수평인 것(III-1)과 내경하는 것(III-2)으로 구분된다. III-1형식은 총 22점 중 11점이고 나머지 11점은 III-2형식이다.

III-1형식의 굽 외면에서만 돌대가 확인되고 전면에서 물레흔에 의한 요철에 의해 굴곡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정선된 태토와 거친 태토가 모두 확인되고 황회색, 어두운 회색을 띤다. 유색은 대부분 황갈색을 띤다. 이 중에는 번조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황백색을 띠는 것도 있고, 태토가 부풀어 갈라진 것도 확인된다. 빙열은 모두 확인된다.

III-2형식은 III-1형식에 비해 굽 안바닥, 굽 외면, 동체에서 물레에 의한 요철이 거의 없고 깎음새가 단정하다. 태토는 밝은 회색을 띠는 것이 대부분이고 유색도 대체로 녹회색을 띤다. 빙열이 없는 것이 11점 중에 3점 확인된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예를 관찰하면 다음과 같다.

1) III-1형식

① ‘가’구역 건물지기단석축 북쪽에서 확인된 매납유물 중 하나이다. 흑갈색의 부식이 강한 표토층 아래에서 노출되었으며 자연층으로 판단되는 황갈색을 띠는 마사토층에 위치한다. 약 1/2 크기의 붉은색을 띠는 암키와 4편을 가지

고 원형으로 감싸고 그 안에 해무리굽완이 놓여 있는 상태로 확인되었다. 깨어진 편을 접합한 것으로 완형으로 복원되었다. 동체는 사선으로 올라 구연에서 살짝 외반한다. 굽 안바닥은 볼록한 형태로 시계방향의 나선형이 등간격으로 2조 돌아가는 것이 확인되고 중심부에서 편평한 면을 이룬다. 굽 접지면은 편평하다. 굽과 동체의 경계는 i 와 같으며 굽 외면에 돌대가 있고 굽 접지면의 최외단부는 깎은 흔적이 각으로 확인된다. 내저면은 편평하며 도드라졌고 원각이 있다. 전면은 물레에 의한 요철(凹凸)과 유약에 세사립이 미량 섞여 있어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다. 또한 소성에 의한 태토가 기포를 가져 부풀어 올라 갈라진 것이 군데군데 확인된다. 단면에서 확인되는 태토는 세사립과 기포가 없고 정선된 편이며 회황색을 띤다. 유약은 밝은 황갈색을 나타내며 전면에 고르고 I 형식보다는 두텁게 시유되어 있고 굽의 경계와 내저원각에는 더 두텁게 유약이 남아 있다. 빙열이 있다. 굽 접지면에는 3개의 백색 내화토 받침이 확인된다(도면 4-1, 도판 5-1)⁵¹⁾.

굽지름 5.6cm 굽 접지면 너비 1cm 굽높이 0.6cm

② 동체의 일부와 굽의 2/3 정도가 남아 있는 것이다. 굽 안바닥의 중심부가 뽕족하고 굽 접지면이 편평한 것으로 II-1형식의 특징을 가진 것이지만 굽 안바닥에 2조의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는 나선형이 확인되는 점, 굽 접지면의 최외단부를 깎은 점과 굽 외면에 돌대가 있는 점, 굽 접지면의 너비가 좁은 점, 황갈색의 유색을 띤 점과 위의 (도면 4-1, 도판 5-1)과 유사한 점에서 III-1형식으로 구분하였다. 굽과 동체의 경계는 i 의 특징을 가진다. 내저면에 회미한 원각이 있고 전면은 물레에 의한 요철(凹凸) 없이 매끄러운 편이다. 정선된 태토이며 갈색을 띤다. 유약은 밝은 황갈색을 나타내며 전면에 고르고 I 형식보다 두텁게 시유되어 있고 굽의 경계에는 더 두텁게 유약이 남아 있다. 굽 접지면에는 일부 유약이 확인되지 않는다. 빙열이 없다. 굽 접지면에는 3개의 백색 내화토 받침이 확인되는데 4개로 추정된다(도면 4-6, 도판 6-1)⁵²⁾. 굽지름 6cm 굽 접지면 너비 0.9cm 굽높이 0.6cm

③ 동체의 일부와 굽이 남아 있는 것이다. 굽 안바닥은 볼록한 형태로 시계방향의 나선형이 등간격으로 2조 돌아가는 것이 확인된다. 굽 접지면은 편평하다. 굽과 동체의 경계는 i 에 가까우며 굽 외면에 돌대가 없고 굽 접지면의 최외단부는 깎지 않았다. 내저원각이 있는데 내저면은 오목한 편이다. 전면은 물레에 의한 요철(凹凸)이 있고 번조상태가 불량하여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다.

51) 慶州大學校博物館, 앞의 책, 2006, p. 20의 ‘⑤ 청자완’을 수정 보완하였다.

52) 慶州大學校博物館, 앞의 책, 2006, p. 213의 ‘⑤ (도면 91-5, 도판 101-8)’을 수정 보완하였다.

거친 태토이며 어두운 회색을 띤다. 유색은 황갈색을 나타내며 번조상태가 불량한 부분은 밝은 황갈색을 띤다. 유약은 전면에 I 형식보다는 두텁게 시유되어 있고 굽의 경계와 내저원각에는 더 두텁게 유약이 남아 있다. 굽 접지면에는 일부 유약이 확인되지 않는다. 빙열이 없다. 굽 접지면에는 3개의 백색 내화토 받침이 확인된다(도면 4-9, 도판 6-4).

굽지름 5.1cm 굽 접지면 너비 0.7cm 굽높이 0.4cm

2) III-2형식

① 구연과 굽의 2/3 정도가 남아 있어 도상복원 가능한 것이다. 동체는 직사선으로 올라 구연에 이른다. 굽 안바닥은 중심부로 갈수록 볼록해지다 중심부에서 편평해지는 모양으로 나선형의 깎은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굽 접지면은 내경하는데 그 너비가 0.8-1.2cm로 일정하지 않다. 이것은 굽 안바닥과 굽 외면을 깎을 때 중심축이 맞지 않아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굽과 동체의 경계는 i의 특징을 가지며 굽 외면에 돌대가 없고 굽 접지면의 최외단부에 깎은 흔적이 확인된다. 내저원각이 있는데 내저면은 오목한 편이다. 전면은 물레에 의한 요철(凹凸)이 없고 매끄럽다. 정선된 태토이며 밝은 회색을 띤다. 유약은 녹회색을 나타내며 전면에 고르고 I 형식보다 두텁게 시유되어 있고 굽의 경계와 내저원각에도 일정하게 시유되어 있다. 빙열이 없다. 굽 접지면에는 3개의 백색 내화토 받침이 확인되는데 4개로 추정된다(도면 5-1, 도판 7-1)⁵³⁾. 굽지름 5.4cm 굽 접지면 너비 0.8-1.2cm 굽높이 0.7cm

② 구연과 굽이 남아 있어 도상복원 가능한 것이다. 동체는 사선으로 올라 구연에서 약간 내만한다. 굽 안바닥은 볼록한 형태로 시계방향의 나선형이 등간격으로 2조 돌아가는 것이 확인된다. 굽 접지면은 내경한다. 굽과 동체의 경계는 i의 특징을 가지며 굽 외면에 돌대가 없고 굽 접지면의 최외단부에 깎은 흔적이 확인된다. 내저원각이 있는데 내저면은 오목한 편이다. 전면은 물레에 의한 요철(凹凸)이 없고 매끄럽다. 정선된 태토로 작은 기공이 확인되고 밝은 회색을 띤다. 유약은 녹회색을 나타내며 전면에 고르고 두텁게 시유되어 있고 굽의 경계와 내저원각에는 더 두텁게 유약이 남아 있다. 굽 접지면에는 일부 유약이 확인되지 않는다. 빙열이 있다. 굽 접지면에는 4개의 백색 내화토 받침이 확인된다(도면 5-2, 도판 7-2)⁵⁴⁾.

굽지름 5.8cm 굽 접지면 너비 0.9cm 굽높이 0.5cm

③ 동체와 굽이 1/3 정도 남아 있는 것이다. 굽 안바닥의 중심부가 뽕족한

53) 慶州大學校博物館, 앞의 책, 2006, p. 213의 '④ (도면 91-4, 도판 101-7)'을 수정 보완하였다.

54) 보고서 작업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깨어진 편을 조합하는 과정에서 도상복원이 가능해졌다.

형태이지만 굽 접지면의 최외단부가 깎여 있고 굽지름이 6cm 이상이 아닌 점에서 III형식으로 구분되었다. 굽 접지면은 내경한다. 굽과 동체의 경계는 i의 특징을 가지며 굽 외면에 돌대가 없다. 내저원각이 있는데 내저면은 오목한 편이다. 전면은 물레에 의한 요철(凹凸)이 없고 매끄럽다. 거친 태토로 작은 기공이 확인되고 밝은 황갈색을 띤다. 유약은 황갈색을 나타내며 전면에 고르고 두텁게 시유되어 있고 굽의 경계와 내저원각에도 일정하게 시유되어 있다. 굽 접지면에는 일부 유약이 확인되지 않는다. 빙열이 없다. 굽 접지면에는 1개의 백색 내화토 받침이 확인되는데 3개로 추정된다(도면 5-7, 도판 8-1).
 굽지름 5.2cm 굽 접지면 너비 1.3cm 굽높이 0.5cm

이와 더불어 속성표 3에 제시된 예를 통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알 수 있다.

<공통점>

- 굽 안바닥에서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는 나선형의 깎음새가 관찰되며 중심부로 갈수록 볼록해지다가 중심이 편평한 것이다.
- 굽과 동체의 경계가 뚜렷하게 있다.
- 굽 접지면의 최외단부에 깎은 흔적이 있다.
- 유약은 전면에 시유되어 있다.
- 백색 내화토 받침이 굽 접지면에서 확인된다.
- 굽지름 5cm 이상-6cm 이하, 굽 접지면의 너비 0.9cm-1.2cm 내외인 것이다.

<차이점>

- 굽 안바닥에서 II형식의 중심부가 뾰족한 것이 III-1과 III-2형식에서 1점씩 확인된다.
- III-2형식의 굽 안바닥은 볼록하지만 나선형의 깎은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 굽 접지면의 최외단부에서 깎지 않은 것이 III-1형식에서 2점 확인된다.
- 대부분이 내저원각인데 곡면인 것이 III-1에서 1점 확인된다.
- III-1형식은 외면에서 물레에 의한 요철이 뚜렷이 확인된다.
- III-1형식은 거친 태토인 것이 대부분인데 이중 정선된 태토가 확인되는 것이 있다. 이것은 장판선문의 타날문양을 가진 기와에 둘러싸여 매납된 상태로 출토된 것이다⁵⁵⁾.
- III-2형식은 정선된 태토가 대부분이다.
- 유색은 III-1형식에서 황갈색계가, III-2형식에서 녹회색계를 띤다.

55) 慶州大學校博物館, 앞의 책, 2006, p. 19의 도면 2-①, 2-② 참조, 본고의 삽도 8. 참조.

- 빙열은 대부분 있는데 빙열이 없는 것도 일부 있다.
- 굽지름 5cm 이하의 것, 6cm 이상의 것, 굽 접지면의 너비가 0.6cm 내외의 것 등 굽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는 것은 모두 Ⅲ-1형식에 해당된다.
- Ⅲ-2 중에 도판 8-5는 내저면에 음각선이 확인되는데 이것은 시문기법보다는 내저원각의 표현이라 보아 두겠다. 이것은 굽 접지면에 유약이 확인되지 않는 점과 유색이 비색에 가까운 점에서 IV형식에서 보이는 요소가 강하게 확인된다.

4. IV형식(도면 6, 도판 9, 속성표 4)

굽 안바닥에서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는 나선형의 깎은 흔적이 요철로 확인되며 중심부가 볼록한 것이다. 이것은 Ⅲ형식에서 보이는 거칠게 깎은 것과 달리 아주 미세한 요철이 있고 깎음새가 단정하다. 굽과 동체의 경계에서는 ii의 특징이 주로 확인된다. 굽 접지면의 최외단부에서 깎은 흔적이 각으로 모두 확인된다. 내저원각이 모두 있다. 동체는 직선에 가까운 것과 곡선인 것이 확인된다. 정선된 태토로 밝은 회색을 띤다. 유약은 I~Ⅲ형식에서 보이는 녹회색보다 녹색이 짙게 확인되는 것으로 전면에 시유되어 있다. 깊게 깎인 부분에는 두텁게 시유되어 있고 굽 안바닥과 굽 접지면에서 유약이 일부 확인되지 않는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총 60점 중에 5점이다.

이 IV형식에서는 전면에 유약이 확인되는 것이 아닌 굽 안바닥과 굽 접지면에 유약이 일부 남아 있는 점에서 I, II, Ⅲ형식과 차이가 있다. 그리고 굽과 동체의 경계부분에서도 앞의 형식인 Ⅲ형식과 뒤의 형식인 V형식과도 차이가 난다. 그것은 Ⅲ형식만큼 굽이 높고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굽 외면과 동체가 둔각을 이루며 굽 외면 높이가 낮다. 이 중 대표적인 예를 관찰한 것은 다음과 같다.

① 구연의 일부와 굽의 1/2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도상복원 가능하다. 동체는 직사선으로 올라 구연에서 살짝 외반한다. 굽 안바닥은 중심부로 갈수록 볼록해지다 중심부에서 편평해지는 모양으로 나선형의 깎은 흔적이 확인된다. 굽 접지면은 편평하며 굽과 동체의 경계는 ii의 특징을 가지며 굽 외면에 돌대가 없고 굽 접지면의 최외단부에 깎은 흔적이 확인된다. 내저원각이 있는데 내저면은 편평한 편이다. 전면은 물레에 의한 요철(凹凸)이 일부 있으나 매끄럽다. 정선된 태토이며 밝은 회색을 띤다. 유약은 녹회색을 나타내며 전면에 고르고 I형식보다 두텁게 시유되어 있고 굽의 경계와 내저원각에 더 두텁게 남아 있다. 굽 접지면에는 일부 유약이 확인되지 않는다. 빙열이 없다. 굽 접

지면에는 1개의 백색 내화토 받침이 확인되는데 3개로 추정된다(도면 6-1, 도판 9-1)⁵⁶⁾. 굽지름 4.6cm 굽 접지면 너비 1.1cm 굽높이 0.4cm

② 동체의 일부와 굽의 1/3 정도가 남아 있는 것이다. 동체 하단부는 약간 곡선에 가깝다. 굽 안바닥의 깎음새는 확인할 수 없다. 굽 접지면이 편평하고 최외단부에 깎은 흔적이 있다. 굽과 동체의 경계가 i의 특징을 가지며 굽 외면에 돌대가 없다. 내저원각이 있는데 내저면은 오목한 편이다. 전면은 물레에 의한 요철(凹凸)이 없고 매끄럽다. 정선된 태토이고 작은 기공이 다량 확인되며 밝은 회색을 띤다. 유약은 녹회색을 나타내며 전면에 두텁고 고르게 시유되어 있고 굽의 경계와 내저원각에 매우 두텁게 남아 있다. 굽 접지면에는 대부분 유약이 확인되지 않는다. 빙열이 있다. 굽 접지면에는 2개의 백색 내화토 받침이 확인되는데 4개로 추정된다(도면 6-5, 도판 9-5).
굽지름 4.4cm 굽 접지면 너비 1cm 굽높이 0.4cm

이와 더불어 속성표 4에 제시된 예를 통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알 수 있다.

<공통점>

- 굽 안바닥에서 나선형 모양의 깎음새가 확인된다.
- 굽과 동체의 경계가 있으나 둔각을 이루어 뚜렷하지 않다.
- 굽 접지면의 최외단부에 깎은 흔적이 있다.
- 굽 외면에 돌대가 없다.
- 정선된 태토로 밝은 회색을 띤다.
- 유약은 전면에 두텁고 고르게 시유되어 있는데 굽 안바닥과 굽 접지면에는 일부 확인되지 않는다.
- 백색 내화토 받침이 굽 접지면에서 확인된다.
- 굽지름 4cm 이상-5cm 이하, 굽 접지면의 너비 1cm 정도의 것이 해당되는데 굽의 크기가 일정한 편이다.

<차이점>

- 외측면이 직선적인 것과 곡선을 그리는 것이 확인된다.
- 유색에는 황녹색을 띤 것이 1점 있다.

5. V형식(도면 7, 도판 10, 속성표 5)

굽 안바닥에 나선형의 요철과 접지면의 최외단부의 깎인 각이 확인되는 점은 IV형식과 공통된다. 내저면은 도드라져 있고 모두 내저원각이 있다. 정선된 태

56) 慶州大學校博物館, 앞의 책, 2006, p. 213의 '③ (도면 91-3, 도판 101-6)'을 수정 보완하였다.

토로 회백색을 나타낸다. 굽 안바닥과 굽 접지면에서 유약이 일부 확인되지 않으며 특히 굽의 접지면에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굽의 크기는 일정하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총 60점 중에 7점이다.

V형식에서 굽과 동체와의 경계가 거의 없이 밋밋하게 동체로 연결되는 iii의 특징이 나타나며 비색에 가까운 유색을 띠며 빙열이 대부분 없다. 이 굽의 형식의 특징과 유사한 것에서 내면에 음각당초문이 시문된 것이 확인되었다(삽도 2. 참조). 이 중 대표적인 예를 관찰한 것은 다음과 같다.

① 동체의 일부와 굽이 남아 있는 것이다. 동체는 직사선으로 오른다. 굽 안바닥은 중심부로 갈수록 볼록해지다 중심부에서 편평해지는 모양으로 시계방향의 2조의 나선형으로 깎은 흔적이 확인된다. 굽 접지면은 편평하며 굽과 동체의 경계는 iii의 특징을 가지며 굽 외면에 돌대가 없고 굽 접지면의 최외단부에 깎은 흔적이 확인된다. 내저원각이 있는데 내저면은 편평하고 도드라졌다. 전면은 물레에 의한 요철(凹凸) 없이 매끄럽다. 정선된 태토이며 밝은 회색을 띤다. 유약은 녹회색을 나타내며 전면에 0.05cm로 고르고 두텁게 시유되어 있으며 굽의 경계와 내저원각에 더 두텁게 남아 있다. 굽 안바닥의 일부와 굽 접지면의 대부분에는 유약이 확인되지 않는다. 빙열이 없다. 굽 접지면에는 3개의 백색 내화토 받침 흔적이 확인된다(도면 7-1, 도판 10-1).

굽지름 3.9cm 굽 접지면 너비 0.7cm 굽높이 0.3cm

② 동체의 일부와 굽의 1/2이 남아 있는 것이다. 동체는 곡선으로 오른다. 굽 안바닥에는 나선형의 깎은 흔적이 있고 굽 접지면은 편평하다. 굽과 동체의 경계가 iii의 특징을 가지며 굽 외면에 돌대가 없고 굽 접지면의 최외단부에 깎은 흔적이 확인된다. 내저원각이 있고 내저면은 오목하다. 전면은 물레에 의한 요철(凹凸)은 없으나 내면에 이물질이 유약과 융착되어 있다. 정선된 태토이며 밝은 회색을 띤다. 유약은 녹회색을 나타내고 전면에 0.05cm로 고르고 두텁게 시유되어 있으며 굽의 경계와 내저원각에 더 두텁게 남아 있다. 굽 접지면의 대부분에는 유약이 확인되지 않는다. 빙열이 있다. 굽 접지면에는 2개의 백색 내화토 받침이 확인되는데 3개로 추정된다(도면 7-5, 도판 10-5).

굽지름 4.2cm 굽 접지면 너비 0.6cm 굽높이 0.3cm

③ 동체의 일부와 굽이 남아 있는 것이다. 동체는 직사선으로 오른다. 굽 안바닥에는 나선형의 깎은 흔적이 있고 굽 접지면은 편평하다. 굽과 동체의 경계가 iii의 특징을 가지는데 거의 안굽에 가깝다. 굽 외면에 돌대가 없고 굽 접지면의 최외단부에 깎은 흔적이 확인된다. 내저원각이 있고 내저면은 편평하고 도드라졌다. 전면은 물레에 의한 요철(凹凸) 없이 매끄럽다. 정선된 태토

이며 밝은 회색을 띤다. 유약은 녹회색을 나타내고 전면에 0.05cm로 고르고 두텁게 시유되어 있으며 굽의 경계와 내저원각에 더 두텁게 남아 있다. 굽 접지면의 대부분에는 유약이 확인되지 않는다. 빙열이 없다. 굽 접지면에는 2개의 백색 내화토 받침이 확인되는데 3개로 추정된다(도면 7-6, 도판 10-6). 굽지름 3.5cm 굽 접지면 너비 0.5cm 굽높이 0.1cm

④ 동체의 일부와 굽의 1/2 정도가 남아 있는 것이다. 동체는 곡선으로 오른다. 굽 안바닥은 볼록한 편인데 나선형의 깎은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굽과 동체의 경계가 iii의 특징을 가지며 굽 외면에 돌대가 없다. 굽 접지면은 편평하고 그 너비가 0.4cm로 매우 좁으며 굽 접지면의 최외단부에 깎은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내저원각이 있고 내저면은 오목하다. 전면은 물레에 의한 요철(凹凸) 없고 매끄럽다. 정선된 태토이며 회색을 띤다. 유약은 황갈색을 나타내며 전면에 0.05cm로 고르고 두텁게 시유되어 있으며 굽의 경계와 내저원각에도 일정하게 남아 있다. 굽 접지면에는 유약이 확인되지 않는다. 빙열이 없다. 굽 접지면에는 2개의 백색 내화토 받침이 확인되는데 4개로 추정된다(도면 7-7, 도판 10-7). 굽지름 4cm 굽 접지면 너비 0.4cm 굽높이 0.2cm

이와 더불어 속성표 5에 제시된 예를 통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알 수 있다.

<공통점>

- 굽 안바닥에서 나선형의 깎음새가 확인된다.
- 굽과 동체의 경계가 거의 없이 밋밋하다.
- 굽 접지면의 최외단부에 깎은 흔적이 있다.
- 굽 외면에 돌대가 없다.
- 내저원각이 모두 확인되며 내저면은 편평하고 도드라져 있다.
- 정선된 태토로 밝은 회색을 띤다.
- 유약은 비색에 가까운 녹회색을 띠며 전면에 두텁고 고르게 시유되어 있는데 접지면에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 백색 내화토 받침이 굽 접지면에서 확인된다.
- 굽지름 3.5cm 이상-4.2cm 이하, 굽 접지면의 너비 0.6-0.7cm 정도로 일정하다.

<차이점>

- 내저면에 번조 받침이 아닌 이물질이 유약과 융착되어 있는 것이 1점 확인된다. 이것에서 갑발에 넣어 번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유색에는 황녹색을 띠는 것이 1점 있다.

이상과 같이 불국사 경내에서 출토한 고려청자 해무리굽완의 예를 통해 I ~ V 형식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불국사 경내 출토 고려청자 해무리굽완의 형식 분류

속성 \ 형식 분류	I	II		III		IV	V
		1	2	1	2		
굽 안바닥	㉠	㉠, ㉡	㉡	㉡, ㉢		㉢	㉢
굽과 동체의 경계	i, ii	i, ii	i	i		ii	iii
접지면 최외단부	A, B	A		A, B	B	B	B
굽 외면의 돌대	-	-		g	-	-	-
내저원각	o	o, o'	o, o', o''	o, o''	o''	o''	o''
태토색	적, 회백	적, 회백	회백	회	회, 회백	회백	회백
유색	갈, 황	황, 녹		황, 녹		녹	녹
접지면의 시유상태	c	c		c		c', c''	c''
굽지름/ 굽 접지면 너비(cm)	5.9/ 0.9	6.2/ 1.3	6.4/ 1.3	5.3/ 0.8	5.4/ 1.1	4.4/ 1	4/ 0.6
형식별 개수	7	7	12	11	11	5	7
		19		22			
합 계	60점						

* 굽지름과 굽 접지면 너비는 평균값이다. 이 중 III형식에서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것이다.

표 3과 II장에서 언급한 기존의 해무리굽완의 고식 신식과 비교하여 본다면 고식의 특징에 해당되는 내저곡면, 유약이 얇고 황갈색계를 띠는 점은 본고의 형식 분류 중 I ~ III 형식까지 확인된다. 또한 굽지름이 6cm 이상인 것은 I ~ II형식에서 주로 확인되지만 III형식에도 있다.

신식의 특징에 해당되는 내저원각, 유약이 두텁고 녹회색계를 띠는 점은 본고의 형식 분류 중 II ~ V 형식까지 확인되며 내면에 음각 국당초문이 있는 것은 V형식의 굽의 모양과 유사한 것에서 확인된다. 유약이 굽의 일부분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은 주로 IV ~ V형식에서 확인되는데 이 외에 I 과 III형식에서도 간혹 확인된다. 굽지름이 6cm 이하인 것은 I ~ V형식까지 모두 확인되고 있다.

표 4에서는 기존의 해무리굽완의 형식 분류에 본고에서 행한 형식 분류를 더하여 보았다. 이를 보면 고식과 신식까지 모두 확인되고 있는 요지는 강진 용운리 9호로 동일하다. 그런데 해무리굽완의 형식은 I, II, III, IV, V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강진 용운리 제 18, 28, 49호 요지, 강진 삼흥리 제 2호 요지를 제외하고는 I II, II III, III IV, IV V형식이 연결되는 듯이 보고되어 있음도 알 수 있다. 즉 생산요에서 해무리굽완의 변천이 보이고, 마찬가지로 소비지인 불국사 경내 출토 해무리굽완이 변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분류기준인 내저원각의 유무는 해무리굽완을 고식과 신식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불국사 경내 출토 해무리굽완을 관찰한 결과 제작기법의 측면인 굽을 깎는 방법을 더한다면 고식에서도 최초의 형식(I형식)을, 신식에서 최후의 형식(V형식)을 설정할 수 있을 듯 하다. 게다가 굽을 깎는 방법에 의해 해무리굽의 굽 모양이 큰 것(굽지름 6cm 이상)에서 작은 것(4cm 내외)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내저면에 원각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유약이 얇게 시유된 것에서 두텁게 시유된 것으로, 유색이 적갈색 또는 황갈색에서 녹회색으로 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불국사 경내에서 출토한 해무리굽완이 변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해무리굽완의 변천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V. 불국사 경내 출토 고려청자 해무리굽완의 변천

앞 장에서는 불국사 경내 출토 고려청자 해무리굽완을 5형식으로 분류하여 I형식→II형식→III형식→IV형식→V형식으로 해무리굽완이 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은 청자기술의 변화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이 장에서는 각 형식에서 확인되는 굽을 짚는 방법, 유약 등에 주목하여 불국사 경내 출토 고려청자 해무리굽완의 변천을 5단계로 살펴보겠다.

1. 1단계

1단계는 중국 唐代~五代 청자에서 나타나는 요소가 가장 많이 확인된다. 중국청자의 특징은 경주에서 출토된 청자 옥벽저완 중에서 배리(현재 배동), 석장동 동국대 구내, 동천동, 신라왕경의 출토품을, 그 다음으로는 앞에서 살펴본 것과 다른 굽을 가진 불국사 경내 출토품을 토대로 살펴보겠다.

배리출토 옥벽저완⁵⁷⁾은 토기골호의 내호의 뚜껑으로 사용된 것으로 완형이다. 동체는 곡선을 이루며 올라 구연에서 내만한다. 내저곡면이다. 굽은 옥벽저로, 접지면의 너비가 2cm정도이다. 접지면의 기울기는 내경한다. 굽 안바닥의 중앙부는 뾰족하게 튀어나왔다. 유약은 황색이 감도는 색이며 전면에 시유되어 있는데 굽의 접지면에는 일부 확인된다. 빙열은 없다. 굽의 접지면에는 6개의 백색 내화토 받침 흔적이 아주 얇게 확인



삽도 4. 경주 배리 출토 청자골호

(국립대구박물관, 『우리 문화속의 中國 陶磁器』, 2004, p. 48)

된다. 이것은 경북 월성군 내남면 망성리에서 출토된 「元和十年」명(815년) 토기골호와 유사한 것이 외호로 사용되어 그 시기가 분명한 것이다. 그리고 경주지역의 골호는 통일신라의 화장묘제로 연구되어지고 있다⁵⁸⁾.

석장동 동국대 구내출토 중국청자⁵⁹⁾도 토기골호의 내호의 뚜껑으로 사용된 것이다. 동체의 일부와 굽이 남아 있다. 동체는 상반부를 깨어내고 그 가장자리

57) 姜敬淑, 「慶州 拜里出土 土器骨壺 小考」 『三佛金元龍教授 停年退任紀念論叢Ⅱ』, 1987, pp. 215-227과 국립대구박물관, 앞의 책, 2004, p. 48의 내용과 도면, 도판을 참고하여 두었다.

58) 石秉哲, 「경주지역 新羅 火葬墓에 대하여」, 『新羅史學報』 제9호, 新羅史學會, 2007, p. 104에서 '元和十年'명 장골기, 석장동, 남산 배동(경주 배리) 출토 장골기를 3단계로 두었고 이 단계를 쇄퇴기로 보았다. 그 조영시기는 9세기 초~9세기 중엽으로 보았다.

59) 李熙濬, 「慶州 錫杖洞 東國大 構內出土 藏骨器」 『嶺南考古學』 11, 嶺南考古學會, 1992, pp. 139-150과 국립대구박물관, 앞의 책, 2004, p.49의 내용과 도면, 도판을 참고하였다.

를 간 상태이며 측사면은 곡선을 그리며 올라가는 듯하다. 내저곡면이다. 굽은 옥벽저로, 접지면의 너비가 1.8cm 정도이다. 접지면의 기울기는 내경한다. 굽 안바닥은 중앙으로 갈수록 볼록해진다. 유약은 내면에 옅은 회녹색을, 외면에 탁한 회녹색을 띠며 전면에 시유되어 있고 굽 접지면의 일부에는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빙열은 없다. 내저면에는 5개의 백색 내화토 받침 흔적이 아주 얇게 확인된다. 이것은 9세기 중엽말 이후로는 내려오지 않을 것으로 연구되었다⁶⁰⁾.

동천동 출토 옥벽저완⁶¹⁾은 구연과 굽의 1/2 정도가 남아 있는 것이다. 동체는 직사선으로 벌어져 올라 구연에 이른다. 내저곡면이고 굽 안바닥의 중앙부가 뽕족한 것이 배리 출토품과 유사하다. 유색은 황갈색을 띠며 전면에 시유되어 있다. 굽 접지면에 번조 받침 흔적이 확인되는데 6개 이상으로 판단된다. 빙열이 있다. 동천동 고대도시유적은 통일신라시대의 도시로 여겨지고 있다⁶²⁾.

신라왕경 출토 청자완⁶³⁾은 굽의 일부만이 남아 있는 것인데 굽 접지면의 너비 2cm 정도로 앞의 예들과 유사하다. 그런데 굽 안바닥과 굽 접지면에 유약이 확인되지 않고 내저면에서만 확인되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불국사 경내 출토 중국청자완은⁶⁴⁾ 동체와 굽의 일부가 남아 있는 것으로 굽 접지면의 너비가 0.8cm 정도로 앞의 옥벽저보다 좁다. 굽 안바닥이 편평하며 내저곡면이다. 유약은 황갈색으로 아주 얇게 전면에 시유되어 있는데 굽 접지면에는 확인되지 않는다. 빙열은 없다. 굽 접지면에서는 6개 정도로 추정되는 백색 내화토 받침 흔적이 확인된다(삽도 5). 불국사 경내에서는 굽의 크기만 본다면 당대 옥벽저완보다는 오대 옥환저완에 가까운 것만이 1점 출토되었다.



삽도 5. 불국사 경내 출토 중국청자완
(慶州大學校博物館, 앞의 책, 2006, p. 488, 도판 126-1)

위에서 살펴본 것에 따른 중국 청자의 공통점은 내저곡면, 황갈색계통의 유색, 얇게 시유된 유약, 단정한 굽의 깎음새⁶⁵⁾, 정선된 태토, 번조 받침이 5개 이

60) 李熙濬, 앞의 논문, 1992, p. 145.

61) 국립대구박물관, 앞의 책, 2004. p. 47의 도 50의 경주대학교박물관 소장품.

62)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경주대학교 박물관, 「경주시 동천동 7B/L 내 도시유적 발굴조사 결과 보고서」, 1999.

63)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앞의 책-본문편-, 2002, p. 268.
국립대구박물관, 앞의 책, 2004. p. 46의 도48.

64) 慶州大學校博物館, 앞의 책, 2006, p. 273의 ①(도면 104-1, 도판 126-1).

65) III장에서 언급한 『窯業』에서는 굽 안바닥의 나선형은 물레 회전방향에 의해 왼쪽으로 나타나 있는 것에서, 한국과는 반대로 있다고 하는데 굽의 깎음새가 정연하여 굽 안바닥의 회전방향을 확인하기가

상으로 그 흔적만이 얇게 확인되는 백색 내화토 받침 등이다.

이에 반해 차이점은 빙열의 유무, 전면시유 또는 굽 접지면에 유약이 확인되지 않는 것, 굽 접지면의 너비가 2cm 내외의 것 또는 0.8cm, 굽 안바닥이 뽕족 또는 편평, 굽 접지면의 최외단부를 깎은 것과 깎지 않은 것, 굽 접지면의 기울기가 내경 또는 수평인 것 동체의 측사면이 직선 또는 곡선, 번조 받침이 굽 접지면 또는 내저면에서 확인되는 점 등이다.

따라서 해무리굽완에서 확인되는 중국적 요소는 유물 관찰과 연구성과를 토대로 본다면 내저곡면, 황갈색계통의 유색, 얇게 시유된 유약, 정연한 굽의 깎음새, 정선된 태토가 해당된다.

이와 같은 중국청자의 특징을 참고한다면 불국사 경내에서 중국적 요소가 있는 해무리굽완은 I 형식이다. 이 중에서 내저곡면, 황갈색, 정선된 태토, 굽 안바닥이 편평한 것을 모두 갖춘 것은 도판 1-1과 1-3이다.

도 1-1과 1-3은 굽지름 6cm, 굽 접지면 너비 1cm 정도로 기존의 형식 분류 중 고식에 속하며 한반도 서남부지역의 초기청자요지의 것과 유사하다. 시기는 9세기 전반, 중엽, 후반, 10세기 전반으로 편년되어 있다(표 1. 참조). 해무리굽완의 상한과 관련된 절대연대를 알 수 있는 기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경주지역의 발굴성과를 토대로 그 시기를 추정해 보겠다.

지금까지 경주의 신라 유적에서는 중국 옥벽저완이 대부분 출토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의 경주지역의 발굴성과에 의한다면 신라토기와 공반된 예만 있을 뿐, 옥벽저완과 I 형식에 해당되는 해무리굽완이 공반되어 출토된 예는 없다⁶⁶⁾. 또한 불국사 경내에서 중국청자는 당대 옥벽저완이 출토되지 않았고 굽 접지면의 너비가 0.8cm로 좁은 것이 출토된 점과 불국사 경내 유적의 최하층에서 고려시대의 유물이 확인되는 점에서 불국사 경내 유적의 시작은 고려시대로 판단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때 통일신라시대의 경주에서는 해무리굽완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게다가 경주가 고려에 속하는 때는 신라 마지막왕인 경순왕(927-935년)이 고려에 투항하고 난 이후의 시기인 935년 이후인 점에서 그 제작시기도 고려시대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원산리 2호묘의 최종층인 4차 가마터⁶⁷⁾에서 ‘淳化三年’이라는 절대편년 자료가 발견되었다. 이 묘의 최초의 층이라고 하는 1차 가마터에서 꽃접시와

어렵다.

66) 姜敬淑, 앞의 논문, 1987.

李熙濬, 앞의 논문, 1992.

67) 김영진, 앞의 책, 2003에 pp. 129-171.

함께 해무리굽을 가진 대접 1이 공반되었다(표 2. 참조). 이 대접의 실측도에서는 굽 안바닥의 깎음새가 편평하게 확인되고 내저곡면, 전면시유에서 1단계와 유사한 점이 있는데 굽 안바닥의 깎음새는 명확하지 않다. 이에 반해 내저면에 번조 받침이 있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2. 2 단계

2단계는 1단계의 특징인 중국적 요소가 계속해서 확인되며 여기에 내저원각과 유약이 두텁게 시유되는 것이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소위 한국식 해무리굽완이라고 명명되고 있다. 해무리굽완에서 한국식이란 해무리굽완의 하나의 분류기준인 내저원각의 유무에 의한 내저원각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중국청자에서는 내저원각이 확인되는 예가 없는 점 때문인 듯하다. 나아가 崔 健의 「고려청자 언제 어떻게 만들어 졌나」에서는 중국 도자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중국도자문화를 취사선택하고 전통적인 제작기술을 계승한 토착요 계통의 청자가 한국 청자 중심으로 등장했다는 것에서 ‘한국화’ 또는 ‘고려화’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내저원각의 표현이 시작되고 있는 해무리굽완의 형식을 한국식의 요소로 보겠다.

2단계에서는 1단계의 특징인 내저곡면에 황갈색을 띠고 유약이 얇게 시유된 것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고 이에 반해 1단계에서 확인되는 굽 안바닥이 편평한 것은 사라지고 중심부가 뽕족한 것이 나타난다. 여기에는 II형식이 해당된다.

1단계에서 살펴본 옥벽저완 중에 굽 안바닥의 중심부가 뽕족한 것이 있는데 II형식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것은 옥벽저는 물레를 돌리면서 한번에 깎아 요철이 없이 매끈한 것이고 II형식은 한번 이상 깎은 것으로 굽 주위에 시계방향으로 1-2조의 얇은 돌기가 확인되고 있는 점이다. 간혹 그 돌기가 확인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는 내저원각이 확인되거나 유약이 두텁게 시유된 점에서 옥벽저완과는 구별된다.

II형식은 다른 형식에 비해 일정한 굽의 크기를 가지는데 굽지름 6cm 이상, 굽 접지면의 너비 1.1cm-1.5cm 내외의 것이 해당된다. 또한 굽 접지면의 최외단부가 모두 깎여 있지 않은 것에서 1단계와 3단계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굽 접지면의 기울기에 의해 수평인 것과 내경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II-1형식과 II-2형식으로 두었다. 이들은 굽 접지면의 기울기를 제외하고는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선후관계는 파악하기 어렵다. 단지 연구성과에 의한다면, 굽의 크기가 II-1형식은 중국식 후기 해무리굽과 유사하고 II-2형식은 굽의 접지면이 내경하는 것에서 한국식 초기 해무리굽과 유사하

여 II-1형식이 II-2형식보다 이르게 설정되어 있다⁶⁸⁾. 또한 내저원각이 시작되는 형식을 한국식 초기 해무리굽으로 보았는데 불국사 경내 출토 해무리굽완에서는 II-1형식과 II-2형식에서 모두 확인되고 있다.

게다가 초별구이편이 확인되었는데 이것은 1단계에서 살펴본 배리와 석장동에서 출토한 중국청자 골호의 뚜껑의 굽 안바닥과 유사하다. 그러나 내저원각이 있는 것에서 II-1형식에 가깝다. 지금까지 확인된 초별구이 편은 표 4를 참고하면 IV형식에 해당된다. 청자 제작에서의 □초별구이□는 청자양식의 한국화과정에서 새롭게 도입된 제작기술로 보는 견해가 있다⁶⁹⁾. 이와 같이 II-1형식에서부터 내저원각, 초별구이가 나타난다 (삽도 6).

내면	측면	외면
		
특징	굽 안바닥이 뾰족하고 굽 접지면이 편평하며 최외단부는 깎지 않음. 굽지름: 5.7cm, 굽 접지면 너비: 1.6cm	

삽도 6. 강진 용운리 요지 출토 해무리굽 초별구이편

II-2형식은 고창 용계리 요지 발굴조사⁷⁰⁾로 출토된 해무리굽완과 유사하다. 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확인된다(표 4. 참조).

-청자완⁷¹⁾은 굽 안바닥의 중심부가 뾰족하고, 접지면이 내경한다. 굽지름 6.1cm, 접지면의 너비 1.2cm.

-청자완⁷²⁾은 굽 안바닥의 중심부가 뾰족하고 접지면이 내경한다. 굽지름 5.8

68) 崔建, 앞의 논문, 1992-1994, p. 46, 曹銀精, 앞의 논문, 2003, p. 40.

69) 이종민, 「남부지역 초기청자의 계통과 특징」 『미술사연구』 16, 미술사연구회, 2002, pp. 222-223. 이희관, 앞의 논문, 2003, p. 30.

70) 圓光大學校 馬韓 百濟文化研究所, 앞의 책, 1985.

圓光大學校博物館, 앞의 책, 1996, p. 219에서 내저면의 원각의 유무는 내용, 도면, 도판에서 확인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속성은 실견에 의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71) 圓光大學校 馬韓 百濟文化研究所, 앞의 책, 1985, p. 88의 (도판 47-a, 삽도 2-a)에는 굽지름이 4.7cm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측도에서 6.1cm로 측정되었다.

72) 圓光大學校 馬韓 百濟文化研究所, 앞의 책, 1985, p. 117의 (삽도 11-a). 이외에 II-1형식에 가까

cm, 접지면 너비 1.3cm.

굽 안바닥의 모양과 접지면의 기울기, 굽지름, 접지면의 너비를 보았을 때 용계리 출토 청자완은 II-2형식과 매우 유사하다. 이 용계리 요지 주변의 건물지에서 ‘太平壬戌’銘 (1022년)⁷³⁾ 암키와편이 출토되어 가마의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데, 그것은 청자 발생설 중 10세기 후반설⁷⁴⁾의 한 기준자료로 있다(삽도 7).

이에 반해 용계리 출토 해무리굽완을 소멸단계인 퇴화 해무리굽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⁷⁵⁾ 굽의 크기만을 본다면 퇴화 해무리굽(굽지름 4cm 내외)에 해당되는 것은 보고되어 있지 않다.



삽도 7. 고창 용계리 출토품

(圖光大學校博物館, 『博物館圖錄』, 1996, p. 219)

3. 3단계

3단계는 위에서 서술한 1단계, 2단계에 걸쳐 확인되는 중국적 요소가 사라지고 완전한 고려청자 해무리굽완이 확인된다. 완전한 고려청자라는 것은 앞서 살펴본 분류기준에서 굽 안바닥이 볼록한 ㉔의 특징으로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는 나선형의 깎은 흔적이 남아 있는 것과 내저원각이 거의 확인되는 것이다. 이 중 굽 안바닥의 깎음새는 1과 2단계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요소이다. 여기에는 III형식이 해당된다. 이들의 굽 접지면의 최외단부는 대부분 깎여 있고 유약이 두텁게 시유된 것, 굽지름이 2단계보다 1cm 가량 작아진 굽지름 5.4cm 내외인 것에서 2단계와 차이가 있다.

또한 이 단계에 해당되는 해무리굽완 중에 ‘가’구역 건물지기단석축 북쪽에서 매납유물⁷⁶⁾로 확인된 예가 있다. 불국사 경내 조사구역에서 확인된 대다수의 매납유물은 주로 토기이며 그 토기의 상부를 토기 뚜껑 또는 평기와를 이용하여 덮은 것이다.

이 매납유물인 해무리굽완(도판 5-1)⁷⁷⁾은 조사구역에서 확인된 다른 매납유

운 것도 있다(삽도 11-e).

73) 이희관, 「高敞郡 龍溪里窯와 “太平壬戌”銘 瓦片 및 塼築窯 문제」 『美術史學研究』 244, 韓國美術史學會, 2004, p. 99,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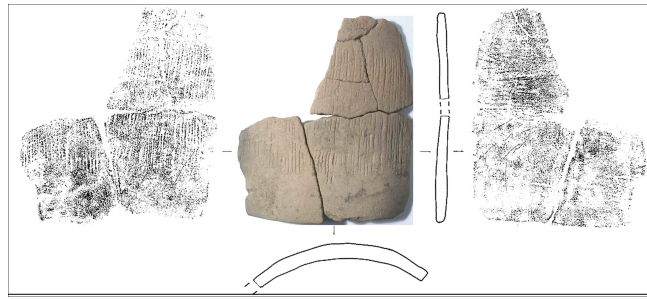
74) 尹龍二, 앞의 논문, 1991, pp. 19-24.

75) 李鍾玟, 앞의 논문, 2002, pp. 132-133.

76) 慶州大學校博物館, 앞의 책, pp. 11-68에 매납유물이 소개되어 있다.

77) _____, 앞의 책, p. 20.

물과 구분된다. 그것은 매납 유물이 토기가 아니라 청자라는 점, 암키와를 둘러 세워 공간에 구획 한정된 점 등 때문이다. 흑갈색의 부식이 강한 표토층 아래에서 노출되었으며 자연층으로 판단되는 황갈색을 띠는 마사토층에 위치한다. 약 1/2 크기



삽도 8. 불국사 경내 출토 매납기와
(慶州大學校博物館, 앞의 책, 2006, p. 19. 도면 2-①)

의 붉은색을 띠는 암키와 4편을 가지고 원형으로 감싸고 그 안에 해무리굽완을 넣은 상태였다. 4편의 암키와 중에서 3편은 한 개체의 암키와로 서로 접합되며 나머지 한편은 다른 개체이다. 모두 철면의 타날문양은 장판의 선문이다⁷⁸⁾(삽도 8). 이 장판의 선문은 통일신라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타날문양으로 연구되고 있다⁷⁹⁾.

이것도 굽 접지면의 기율기에 의해 수평인 것과 내경하는 것인 III-1형식과 III-2형식으로 구분되는데 각 형식간의 선후관계는 분명하지 않다. 단지 II형식과는 달리 III-1형식과 III-2형식은 굽 안바닥과 굽과 동체의 경계를 제외한 속성 간에 차이가 있다.

III-1형식에는 굽 외면에 돌대가 뚜렷하게 남아 있고 동체에서도 물레 회전으로 인한 요철이 남아 있어 전체적으로 깎음새가 단정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 또한 거친 태토가 확인되고 황회색, 어두운 회색을 띤다. 유색은 황갈색과 황갈색을 띠며 얇게 시유되어 있고 빙열이 모두 확인된다. 이 중 번조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황백색을 띠는 것도 있고, 태토가 부풀어 갈라진 것도 확인된다. 굽의 크기도 일정하지 않다.

이러한 특징은 조질청자⁸⁰⁾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있는데 내저면에 번조 받침이 없고 또한 이물질이 확인되지 않은 점에서 갑발을 계속해서 사용한 것에서 기존의 조질청자와는 차이가 있다. 이것은 서남부의 초기청자요지에서 거의 확인되지 않고 용운리 9호, 삼흥리 요지, 고창 용계리 요지, 칠곡 창평리 요지, 대구 진인리 요지에서 유사한 예가 있다(표 4. 참조). 이 중 용계리 출토

78) 慶州大學校博物館, 앞의 책, pp. 19-20에 무문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선문의 장판 타날이 확인되어 선문으로 수정하였다.

79) 趙成允, 「新羅 長板 打捺紋樣 평기와의 慶州 制作與否에 대하여」 『梨花史學研究』 第 30輯, 2003, pp. 44-65.

80) 崔 健, 앞의 논문, 1998, pp. 5-9.
이종민, 앞의 논문, 2004, p. 149.

청자완⁸¹⁾은 굽 안바닥이 중심으로 갈수록 볼록해지고 중심부가 편평하며 굽의 접지면은 내경하고 있다. 굽지름 4.9cm, 접지면 너비 0.8cm로 굽 안바닥이 볼록하고 굽 외면에 돌대가 확인되고 굽과 동체의 경계가 뚜렷하고 굽 외면이 높은 것에서 III-1형식과 매우 유사하다. 용계리 요지 출토 해무리굽완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보다 이른 II-2형식이 함께 확인되고 있는 점에서 II단계에서 III단계로 진행되는 것 같다.

또한 칠곡 창평리 요지와 대구 진인리 요지의 것은 굽 안바닥이 볼록한 III의 특징을 가지며 굽 접지면의 최외단부는 1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깎여 실측도에 선으로 표현되어 있다. 굽지름 4.8cm 이상-6.1cm 이하, 굽 접지면의 너비 0.8cm-1.1cm 정도의 일정하지 않은 굽의 크기를 가지고 내저원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 이것은 불국사 경내의 III-1형식 중에 도판 5-1과 6-1을 제외한 것과 매우 유사하다.

III-2는 III-1에 비해 굽 안바닥, 굽 외면, 동체에서 물레에 의한 요철이 거의 없고 깎음새가 단정하다. 태토는 밝은 회색을 띠는 것이 대부분이고 유색도 대체로 녹회색을 띠고 두텁게 시유되어 있다. 굽지름도 5.4cm 전후, 굽 접지면의 너비 0.9cm-1.2cm 내외로 III-1형식의 것보다 굽의 크기가 일정한 편이다. 굽의 크기만 본다면 한국식 초기 해무리굽(굽지름 5cm 내외, 굽 접지면 너비 1.2cm)에 해당되는 것인데 내저원각이 대부분 확인되고 있는 점에서 한국식 전기 해무리굽에 가깝다.

이와 같이 유색, 굽 외면의 돌기, 기물 전체의 물레흔의 유무에 의해 III-1형식은 III-2형식보다 그 깎음새가 거칠다. III-2형식은 다음 단계인 4단계에서 주로 확인되는 비색에 가까운 녹회색을 띠고 있고 물레흔도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III-2형식이 III-1형식보다 양질의 것으로 생각된다.

4. 4단계

4단계는 3단계부터 나타나는 굽 안바닥에 나선형의 깎음새가 확인되고 굽 접지면의 최외단부에 깎은 흔적이 확인된다. 3단계와 달리 굽 외면에 돌대가 없고 내저원각이 모두 있다. 또한 태토는 정선되었고 밝은 회색을 띠며 유약은 비색에 가깝고 두텁고 고르게 시유되어 있고 빙열이 없는 것이 주로 확인된다. 또한 굽과 동체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ii의 특징을 가지며 굽 외면의 높이가 낮아지고 5단계에서 주로 확인되는 유약이 굽 안바닥, 굽 접지면에서 일부 확인되지 않는 것이 나타난다. 굽지름은 4.4cm, 굽 접지면의 너비 1.1cm 정도로 굽의 크기가 일정한 편이며 3단계보다 굽지름이 1cm 정도 작아

81) 圓光大學校 馬韓 百濟文化研究所, 앞의 책, 1985, p. 88의 (도판 47-b, 삽도 2-c).

진다. 여기에는 IV형식이 해당된다.

용운리 9호, 10호(10-I 층), 미륵사에서 출토된 IV형식에 해당되는 것은 내면에 음각국당초문이 시문되어 있다(삽도 2. 참조). 음각의 국당초문이 고려청자에 시문되기 시작한 시기는 11세기 전반⁸²⁾ 또는 11세기 말⁸³⁾로 있다.

그리고 4단계에서 주로 확인되는 비색은 중국 송나라 사신인 서공이 1123년에 고려를 방문하여 쓴 『宣和奉使高麗圖經』⁸⁴⁾ 권32에 ‘翡色’이라 표현되어 있다. 이것은 중국의 秘色과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고 그 색이 뛰어나 중국의 천하제일품의 하나로 선정되어 있는 것에서 비색을 절정은 12세기 경이라 말할 수 있다⁸⁵⁾. 그렇지만 해무리굽완 IV형식과 그 시기를 직접적으로 견주기는 어렵다.

5. 5단계

5단계는 3, 4단계의 굽 안바닥에 나선형의 깎음새가 확인되지만 굽과 동체의 경계가 거의 없이 밋밋하게 연결되는 iii의 특징을 가진다. 여기에는 V형식이 해당된다. 굽지름 4cm, 굽 접지면의 너비 0.6cm 정도로 굽의 크기가 일정한 것이 주로 확인되는데 4단계보다 굽의 크기가 작아진다. 이외의 태토, 유약의 특징은 4단계와 유사하다. 불국사 경내에서 출토된 해무리굽완 V형식과 유사한 굽의 형태를 가진 것에서 내면에 음각 국당초문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표 2. 참조). 음각문은 4단계에서부터 확인되는 시문기법이고 국당초문은 5단계를 지나서야 양각, 압출양각, 상감, 철화기법에서 모두 사용되는 듯하다. 고려청자에서 이와 같은 시문기법은 순청자 다음의 단계에 나타나는 것으로 고려중기에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⁸⁶⁾. 또한 1122년에 완공된 파주 혜음원지에서 이와 유사한 굽의 형태를 가진 완이 총 98점 중에 1점 확인되었다고 한다⁸⁷⁾. 이를 볼 때 12세기 전반까지도 계속해서 사용되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중국청자가 소개된 예에 의하면 내면 저부에 압출양각의 ‘大中二年’銘

82) 鄭良謨, 앞의 책, 1991, pp. 184-187.

83) 張南原, 「高麗中期 靑瓷의 研究」,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美術史學科 博士學位 請求論文, 2002, 92-93, 203.

84) 徐兢, 조동원 김대식 이경록 이상국 홍기표 공역, 『宣和奉使高麗圖經』, 2005, pp. 383-388.

85) 이희관, 앞의 논문, 2003, p. 21-22.

86) 張南原, 앞의 논문, 2002.

87) 姜京男, 「坡州 惠陰院址 出土 高麗靑磁 研究」, 檀國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碩士學位 請求論文, 2003, pp. 21-25.

(당 848년)이 시문된 완⁸⁸⁾이 있다. 또한 통일신라시대로 추정되는 고대도시유적에서⁸⁹⁾ 출토한 당-오대로 추정되는 음각문양⁹⁰⁾을 가진 청자편이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청자에서는 해무리굽완의 IV V 단계에 들어와서야 음각문이 시문되기 시작한다. 이를 통해 한국청자에 중국의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시간적 차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즉 해무리굽완의 굽을 깎는 방법과 유약 등의 변화가 있고 난 다음에야 음각의 시문기법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상과 같이 불국사 경내에서 출토된 고려청자 해무리굽완의 변천은 굽을 깎는 방법, 유약, 태토, 굽의 크기, 시문기법 등과 발굴조사 성과에 의해 5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굽 안바닥이 편평하고 내저곡면에 유약이 얇게 시유되는 특징이 중국 당~오대 청자와 가장 가까운 1단계, 중국 당~오대 청자에서 보이는 굽을 깎는 방법(굽 안바닥이 뾰족한 것)과 유약이 얇게 시유된 것이 계속해서 나타나며 이와 달리 내저원각, 유약이 두텁게 시유되는 것과 초벌구이편이 새롭게 나타나는 2단계, 중국 당~오대 청자에서 보이는 굽을 깎는 방법과 다른 굽 안바닥에 시계방향의 나선형의 깎은 흔적이 새롭게 나타나고 내저원각이 대부분 확인되는 3단계, 굽 안바닥에 나선형의 깎은 흔적이 계속해서 확인되며 내저원각이 모두 확인되고 유약은 비색을 띠며 두텁게 시유되는 4단계, 4단계의 특징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이와 달리 굽과 동체의 경계가 거의 없이 밋밋하게 연결되며 음각기법이 나타나는 5단계이다.

이와 같이 불국사 경내에서 출토한 해무리굽완의 변천에 따른 시기는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경주의 발굴성과에 의해 가장 이른 단계의 시기만을 상정해 두었고 그 외에는 연구성과를 토대로 하여 선후관계를 설정하였다.

한국 도자사에서 고려청자의 변천은 시문기법에 따른 기술적 차이를 중심으로 연구되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문기법이 없는 초기청자인 해무리굽완에서 1단계에서 5단계로의 변천은 고려중기에 성행하는 시문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변화라 생각된다.

88) (재)세계도자기엑스포 조선관요박물관, 『靑磁의 色 刑』, 2005, 도 249-250.

89)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경주대학교 박물관, 앞의 책, 1999.

90) 국립대구박물관, 앞의 책, 2004, p. 47.

VI. 맺음말

여기에서는 본고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 글에서의 한계와 경주지역의 발굴현장에서 출토되는 해무리굽완을 포함한 자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하겠다.

본 논문은 경주대학교박물관이 2004년도에 실시한 경주 불국사 경내 성보박물관 건립예정부지(이하 불국사 경내)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청자 해무리굽완 총 60점을 분석하여 그 변천과 제작시기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다.

해무리굽완은 한반도 청자발생의 연구에서 표지적인 유물로 다루어졌으나 해무리굽완이 변하고 있는 점에서 그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해무리굽완의 연구성과 가운데 형식 분류에 관계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불국사 경내에서 출토한 고려청자 해무리굽완을 기형, 굽을 짚는 방법, 유약, 태토, 번조 받침, 시문기법 등을 관찰하여 해무리굽완의 범주를 설정해 보았다. 이 결과 불국사 경내에서 출토한 해무리굽완은 비록 60점이지만 지금까지의 형식 분류한 범주를 포함할 수 있었다.

앞에서 언급한 기존의 분류기준인 내저원각의 유무와 굽의 크기와 제작기법적 측면인 굽을 짚는 방법과 유약, 태토색 등을 근거로 불국사 경내 출토 해무리굽완은 5형식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또한 불국사 경내에서 출토된 고려청자 해무리굽완은 굽을 짚는 방법, 유약, 태토, 굽의 크기, 시문기법 등과 발굴조사 성과에 의해 5단계로 변천한다고 생각했다.

1단계는 굽 안바닥이 편평하고 내저곡면에 유약이 얇게 시유되는 것에 의해 중국 당~오대 청자와 가장 가까운 것이 해당된다.

2단계는 중국 당~오대 청자에서 보이는 유약이 얇게 시유된 것이 계속해서 나타나며 1단계와 달리 굽 안바닥이 뽕족한 것, 내저원각, 유약이 두텁게 시유되는 것이 나타난다.

3단계는 중국 당~오대 청자에서 보이는 굽을 짚는 방법과 다르다. 그것은 굽 안바닥에 시계방향의 나선형으로 돌아가는 얇은 요철(凹凸)의 짚은 흔적과 내저원각이 대부분 확인되는 것이다.

4단계는 굽 안바닥에 나선형의 짚은 흔적이 계속해서 확인된다. 그리고 내저원각이 모두 확인되고 유약은 두텁게 시유되며 비색에 가까워진다.

5단계는 4단계의 특징이 계속해서 나타난다. 단지 굽과 동체의 경계가 거의 없이 뭉뚱하게 연결되고 음각문양이 나타난다.

지금까지 경주지역의 신라시대 도시 유적의 발굴성과와 불국사 경내 발굴조

사에 의한 유구 및 유물을 참고할 때, 가장 이른 단계인 1단계에 해당하는 해무리굽완은 청자 발생시기에서 통일신라로 보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있다.

그 이유는 가장 이른 단계인 1단계에 해당하는 해무리굽완은 경주의 신라 도시유적 발굴성과를 토대로 할 때 신라토기와 공반된 예가 없고 불국사 경내에서 당대 옥벽저완이 출토되지 않았으며 또한 불국사 경내 유적의 최하층에서 고려시대 유물이 출토된 것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장 이른 단계에 해당하는 해무리굽완은 고려시대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이 글에 있어서의 한계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하겠다.

첫째, 불국사 경내 출토 해무리굽완은 완형 1점, 도상복원 가능한 3점을 제외하고는 편(片)의 상태이므로 굽의 크기에서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이외의 속성에도 한계가 있다.

둘째, 본고는 해무리굽완의 형식학적 연구에 주목하여 연구성과를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자 발생시기의 근거로 해무리굽완의 형식 분류를 행하지 않은 연구도 있었다. 이와 같은 점에 의해 불국사 경내 출토 해무리굽완의 변천 및 시기설정에 있어서는 각 연구자의 형식 분류와 편년을 반드시 일치되게 참고하지 않았다. 즉 형식 분류는 國立中央博物館, 崔 健의 것을 주로 참고하였고 편년적 측면은 尹龍二, 吉良文男의 것을 주로 참고하였다.

셋째, 표 4는 사진과 실측도만을 관찰한 것으로, 굽 안바닥과 굽 접지면의 최외단부의 깎음새를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넷째, 불국사 경내 출토 해무리굽완의 형식 분류와 변천에서는 전축요 출토품과 토축요 출토품을 구분하지 못하였다.

다섯째, 해무리굽완과 대표적인 세트관계로 있는 화형접시(꽃접시)는 불국사 경내 조사구역에서는 확인되지 않아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다.

여섯째, 해무리굽완의 변천에 있어서 시기를 설정할 수 있는 절대연대 자료는 없고 간접적인 자료로 원산리 2호요지 출토 ‘淳化三年’銘 高杯(992년)와 불국사 경내 장판의 선문타날 암키와(경주에서 통일신라시대에는 제작되지 않음), 용계리 출토 ‘太平壬戌’명(1022년) 암키와편이 있다.

일곱째, 불국사 경내에서 출토된 가장 이른 단계에 해당하는 해무리굽완이 통일신라시대에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는데 있어 신라토기와 중국 당대 옥벽저가 공반된 것을 예를 들었다. 즉 신라토기와 해무리굽완이 공반된 예가 아직까지 없다는 말과도 상통한다. 또한 불국사 경내에서는 중국 당대의 옥벽저완이 출토되지 않은 점, 이 유적의 최초의 층에서 고려시대의 유물이 출토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경주에서는 아마도 해무리굽완이 고려시대가 되

어서야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여 두었다. 이것은 모두 지금까지 경주지역의 발굴성과를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굴성과를 기대해 보아야 하겠다.

여덟째, 1단계로 둔 것은 중국 당과 오대의 청자에서 나타나는 요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시기는 직접적으로 연결하기 어렵다. 이것은 중국학자의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기에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끝으로 경주에서의 해무리굽완을 포함한 자기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하겠다. 경주는 신라 천년의 수도이고 고려초기의 동경으로 있다. 앞서 살펴본 해무리굽완의 변천을 통해 통일신라시대의 경주에서는 중국의 당대 옥벽저완이 확인되고, 고려초기의 동경일 때에는 고려청자 해무리굽완이 확인된다. 게다가 이 해무리굽완은 고려 전(全) 시기에 걸쳐 제작되지 않고 12세기 전반 이전에 주로 제작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경주의 발굴현장에서의 청자 해무리굽완의 보고는 그 당시 경주의 정치사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실증적인 유물 중 하나로 판단된다.

또한 경주의 발굴조사에서 고려기와가 출토되는 곳에서는 고려청자가 확인된다. 기와는 지금까지 궁성지 사원지 성지 등의 일부 특정한 장소에서만 출토되고 있는 점에서 당시 특정계급만이 향유하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⁹¹⁾. 이와 같은 점에서 고려청자 또한 지배계층의 소유물이라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의 발굴현장에서 자기의 보고는 중요하다.

91) 上原眞人, 「平安貴族は瓦葺邸宅に住んでいなかった-平安京右京一條三坊九町出土瓦をめぐって」 『歴史學と考古學』, 高井悌三郎先生喜壽記念論集, 1988.

龜田修一, 「朝鮮半島からみた枚方の寺院造營と瓦生産」 『繼體大王と渡來人』, 1998.

趙成允, 「慶州 出土 新羅 평기와의 編年 試案」, 慶州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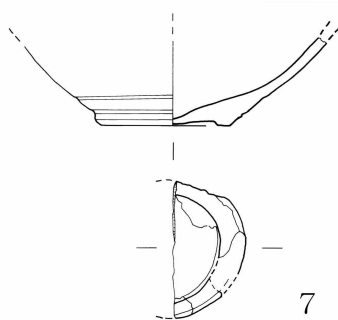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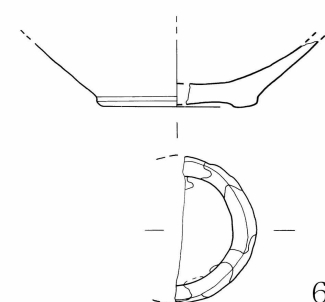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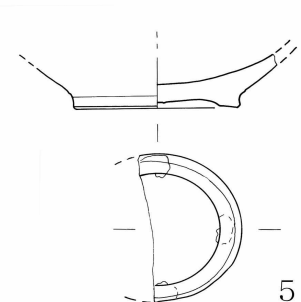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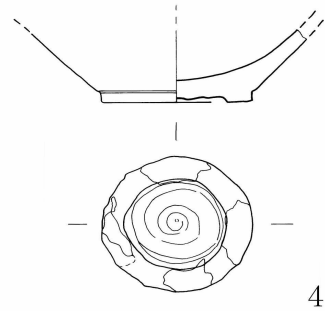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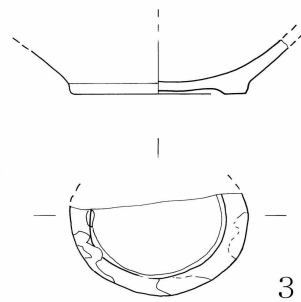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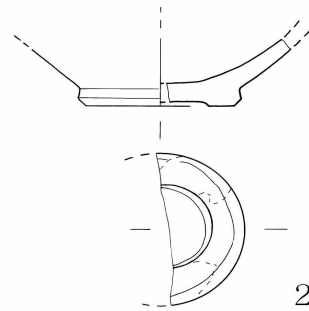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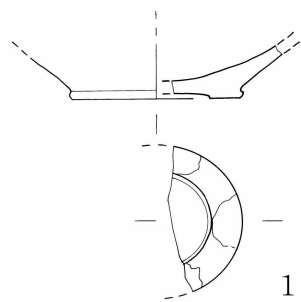
참 고 문 헌

- 姜京男, 「坡州 惠陰院址 出土 高麗青磁 研究」, 檀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請求論文, 2003.
- 姜敬淑, 「慶州 拜里出土 土器骨壺 小考」 『三佛金元龍教授 停年退任紀念論叢Ⅱ』, 1987.
- _____, 「우리나라 출토 해무리굽 중국도자」 『韓國 磁器 發生에 關한 諸問題』 제 1 회 東垣기념학술대회, 韓國古美術研究所, 1990.
- _____, 「한국도자사 연구의 문제와 방향」 『考古美術史論』 1, 忠北大學校考古美術史學科, 1990.
- _____, 「고려전기 도자의 대중 교섭」 『高麗 美術의 對外交渉』, 제 8회 전국미술사학대회, 2004.
- 강진청자박물관, 『對外交渉으로 본 高麗青磁』, 2003.
- _____, 『강진청자 연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제 8회 고려청자학술세미나. 2006.
- 高裕燮, 『高裕燮全集 4』, 通文館, 1993.
- 高興郡 高興文化院, 全國文化院聯合會 全羅南道支會, 『高興 雲垞里 陶瓷文化의 性格』, 2005.
- 具本萬, 「驪州 中岩里 가마터 出土 高麗白磁 研究」, 檀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請求論文, 2002.
- 龜田修一, 「朝鮮半島からみた枚方の寺院造營と瓦生産」 『繼体大王と渡來人』, 1998.
- 京畿道博物館, 『驪州 中岩里 高麗白磁窯址』, 2004.
- 慶州大學校博物館, 『浦項 芝谷洞遺蹟』, 2003.
- _____, 『慶州 佛國寺 境內 聖寶博物館 建立豫定敷地 發掘調査報告書』, 2006.
- 龜井明德, 「當代玉壁高垵の出現と消滅時期の考察」, 『貿易陶磁研究』, 13, 日本貿易陶磁研究會, 1993.
- 국립경주박물관, 『안압지관』, 2002.
- 국립대구박물관, 『우리 문화속의 中國 陶磁器』, 2004.
-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新羅王京』, 2001.
- _____, 『慶州 西部洞 19番地 遺蹟』, 2003.
- _____, 『慶州 天官寺址 發掘調査報告書』, 2004.
- _____, 『慶州 隍城洞 石室墳 906-5番地』, 2005.
- _____, 『芬皇寺發掘調査報告書 I』,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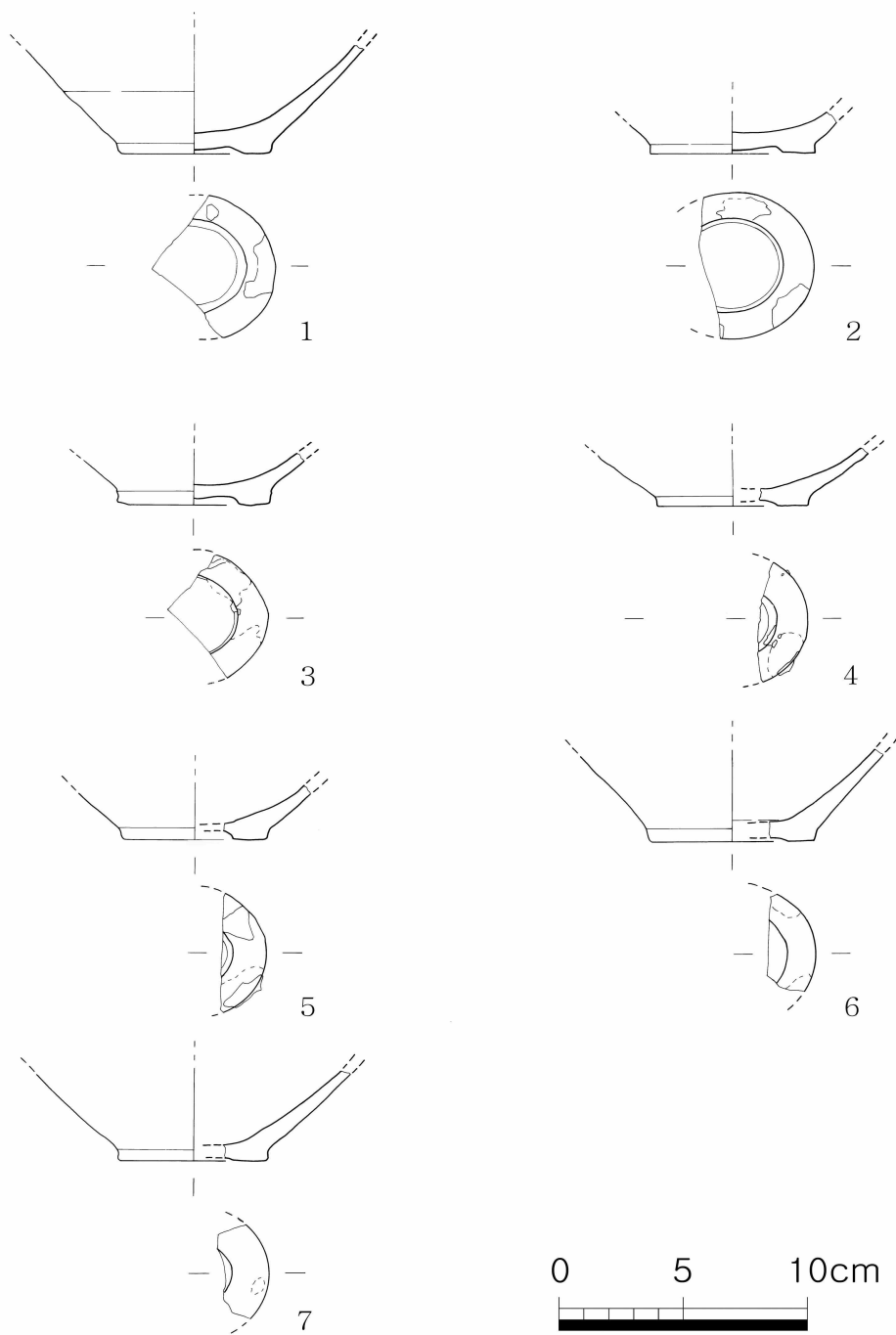
- 國立夫餘文化財研究所, 『彌勒寺』遺蹟發掘調查報告書Ⅱ, 1996.
- 국립전주박물관, 『高敞郡의 역사문화』, 1999.
- 國立中央博物館, 『康津龍雲里靑磁窯址發掘調查報告書』, 1997.
- 國立海洋遺物展示館, 『群山 十二東波島 海底遺蹟』, 2005.
- 吉岡完祐, 「越州窯系靑磁の形態分類から見た高麗靑磁との比較」 『ナ郎川一』福岡市早良平野 石丸 古川遺跡, 住宅 都市整備公團, 1982.
- 吉良文男, 「朝鮮半島の初期靑磁」 『高麗靑瓷の誕生』,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2004.
- _____, 「高麗靑磁史への一時點」 『東洋陶磁史』, 東洋陶磁學會, 2002.
- _____, 「磁器 發生問題와 日本에서의 研究의 過去와 現狀」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의 재조명』, 용인시 용인문화원, 용인시사편찬위원회, 2001.
- 김구근, 「大邱近郊의 初期靑磁窯址에 대하여」 『벽돌가마와 초기청자』海剛陶磁美術館, 2000.
- 金英美, 「越窯研究」, 北京大學博士研究生學位論文, 2002.
- 金英媛, 「統一新羅時代 鉛釉의 發達과 磁器의 出現」 『美術資料』第六十二號, 國立中央博物館, 1999.
- 김영진, 『도자기가마터발굴보고』, 백산자료원, 2003.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慶州대학교 박물관, 「경주시 동천동 7B/L 내 도시유적 발굴조사 결과 보고서」, 1999.
-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皇龍寺 遺蹟發掘調查報告書Ⅰ』, 1984.
- 朴淳發, 「唐代 玉壁底의 變遷과 韓半島 해무리굽 磁器의 出現」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의 재조명』, 용인시 용인문화원, 용인시사편찬위원회, 2001.
- 방병선, 「羅末麗初 韓中陶瓷交流」 『韓國史學報』제23호, 2006.
- 卞南柱, 『韓國 瓷器의 發生과 그 系統에 관한 研究』, 木浦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碩士學位論文, 2002.
- 山本信夫, 「日本における初期高麗靑磁について-大宰府出土例を中心として-」 『貿易陶磁研究』第5, 日本貿易陶磁研究會, 1985.
- 上原眞人, 「平安貴族は瓦葺邸宅に住んでいなかった-平安京右京一條三坊九町出土瓦をめぐって」 『歴史學と考古學』, 高井悌三郎先生喜壽記念論集, 1988.
- 徐兢, 조동원 김대식 이경록 이상국 홍기표 공역, 『宣和奉使高麗圖經』, 2005.
- 石秉哲, 「統一新羅 慶州地域 火葬墓 研究」, 慶州大學校 大學院 文學碩士學位論文, 2006.
- _____, 「경주지역 新羅 火葬墓에 대하여」, 『新羅史學報』 제 9호, 新羅史學會, 2007.
- (재)세계도자기엑스포2001경기도, 『동북아도자교류전』, 2001.
- (재)세계도자기엑스포 조선관요박물관, 『靑磁의 色과 形』, 2005 제 3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 2005.

- 宋應星, 崔炆 註譯, 『天工開物』, 傳統文化社, 1997.
- 永原慶二 山口啓二, 『窯業』第四卷 講座 日本技術の社會史, 日本評論社, 1984.
- 尹龍二, 「高麗靑瓷의 起源에 관한 諸問題」 『古美術』, 한국고미술협회, 1991.
- 尹龍二, 「高麗靑瓷의 起源과 發展」 『韓國美術史의 現況』, 藝耕, 1992.
- 圓光大學校 馬韓 百濟文化研究所, 『高敞雅山댐 水沒地區發掘調査報告書』, 1985.
- 圓光大學校博物館, 『博物館圖錄』, 1996.
- 李喜寬, 「한국 초기청자에 있어서 해무리굽완 문제의 재검토」 『제45회 전국역사학대회』, 2002.
- _____, 「高麗 翡色靑磁의 出現과 초벌구이(素燒)」 『對外交渉으로 본 高麗靑磁』, 강진청자박물관, 2003.
- _____, 「高敞郡 龍溪里窯와 “太平壬戌”銘 瓦片 및 博築窯 문제」 『美術史學研究』 244, 韓國美術史學會, 2004.
- _____, 「韓國 靑磁製作의 開始時期問題에 대한 諸說의 檢討」 『白山學報』第70號, 2004.
- 李鍾玟, 「高麗靑瓷 釉色의 時代的 變遷」 『고려의 색, 청자의 빛』, 1999.
- _____, 「韓國의 初期靑磁 研究」, 弘益大學校 大學院 美術史學科 博士學位 請求論文, 2002.
- _____, 「南部地域 初期靑磁의 系統과 特徵」 『미술사연구』 16, 미술사연구회.
- _____, 「靑磁窯址 發掘調査の成果と檢討」 『考古學論集』第6集, 考古學を學ぶ會, 2005.
- _____, 「11-12세기 粗質靑磁의 계통과 편년」 『美術史學』 18,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04.
- 李熙濬, 「慶州 錫杖洞 東國大 構內出土 藏骨器」 『嶺南考古學』 11, 嶺南考古學會, 1992.
- 張南原, 「高麗中期 靑瓷의 研究」,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美術史學科 博士學位 請求論文, 2002.
- _____, 「고려시대 陶瓷의 연구현황과 과제」 『고려시대의 고고학』, 서울경기고고학회, 2006.
- 鄭良謨, 『韓國의 陶磁器』, 1991.
- 田勝昌, 「龍仁 西里窯址 出土遺物 檢討」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의 재조명』, 용인시 용인문화원, 용인시사편찬위원회, 2001.
- 趙成允, 「慶州 出土 新羅 평기와의 編年 試案」, 慶州大學校 大學院 文化財學科 碩士學位 請求論文, 2000.
- _____, 「新羅 長板 打捺紋樣 평기와의 慶州 制作與否에 대하여」 『梨花史學研究』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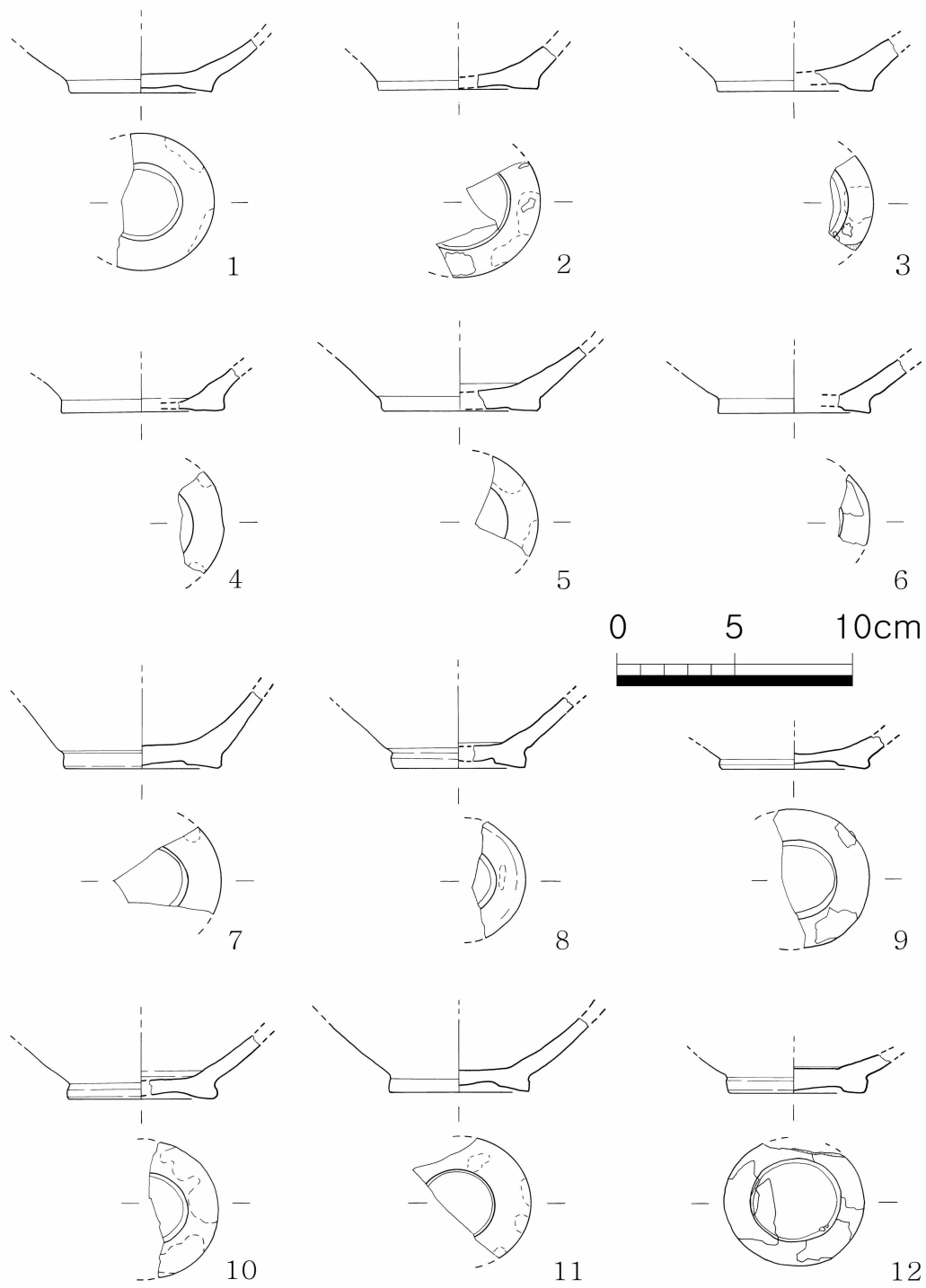
- 30輯, 2003, pp. 44-65.
- 曹銀精, 「韓半島 南西部 地域 土築窯 研究」, 弘益大學校 大學院 美術史學科 碩士學位
請求論文, 2003.
- 忠南大學校博物館, 『聖住寺』, 1998.
- 忠南大學校百濟研究所 韓國高速鐵道建設公團, 『永同 稽山里遺蹟』, 2002.
- 崔 健, 「高麗青磁發生에 關한 背景的 考察」 『古文化』 31, 韓國大學博物館協會,
1987.
- _____, 「韓國初期青磁の分類と變遷- 窯址出土を中心して」 『東洋陶磁』 22(1992-1994),
東洋陶磁學會.
- _____, 「高麗青磁의 發生問題- 高麗青磁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나」 『美術史論壇』 1,
韓國美術研究所, 1995.
- _____, 「青磁窯址의 系譜와 展開」 『미술사연구』 제12호, 미술사연구회, 1998.
- _____, 「라말려초 한국 자요(磁窯)의 계열과 변천」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의 재조
명』, 용인시 용인문화원, 용인시사편찬위원회, 2001.
- _____, 「初期青磁 編年問題 再論」 『美術史學研究』 250 251, 2006.
- 韓國文化財保護財團, 『慶州 北門路 王京遺蹟』, 2003.
- 海剛陶磁美術館, 『康津의 靑磁窯址』, 1992.
- _____, 『고려의 색, 청자의 빛』, 1999.
- _____, 『벽돌가마와 초기청자』, 2000.
- _____, 『芳山大窯』, 2000.
- 許興植, 「佛教思想史에서 본 고대의 起點과 終點」 『古代와 中世 韓國史의 時代區
分』, 韓國古代史研究會, 1995.
- 湖巖美術館, 『龍仁西里高麗白磁窯 發掘調査報告書 I』, 1987.
- _____, 『龍仁西里高麗白磁窯 發掘調査報告書 II』,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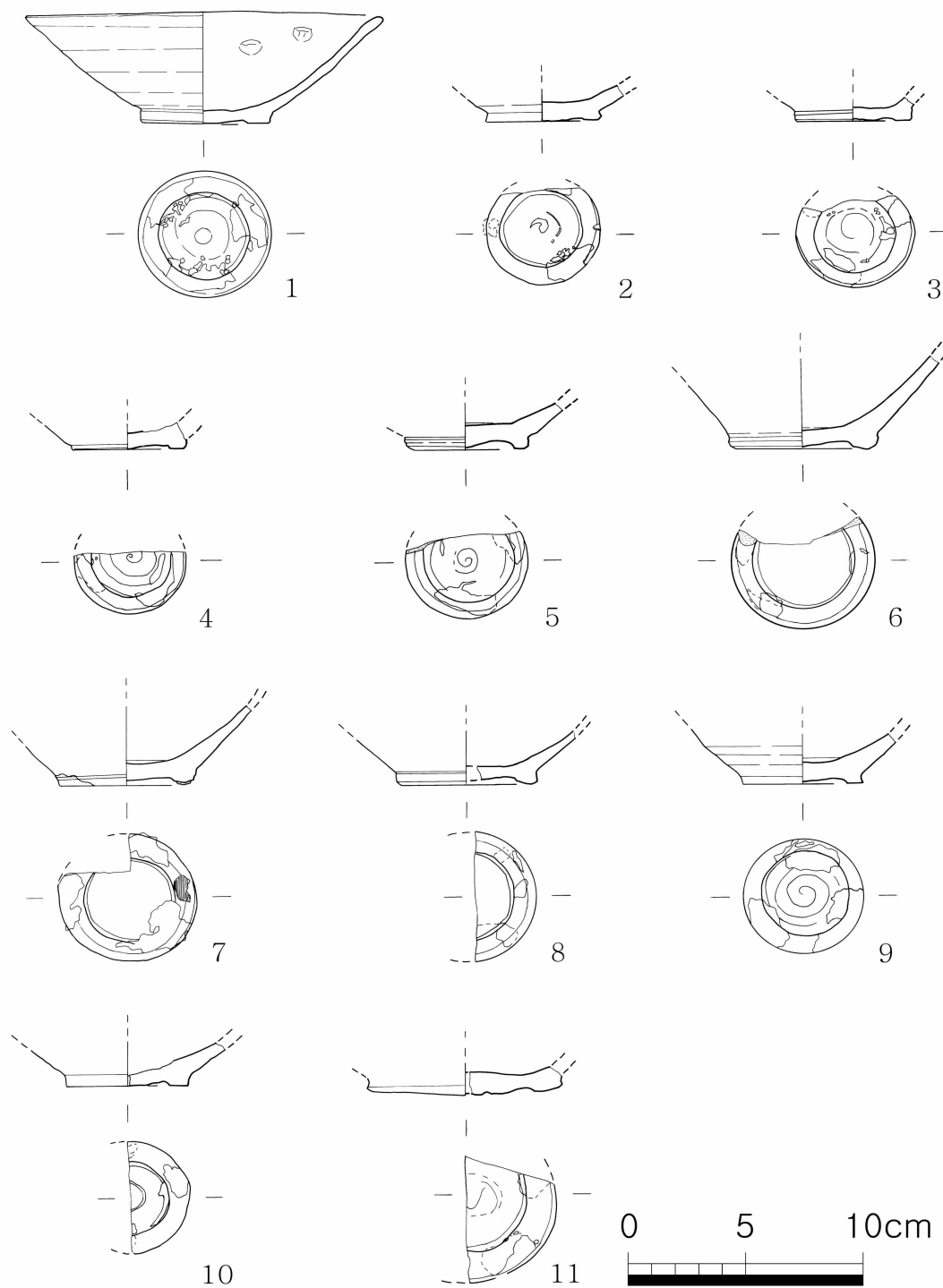
도면 1. 불국사 경내 출토 고려청자 해무리굽완 I 형식(1~7: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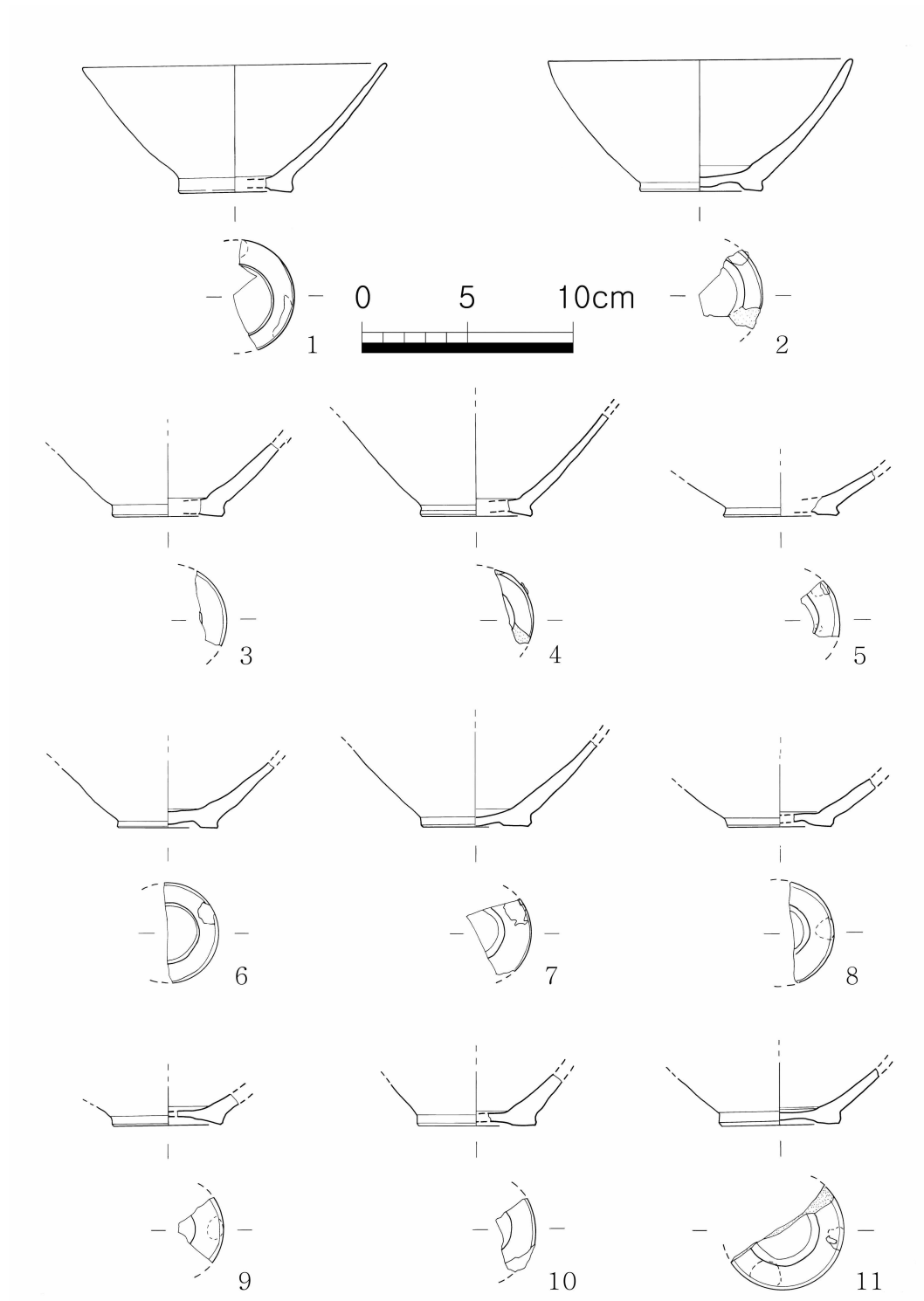
도면 2. 불국사 경내 출토 고려청자 해무리굽완 II-1형식(1~7: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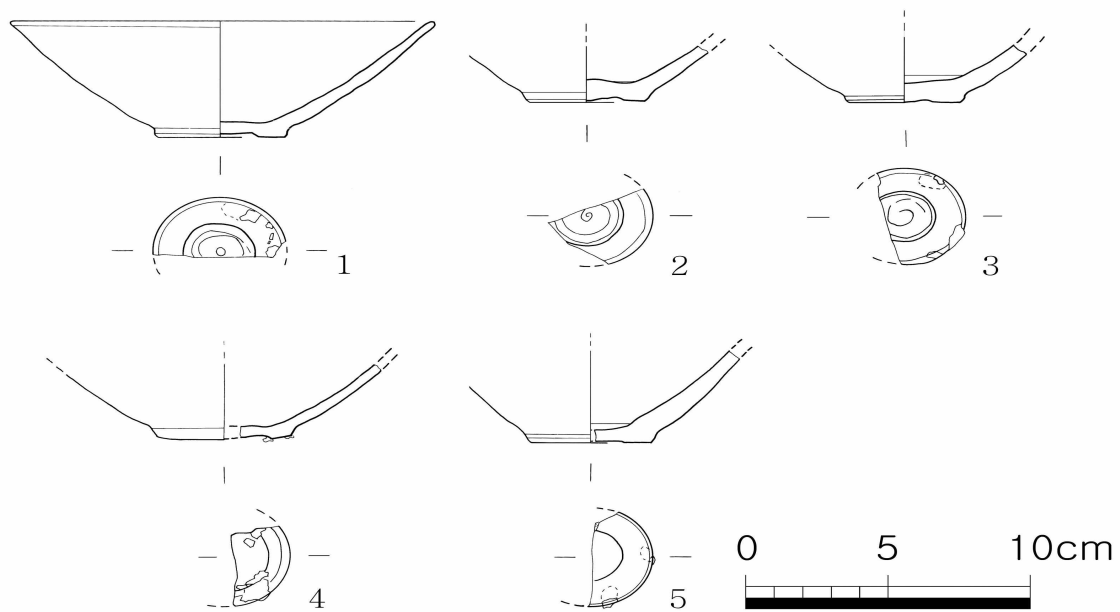
도면 3. 불국사 경내 출토 고려청자 해무리굽완 II-2형식(1~1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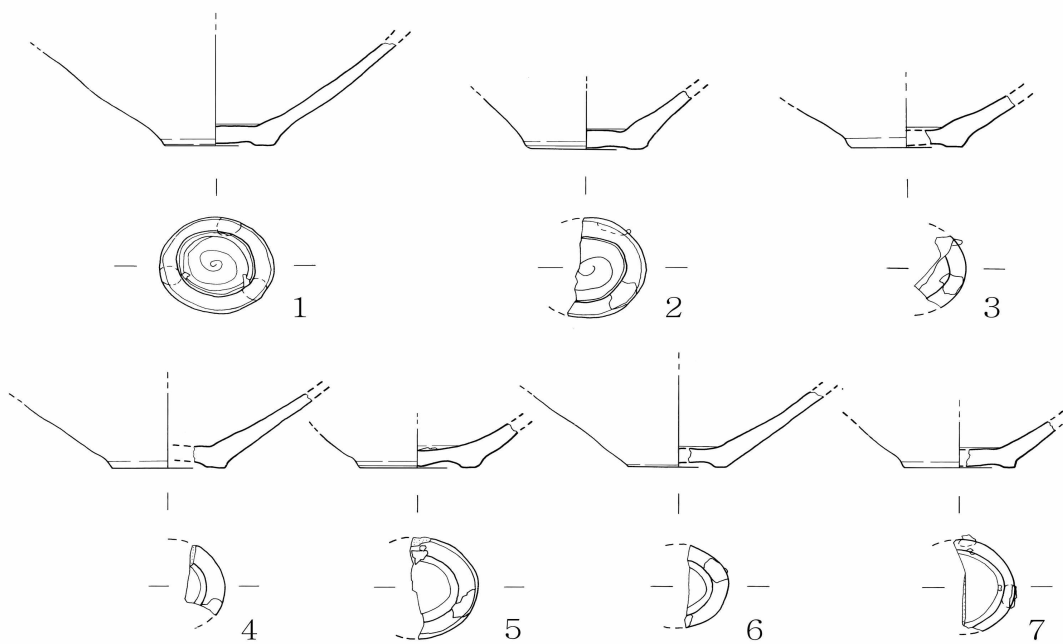
도면 4. 불국사 경내 출토 고려청자 해무리굽완 III-1형식(1~11:1/3)



도면 5. 불국사 경내 출토 고려청자 해무리굽완 III-2형식(1~11:1/3)



도면 6. 불국사 경내 출토 고려청자 해무리굽완 IV형식(1~5:1/3)



도면 7. 불국사 경내 출토 고려청자 해무리굽완 V형식(1~7:1/3)



내면



외면



1의 세부

도판 1. 불국사 경내 출토 고려청자 해무리굽완 I 형식(1~7)



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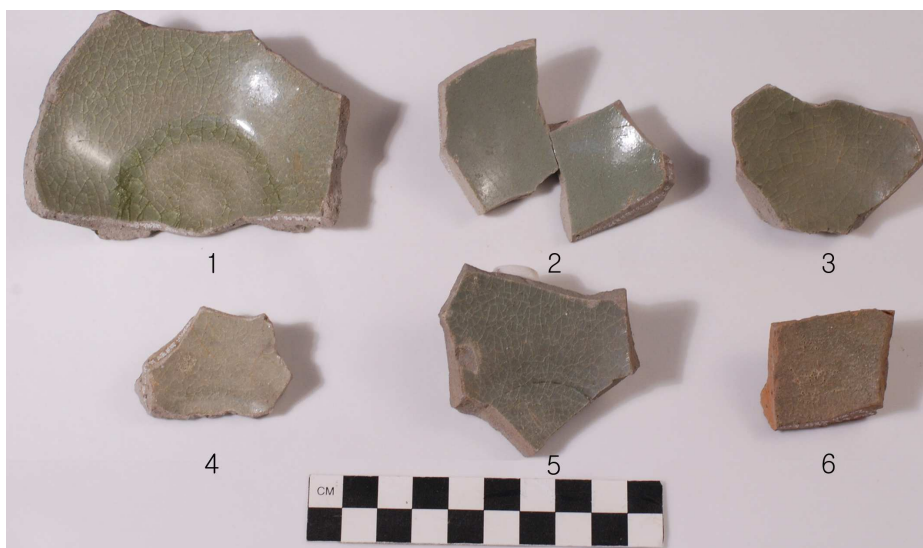


외면



1의 세부

도판 2. 불국사 경내 출토 고려청자 해무리굽완 II-1형식(1~7)



내면



외면



1의 세부

도판 3. 불국사 경내 출토 고려청자 해무리굽완 II-2형식(1~6)



내면



외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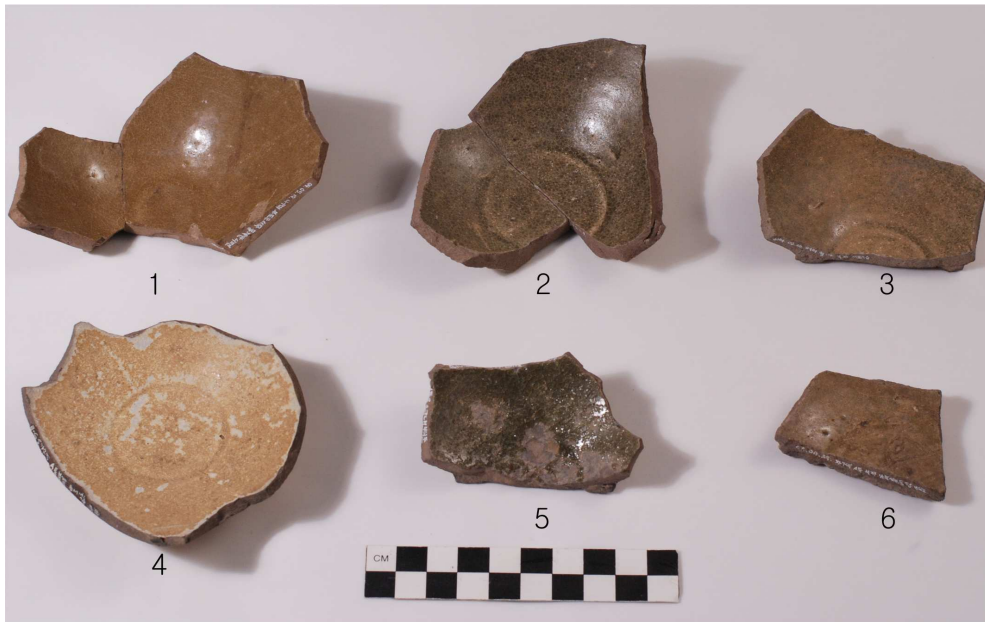


6의 세부

도판 4. 불국사 경내 출토 고려청자 해무리굽완 II-2(1~6)



도판 5. 불국사 경내 출토 고려청자 해무리굽완 III-1형식(1~5)



내면



외면

도판 6. 불국사 경내 출토 고려청자 해무리굽완 III-1형식(1~6)



내면

1



외면



내면

2



외면



내면



외면

도판 7. 불국사 경내 출토 고려청자 해무리굽완 III-2형식(1~6)



내면



외면

도판 8. 불국사 경내 출토 고려청자 해무리굽완 III-2형식(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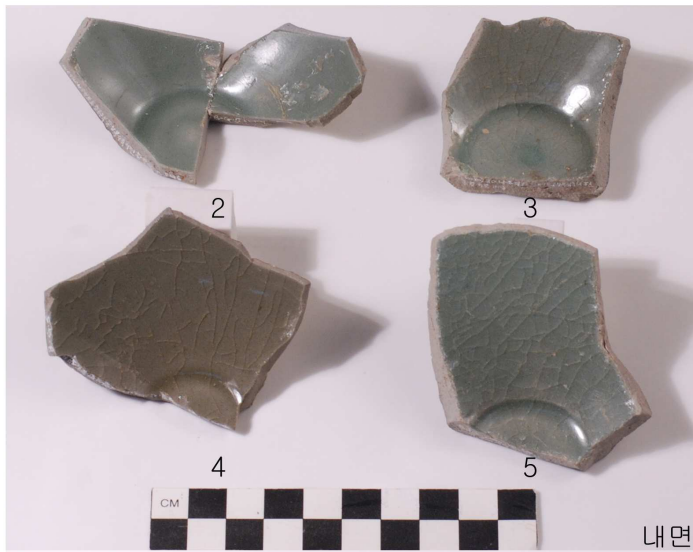


내면

1



외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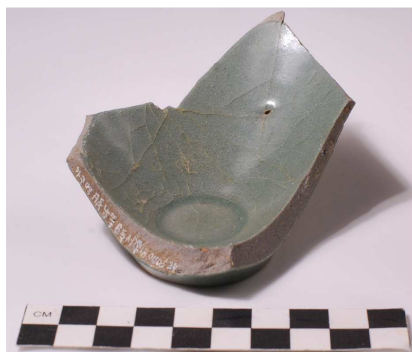


내면



외면

도판 9. 불국사 경내 출토 고려청자 해무리굽완 IV형식(1~5)



1의 세부

도판 10. 불국사 경내 출토 고려청자 해무리굽완 V형식(1~7)

표 4. 초기청자요지 출토 해무리굽완 형식분류 현황표

조사자 분류	필자 분류	유적지명	전거	출토/ 보고량	비고
I 유형 해무리굽m	I	강진 용운리 제 63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Y-63 ⑩)	4	
1식	I	시흥 방산요	해강도자미술관, 『방산대요』, 2001, (사진 66)	279	
2식	I	시흥 방산요	해강도자미술관, 『방산대요』, 2001, (사진 67)	389	
2식	I	시흥 방산요	해강도자미술관, 『방산대요』, 2001, (사진 68)	228	
선해무리굽완	I	용인 서리 요지 1기층	호암미술관, 『용인서리고려백자요』, 2003, (사진 258-①)	22	
해무리완	I	용인 서리 요지 2기층	호암미술관, 『용인서리고려백자요』, 2003, (사진 258-②)	26	
I 유형 해무리굽m	I	강진 계율리 제 55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K-55 ⑤)	3	
I 유형 해무리굽l	I	강진 삼흥리 제 2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H-02 ②)	6	
I 유형 해무리굽m	I	강진 삼흥리 제 3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H-03 ②)	3	
햇무리굽 I , 준해무리굽	I	강진 용운리 9호 요지	국립중앙박물관, 『강진용운리청자요지발굴조사보고서』, 1997, (도판 14)	14	
II 유형 해무리굽m	II-1	강진 용운리 제 28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Y-28 ⑦)	2	희미한 원각
I 유형 해무리굽m	II-1	강진 용운리 제 63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Y-63 ⑩)	1	희미한 원각
I 유형 해무리굽l	II-1	강진 삼흥리 제 4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H-04 ③)	1	곡면
II 유형 해무리굽l	II-1	강진 용운리 제 50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Y-50 ④)	45	
2식	II-1	시흥 방산요	해강도자미술관, 『방산대요』, 2001, (사진 69)	37	
내지원각식 해무리굽완	II-1	해남 신덕리 C호 요지	목포대학교박물관, 『해남의 청자요지』, 2004, (사진 30-①)	1	
I 유형 해무리굽l	II-1	강진 용운리 제 9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Y-09 ⑫)	6	화륜형
II 유형 해무리굽n	II-1	강진 용운리 제 36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Y-36 ⑥)	1	원각
II 유형 해무리굽n	II-1	강진 용운리 제 41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Y-41 ④)	7	원각
I 유형 해무리굽l	II-2	강진 삼흥리 제 3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H-03 ③)	5	곡면
II 유형 해무리굽l	II-2	강진 용운리 제 52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Y-52 ④)	2	
일흔저굽 청자완	II-2	고창 용계리 요지	원광대학교 마한 백제문화연구소, 『고창 아산댐 수몰지구발굴조사보고서』, 1985, (도판 47-a)	1	
일흔저굽 청자완	II-2	고창 용계리 요지	원광대학교 마한 백제문화연구소, 『고창 아산댐 수몰지구발굴조사보고서』, 1985, (도판 58-a)	1	
I 유형 해무리굽l	II-2	강진 용운리 제 9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Y-09 ⑦)	1	화륜형
II 유형 해무리굽o	II-2	강진 용운리 제 36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Y-36 ⑦)	6	원각
II 유형 해무리굽n	III	강진 삼흥리 제 1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H-01 ③)	12	
II 유형 해무리굽n	III	강진 삼흥리 제 2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H-02 ③)	7	
A-b	III	강진 삼흥리 요지	(재)호남문화재연구원, 『강진 삼흥리요지 I』, 2004, (유물번호 86, 219, 220)	3	

A-c	III	강진 삼흥리 요지	(재)호남문화재연구원, 『강진 삼흥리요지 I』, 2004, (유물번호 218)	1	
I-A-1	III	강진 삼흥리 요지	(재)호남문화재연구원, 『강진 삼흥리요지 II』, 2004, (사진 22)	24	
I-C-2	III	강진 삼흥리 요지	(재)호남문화재연구원, 『강진 삼흥리요지 II』, 2004, (사진 26)	1	
I-E-2	III	강진 삼흥리 요지	(재)호남문화재연구원, 『강진 삼흥리요지 II』, 2004, (사진 30)	88	
햇무리굽 II	III	강진 용운리 9호 요지	국립중앙박물관, 『강진용운리청자요지발굴조사보고서』, 1997.(도판 15)	15	
II 유형 해무리굽n	III	강진 용운리 제 16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Y-16 ⑦)		
II 유형 해무리굽n	III	강진 용운리 제 19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Y-19 ③)	10	
II 유형 해무리굽n	III	강진 용운리 제 42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Y-42 ②)	2	
II 유형 해무리굽n	III	강진 용운리 제 46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Y-46 ③)	1	
II 유형 해무리굽m	III	강진 용운리 제 47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Y-47 ②)	6	
II 유형 해무리굽p	III	강진 용운리 제 49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Y-49 ⑥)	16	
II 유형 해무리굽n	III	강진 용운리 제 52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Y-52 ⑤, ⑥)	62	
II 유형 해무리굽n	III	강진 용운리 제 53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Y-53 ⑤)	35	
II 유형 해무리굽n	III	강진 용운리 제 55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Y-55 ②)	4	
1식	III	시흥 방산요	해강도자미술관, 『방산대요』, 2001, (사진 64)	39	
2식	III	시흥 방산요	해강도자미술관, 『방산대요』, 2001, (사진 65)	77	
내저원각식 해무리굽완	III	해남 신덕리 21호 요지	목포대학교박물관, 『해남의 청자요지』, 2004, (사진 15-③)	1	
내저원각식 해무리굽완	III	해남 신덕리 32호 요지	목포대학교박물관, 『해남의 청자요지』, 2004, (사진 22-①)	1	
내저원각식 해무리굽완	III	해남 신덕리 34호 요지	목포대학교박물관, 『해남의 청자요지』, 2004, (사진 24-③)	1	
내저곡면식 해무리굽완	III	해남 신덕리 34호 요지	목포대학교박물관, 『해남의 청자요지』, 2004, (사진 24-①)	1	
내저원각식 해무리굽완	III	해남 신덕리 K호 요지	목포대학교박물관, 『해남의 청자요지』, 2004, (사진 34-①)	1	
내저원각식 해무리굽완	III	해남 신덕리 K호 요지	목포대학교박물관, 『해남의 청자요지』, 2004, (사진 34-④)	1	
A-c	III-1	강진 삼흥리 요지	(재)호남문화재연구원, 『강진 삼흥리요지 I』, 2004, (유물번호 217)	1	
B-c	III-1	강진 삼흥리 요지	(재)호남문화재연구원, 『강진 삼흥리요지 I』, 2004, (유물번호 224)	1	
일흔저굽 청자완	III-1	고창 용계리 요지	원광대학교 마한 백제문화연구소, 『고창 아산댐 수물지구발굴조사보고서』, 1985, (도판 47-b)	1	
I 유형 해무리굽l	III-1	강진 용운리 제 9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Y-09-②-⑨)	4	
I II 유형	III-1	칠곡 창평리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벽돌가마와 초기청자』, 2000, (도판 8의 세 번째, 9-10)	4	

I 유형	III-1	대구 진인리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벽돌가마와 초기청자』, 2000, (도판 23-25)	4	
A-c	III-2	강진 삼흥리요지	(재)호남문화재연구원, 『강진 삼흥리요지 I』, 2004, (유물번호 172, 214, 215)	3	
B-c	III-2	강진 삼흥리요지	(재)호남문화재연구원, 『강진 삼흥리요지 I』, 2004, (유물번호 223)	1	
B-b	III-2	강진 삼흥리요지	(재)호남문화재연구원, 『강진 삼흥리요지 I』, 2004, (유물번호 225, 228)	2	
일흔저급 청자완	III-2	고창 용계리 요지	원광대학교 마한 백제문화연구소, 『고창 아산댐 수몰지구발굴조사보고서』, 1985, (도판 57-f)	1	
III유형 해무리굽n	III-2	강진 계율리 제 55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K-55 ⑦)	2	
II 유형 해무리굽n	III-2	강진 용운리 제 13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Y-13 ②)	8	
II 유형 해무리굽n	III-2	강진 용운리 제 15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Y-15 ③)		
II 유형 해무리굽n	III-2	강진 용운리 제 18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Y-18 ⑥)	8	
II 유형 해무리굽o	III-2	강진 용운리 제 18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Y-18 ⑦)	8	
II 유형 해무리굽n	III-2	강진 용운리 제 27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Y-27 ?)	22	
II 유형 해무리굽n	III-2	강진 용운리 제 28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Y-28 ⑧)	17	
II 유형 해무리굽n	III-2	강진 용운리 제 29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Y-29 ③)	10	
II 유형 해무리굽n	III-2	강진 용운리 제 32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Y-32 ④)	20	
II 유형 해무리굽n	III-2	강진 용운리 제 37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Y-37 ④)	14	
II 유형 해무리굽o	III-2	강진 용운리 제 41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Y-41 ⑤)	3	
II 유형 해무리굽n	III-2	강진 용운리 제 45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Y-45 ③)	5	
II 유형 해무리굽n	III-2	강진 용운리 제 50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Y-50 ⑤)	44	
II 유형 해무리굽o	III-2	강진 용운리 제 50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Y-50 ⑥)	17	
II 유형 해무리굽o	IV	강진 계율리 제 19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K-19 ③, ④)	5	
III 유형 해무리굽o	IV	강진 계율리 제 20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K-20 ⑦, ⑧)	6	
II 유형 해무리굽o	IV	강진 계율리 제 6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K-06 ②)	2	
II 유형 해무리굽o	IV	강진 사당리 제 11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S-11 ②)	5	
III 유형 해무리굽p	IV	강진 사당리 제 12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S-12 ④, ⑤)	2	
II 유형 해무리굽o	IV	강진 사당리 제 24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S-24 ④)	4	
II 유형 해무리굽o	IV	강진 사당리 제 35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S-35 ④)	5	
II 유형 해무리굽p	IV	강진 삼흥리 제 1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H-01 ④)	7	
A-c	IV	강진 삼흥리 요지	(재)호남문화재연구원, 『강진 삼흥리요지 I』, 2004, (유물번호 216)	1	
A-b	IV	강진 삼흥리 요지	(재)호남문화재연구원, 『강진 삼흥리요지 I』, 2004, (유물번호 221, 222)	2	
B-b	IV	강진 삼흥리 요지	(재)호남문화재연구원, 『강진 삼흥리요지 I』, 2004, (유물번호 227, 229)	2	

I-D-2	IV	강진 삼흥리 요지	(재)호남문화재연구원, 『강진 삼흥리요지 II』, 2004, (사진 28)	1	
II 유형 해무리굽o	IV	강진 용운리 제 32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Y-32 ⑤)	1	
II 유형 해무리굽n	IV	강진 용운리 제 33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Y-33 ④)	5	
II 유형 해무리굽o	IV	강진 용운리 제 34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Y-34 ⑤)	21	
II 유형 해무리굽o	IV	강진 용운리 제 35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Y-35 ⑤)	6	
II 유형 해무리굽o	IV	강진 용운리 제 38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Y-38 ③,④)	3	
II 유형 해무리굽o	IV	강진 용운리 제 45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Y-45 ④)	6	
II 유형 해무리굽o	IV	강진 용운리 제 47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Y-47 ③)	10	
II 유형 해무리굽o	IV	강진 용운리 제 55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Y-55 ③, ④)	3	
II 유형 해무리굽o	IV	강진 용운리 제 60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Y-60 ④)	1	
햇무리굽 II	IV	강진 용운리 10호 요지	국립중앙박물관, 『강진용운리청자요지발굴조사보고서』, 1997.(도판 158)	550	
후기 햇무리굽	IV	강진 용운리 9호 요지	국립중앙박물관, 『강진용운리청자요지발굴조사보고서』, 1997. (도판 16)	19	
II 유형 해무리굽o	IV	강진 용운리 제 16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Y-16 ⑧)	9	
II 유형 해무리굽o	IV	강진 용운리 제 26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Y-26 ⑩)	74	
II 유형 해무리굽o	IV	강진 용운리 제 6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Y-06 ⑤)	2	
II 유형 해무리굽o	IV	강진 용운리 제 27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Y-27 ④)	1	초별
후기 햇무리굽	IV	강진 용운리 10호 요지	국립중앙박물관, 『강진용운리청자요지발굴조사보고서』, 1997. (도판 159-2)	1	초별음각
후기 햇무리굽	IV	강진 용운리 10호 요지	국립중앙박물관, 『강진용운리청자요지발굴조사보고서』, 1997. (도판 160-1)- 초별음각	1	
후기 햇무리굽	IV	강진 용운리 10호 요지	국립중앙박물관, 『강진용운리청자요지발굴조사보고서』, 1997. (도판 160-2)	1	초별음각
II 유형 해무리굽p	V	강진 계율리 제 18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K-18 ⑤)	1	
III 유형 해무리굽p	V	강진 계율리 제 38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K-38 ⑦)	8	
III 유형 해무리굽p	V	강진 계율리 제 47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K-47 ②)	1	
II 유형 해무리굽o	V	강진 계율리 제 50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K-50 ④, ⑤)	7	
III 유형 해무리굽p	V	강진 계율리 제 51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K-51 ③)	1	
III 유형 해무리굽p	V	강진 계율리 제 53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K-53 ⑦)	6	
II 유형 해무리굽o	V	강진 계율리 제 55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K-55 ⑥)	5	
III 유형 해무리굽p	V	강진 계율리 제 57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K-57 ⑤)	2	
II 유형 해무리굽p	V	강진 계율리 제 6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K-06 ③)	1	
II 유형 해무리굽p	V	강진 사당리 제 35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S-35 ⑤)	2	
II 유형 해무리굽o	V	강진 용운리 제 17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Y-17 ④)	1	

Ⅲ유형 해무리굽p	V	강진 용운리 제 18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Y-18 ⑧)	1	
Ⅱ유형 해무리굽n	V	강진 용운리 제 25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Y-25 ④)	2	
Ⅱ유형 해무리굽p	V	강진 용운리 제 26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Y-26 ⑨)	9	
Ⅱ유형 해무리굽n	V	강진 용운리 제 33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Y-33 ⑤)	18	
Ⅱ유형 해무리굽p	V	강진 용운리 제 48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Y-48 ③,④)	16	
Ⅱ유형 해무리굽p	V	강진 용운리 제 49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Y-49 ⑦)	2	
후기 햇무리굽	V	강진 용운리 10호 요지	국립중앙박물관, 『강진용운리청자요지발굴조사보고 서』, 1997. (도판 159-1)	1	
Ⅱ유형 해무리굽p	V	강진 용운리 제 9호 요지	해강도자미술관, 『강진의 청자요지』, 1992, (도판 Y-09-②, ⑬)	2	
후기 햇무리굽	V	강진 용운리 9호 요지	국립중앙박물관, 『강진용운리청자요지발굴조사보고 서』, 1997. (도판 17)	4	음각
합 계				2,537	

불국사 경내 출토 고려청자 해무리굽완 속성표

속성표 1. 불국사 경내 출토 고려청자 해무리굽완 I 형식

번호	도면	도판	출토위치		크 기					무게	색 조		빙열	비고
			구역	유구명	구경	높이	굽지름	굽높이	굽접지면너비		유약	단면태도		
1	1-1	1-1	가	남북석축 동쪽	-	(2)	6.2	0.4	1.1	34	5Y5/2 olive gray	5YR5/2 reddish gray	유	
2	1-2	1-2	가	남북석축 동쪽 황갈색토	-	(2.6)	6	0.7	1.3	51	10YR5/3 brown	7.5Y7/1 light brown	무	
3	1-3	1-3	가	남북석축 동쪽	-	(2.2)	6.4	0.4	0.7	70	7.5YR6/3 light brown	10YR5/3 brown	무	
4	1-4	1-4	나	남북석축 1 동쪽	-	(2.9)	5.5	0.4	0.9	108	10Y7/1 light greenish gray	5Y7/1 light gray	무	위의 3과 유사. 4개의 백색 내화토 받침
5	1-5	1-5	가	남북석축 1 동쪽	-	(2.1)	6	0.4	0.8	57	5Y6/2 light olive gray	5Y7/1 light gray	유	
6	1-6	1-6	나	남북석축 1 동쪽	-	(2.6)	5.8	0.4	0.9	50	5Y6/3 pale olive	2.5Y7/2 light gray	유	정선된 태도, 전면에 얇게 시유됨.
7	1-7	1-7	나	건물지 6	-	(3.5)	5.6	0.5	0.8	38	10YR5/3 brown	5YR5/2 reddish gray	무	정선된 태도, 전면에 얇게 시유됨.

속성표 2. 불국사 경내 출토 고려청자 해무리굽완 II 형식

번호	분류	도면	도판	출토위치		크 기					무게	색 조		빙열	비고
				구역	유구명	구경	높이	굽지름	굽높이	굽접지면너비		유약	단면태도		
1	II - 1	2-1	2-1	나	건물지 5	-	(4.8)	6.2	0.4	1.1	85	5Y5/2 olive gray	5Y7/1 light gray	유	
2		2-2	2-2	나	남북석축 2 서쪽	-	(1.8)	6.6	0.4	1.3	71	10Y6/1 greenish gray	5Y7/1 light gray	유	위의 1과 유사. 태도에 작은 가공이 다량 확인됨.
3		2-3	2-3	나	남북석축 2 서쪽	-	(2.3)	6	0.6	1.3	46	2.5Y6/3 light yellowish brown	10YR6/3 pale brown	유	위의 1과 유사. 유약이 얇게 시유됨. 굽외면에 돌대 확인
4		2-4	2-4	나	옛 길 1	-	(2.5)	6	0.5	1.3	37	2.5Y5/3 light olive brown	5YR5/2 reddish gray	유	위의 3과 유사. 유약이 동체에 고르지 않게 시유됨. 굽 외면에 돌대 없음.
5		2-5	2-5	가	남북석축 동쪽	-	(2.4)	5.8	0.5	1.4	33	5Y6/3 pale olive	2.5Y6/2 light brownish gray	유	위의 1과 유사. 내적곡면.
6		2-6	2-6	가	지표수습	-	(4)	6.6	0.5	1.1	47	10Y6/1 greenish gray	5Y7/1 light gray	유	
7		2-7	2-7	가	원형석열	-	(4)	6	0.5	1.5	34	5Y6/3 pale olive	5Y7/2 light gray	유	위의 6과 유사. 내적곡면.
8		3-1	3-1	가	남북석축 동쪽 황갈색토	-	(2.3)	6.1	0.6	1.3	74	10Y6/1 greenish gray	5Y7/1 light gray	유	
9		3-2	3-2	나	남북석축 2 서쪽	-	(1.9)	6.8	0.4	1.2	39	5GY6/1 greenish gray	5Y7/1 light gray	무	위의 8과 유사. 내적곡면.

10		3-3	3-3	나	남북석축 1 서쪽	-	(2.3)	6.6	0.5	1.1	38	10Y6/1 greenish gray	5Y7/1 light gray	유	위의 8과 유사. 내저곡면.
11		3-4	3-4	가	남북석축 동쪽	-	(1.8)	6.9	0.6	1.3	37	5Y6/2 light olive gray	5Y7/1 light gray	유	위의 8과 유사. 내저곡면.
12		3-5	3-5	나	동서석축 1	-	(2.8)	6.6	0.6	1.2	34	10Y5/1 greenish gray	2.5Y6/1 gray	유	위의 8과 유사. 음각선의 내저원각.
13		3-6	3-6	가	남북석축 동쪽	-	(2.4)	6.4	0.6	1.1	16	10Y6/1 greenish gray	5Y7/1 light gray	유	내저곡면.
14	II	3-7	4-1	가	남북석축 서쪽	-	(3.4)	6.7	0.7	1.5	37	5Y6/2 light olive gray	5Y7/1 light gray	유	위의 8과 유사. 굽 안바닥은 편평한 것에 가까움. 내저곡면.
15	2	3-8	4-2	가	남북석축 서쪽	-	(3.1)	5.6	0.7	1.3	30	10Y6/1 greenish gray	5Y7/1 light gray	유	위의 8과 유사. 내저원각.
16		3-9	4-3	가	남북석축 노출	-	(2)	6.4	0.4	1.3	42	5Y6/2 light olive gray	5Y7/1 light gray	무	
17		3-10	4-4	나	남북석축 2	-	(2.9)	6.4	0.7	1.3	53	10Y6/1 greenish gray	5Y7/1 light gray	유	위의 8과 유사. 희미한 내저원각.
18		3-11	4-5	나	월산스님부 도 서쪽 석열	-	(11)	6	0.6	1.4	54	10Y6/1 greenish gray	5Y7/1 light gray	유	8개 내외의 백색 내화 토받침 흔적, 내저원각.
19		3-12	4-6	나	동서석축 2	-	(1.7)	6	0.7	1	86	5Y5/3 olive	5Y7/1 light gray	무	

속성표 3. 불국사 경내 출토 고려청자 해무리굽완 III형식

번호	분류	도면	도판	출토위치		크 기					무게	색 조		병열	비고
				구역	유구명	구경	높이	굽 지름	굽 높이	굽점지 면너비		유약	단면태도		
1		4-1	5-1	가	건물지석축 기단 북쪽 마서토층	15.2	5.1	5.6	0.6	1	222	2.5Y5/4 light olive brown	2.5Y6/3 light yellowish brown	유	
2		4-2	5-2	가	남북석축 동쪽	-	(1.6)	4.9	0.5	0.8	50	5Y5/2 light olive gray	5Y6/1 gray	유	위의 1과 유사. 내저곡면. 거친 태도.
3		4-3	5-3	가	남북석축	-	(1)	5	0.4 - 0.6	0.8	22	10Y4/1dark greenish gray	5Y5/1 gray	유	위의 1과 유사. 내저원각. 거친태도이며 속심이 짙은 회색을 띠고 있어 도기단 면과 유사함
4	III	4-4	5-4	가	남북석축 동쪽	-	(1.1)	4.8	0.3	0.7	25	5Y5/2 olive gray	5Y5/1 gray	유	위의 3과 유사. 내저곡면인 듯한데 내저면이 부분적으 로 결실됨.
5	-	4-5	5-5	가	남북석축 서쪽	-	(2.1)	5.2	0.6	0.6	48	5Y5/2 olive gray	5Y5/1 gray	유	위의 3과 유사. 내저원각.
6	1	4-6	6-1	나	남북석축 1 동쪽	-	(4.1)	6	0.6	0.9	101	2.5Y5/4 light olive brown	7.5YR5/3 brown	유	
7		4-7	6-2	나	남북석축 1 서쪽	-	(3.5)	5.9	0.4 - 0.7	0.9	89	10Y4/1dark greenish gray	7.5YR5/3 brown	유	위의 5와 유사. 내저원각. 3개의 백색 내 화토받침과 그 외의 흑색 점토 확인.
8		4-8	6-3	나	건물지 5	-	(2.4)	5.8	0.5	0.9	41	5Y6/3 light yellowish brown	5Y6/1 gray	유	위의 5와 유사. 내저원각.
9		4-9	6-4	가	옛 길 1	-	(2.5)	5.1	0.4	0.7	99	5Y5/3 olive	5Y5/1 gray	무	

10		4-10	6-5	나	옛 길 1	-	(1.9)	5.2	0.5	0.8	39	10Y4/1dark greenish gray	10YR6/2 light brownish gray	유	정선된 태토. 유층이 매우 두껍다.
11		4-11	6-6	가	남북석축 동쪽	-	(1.3)	8	0.6	1	31	5Y5/3 olive	5Y6/2 light olive gray	유	내지곡면.
12		5-1	7-1	나	남북석축 1 서쪽	14.4	6.1	5.4	0.7	0.8-1.2	115	5GY6/1 greenish gray	5Y7/1 light gray	유	
13		5-2	7-2	나	남북석축 1	14.4	6.3	5.8	0.5	0.9	161	10GY6/1 greenish gray	N7/1 light gray	유	
14		5-3	7-3	나	남북석축 2	-	(3.4)	5.4	0.6	1.1	24	10GY6/1 greenish gray	N6/1 gray	무	위의 13과 유사. 내지원각. 거친태토이며 속심이 짙은 회색을 띠고 있어 도기단면과 유사함.
15		5-4	7-4	나	남북석축 2	-	(4.8)	5.3	0.5	1	21	5GY6/1 greenish gray	5Y7/1 light gray	유	위의 14와 유사.
16		5-5	7-5	가	지표수습	-	(2.1)	5.4	0.4	1	13	10Y4/1dark greenish gray	N5/1 gray	유	위의 14와 유사.
17		5-6	7-6	나	남북석축 1	-	(3.1)	4.8	0.3	0.9	35	5Y6/2 light olive gray	5Y6/1 gray	무	위의 13과 유사. 내지면이 편평하고 도드라짐.
18	III	5-7	8-1	나	남북석축 1 내	-	(4)	5.2	0.5	1.3	31	5Y5/3 olive	25Y6/3 light yellowish brown	무	
19	-	5-8	8-2	나	남북석축 1 내	-	(2.3)	5.1	0.5	1.2	18	5Y5/3 olive	25Y6/3 light yellowish brown	유	위의 18과 유사.
20	2	5-9	8-3	가	남북석축 서쪽	-	(1.5)	5.3	0.5	1.4	11	10GY6/1 greenish gray	5Y7/1 light gray	유	위의 18과 유사.
21		5-10	8-4	나	남북석축 1	-	(2.4)	5.6	0.5	1.2	19	5GY6/1 greenish gray	5Y7/1 light gray	유	위의 18과 유사.
22		5-11	8-5	가	동서석축 남쪽	-	(2.1)	5.6	0.6	1.1	33	10GY6/1 greenish gray	5Y7/1 light gray	유	정선된 태토로 작은 기공이 다량 확인됨. 음각의 내지원각. 유층이 매우 두껍다. 굽 접지면에 유약이 없음.

속성표 4. 불국사 경내 출토 고려청자 해무리굽완 IV형식

번호	도면	도판	출토위치		크 기					무 게	색 조		빙 열	비 고
			구역	유구명	구경	높이	굽지름	굽높이	굽접지면너비		유약	단면태토		
1	6-1	9-1	나	남북석축 1 서쪽	15	5.2	4.6	0.4	1.1	56	5GY6/1 greenish gray	5Y7/1 light gray	무	
2	6-2	9-2	나	건물지 7	-	(2.4)	4.4	0.4	1	34	5GY6/1 greenish gray	5Y7/1 light gray	무	위의 1과 유사.
3	6-3	9-3	나	건물지 7	-	(2.5)	4.2	0.4	1	41	5GY5/1 greenish gray	5Y7/1 light gray	무	위의 1과 유사.
4	6-4	9-4	나	건물지 5	-	(3.3)	4.6	0.4	0.8	27	10Y5/1 greenish gray	5Y6/1 gray	유	위의 1과 유사.
5	6-5	9-5	나	남북석축 2 동쪽	-	(4)	4.4	0.4	1	33	10GY6/1 greenish gray	5Y7/1 light gray	유	

속성표 5. 불국사 경내 출토 고려청자 해무리굽완 V 형식

번호	도면	도판	출토위치		크 기					무게	색 조		병열	비고
			구역	유구명	구경	높이	굽지름	굽높이	굽접지면너비		유약	단면테토		
1	7-1	10-1	가	남북석축 동쪽	-	(4.2)	3.9	0.3	0.7	61	10GY5/1 greenish gray	5Y7/1 light gray	무	
2	7-2	10-2	나	옛 길 1 지표수습	-	(2.4)	4.2	0.3	0.7	28	10GY6/1 greenish gray	5Y7/1 light gray	무	위의 1과 유사.
3	7-3	10-3	나	옛 길 1	-	(2.1)	4	0.4	0.6	18	5G6/2 pale green	5Y7/1 light gray	무	위의 1과 유사.
4	7-4	10-4	나	남북석축 1	-	(3.1)	4	0.3	0.6	23	10GY5/1 greenish gray	5Y6/1 gray	무	위의 1과 유사.
5	7-5	10-5		지표수습	-	(2.5)	4.2	0.3	0.6	31	10GY6/1 greenish gray	5Y7/1 light gray	유	
6	7-6	10-6	나	수혈 내	-	(3.2)	3.5	0.1	0.5	29	10GY6/1 greenish gray	5Y7/1 light gray	무	
7	7-7	10-7	나	건물지 7	-	(2)	4	0.2	0.4	21	5Y4/2 olive gray	5Y6/1 gray	무	

A Preliminary Perspective of the Chronology of the Goryeo Celadon Bowls with a Halo shaped foot excavated in the Bulguksa archaeological expedition

Lee, Min Hyeong

Department of Cultural Assets
The Graduate School
Gyeongj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Chang Ho)

(Abstract)

In this thesis, I will look at the change of Celadon Bowls with a Halo shaped foot and the produced period that analyze sixty pieces of them of the Bulguksa archaeological expedition (under the Bulguksa) carried out by Gyeongju University Museum between 2003 and 2004.

Bowl with a halo shaped foot was used to the research of the begging of manufacturing Korean celadon. But it is hard to get a clear so that bowl with a halo shaped foot changes. So, I presented research tendency on the type classification of bowls with a halo shaped foot. And based on the Celadon bowls with a halo shaped foot of the Bulguksa, I tried to establish category of bowls with a halo shaped foot as observation of Body Shape, Paring Foot Method, Glaze, Clay, Firing Stands, and Design Techniques. In result, though the bowls with a halo shaped foot are excavated sixty pieces in the Bulguksa, they could fall into thousands of the bowls with a halo shaped foot handled research tendency so far.

And then they can be classified into five types so that classification standards based on a concave or circle-pressed inner-bottom surface, Glaze, Clay, foot's size of research tendency and paring foot method side of manufacturing Method.

Also, based on paring foot method, glaze, clay, foot's size, design techniques and the outcome of the archaeological excavation, I considered them to be changed into five stages.

It is the first stage that closely resembles Celadon bowls with a halo shaped foot of Chinese Tang~Five Dynasties. That is the inner-soleplate of the foot is flat, the inner-bottom surface is concave and the glaze is light.

It is the second stage that has kept Celadon bowls with a halo shaped foot of Chinese Tang~Five Dynasties resembling except a flat the inner-soleplate of the foot. Unlike the first stage, this stage come out a point of inner-soleplate' center of the foot, a circle-pressed inner-bottom surface and a heavy the glaze.

It is the third stage that is different from paring foot method of celadon bowls with a halo shaped foot of Chinese Tang~Five Dynasties. That is the inner-soleplate of the foot is pared in a spiral, and the foot and body come out a slovenly shape of paring. And this stage almost has a circle-pressed inner-bottom surface.

It is the fourth stage that has kept the inner-soleplate of the foot of the third stage paring. Just there has a circle-pressed inner-bottom surface, a heavy and close-by Jade colored glaze all of this stage.

It is the fifth stage that has kept the fourth stage characterizing. Just there is no the boundary of from the foot to body. And this stage come out a incised chrysanthemum design.

Provided the bowls with a halo shaped foot of the first stage base on outcome of the archaeological excavation during the Silla period in the Gyeongju area, they are the question whether the bowls with a halo shaped foot of the first stage is produced during the Silla period in the conception of the korean celadon.

Because they have been none excavated together vessels produced during the Silla period, there have been none excavated celadon bowls with a halo shaped foot of Chinese Tang Dynasties in the Bulguksa besides the first layer of this site's yield Goryeo Dynasty's cultural remain. Therefore they will be produced during the Goryeo period.